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60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2월 2일(음력 10월 16일) 수요일(주간)

태고종 국제구호 '시동'

'나누우리' 창립준비위 라오스 방문

태고종이 본격적인 국제구호 활동에 나선다.

국제포교 및 구호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태고종도들의 모임 '나누우리' 창립준비위(위원장 묵원, 전 총무부장)는 11월 2~8일 7일간의 일정으로 라오스를 방문해 지구촌 소외계층에게 자비행을 펼쳤다.

창립준비위는 라오스 방문 첫날인 3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의 승가대학을 방문해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했으며 5일 방비엥 인근 고산족 마을을 방문해 슬리퍼 150족, 옷 200여 벌 등 필수품을 전달했다. 또 6일에는 고산족 초등학교 2곳을 방문해 공책 800권, 볼펜 600자루 등 학용품과 축구공 8개를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내년 초 예정된 '나누우리' 창립식을 앞둔 사전 답사 성격인 이번 방문에서 창립준비위는 내년 상반기 중 라오스 루앙프라방 인근 고산족 마을에 초등학교도 건립하기로 결의했다. '나우누리'는 이와 함께 태고종 국제구호기구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창립준비위원장 묵원 스님은 "라오스에는 학교는 고사하고 아직 맨발로 생활하는 아이들도 많다"며 "각 지역현실에 맞춰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겠다. 향후 종단 차원의 국제협력기구로 승화 · 발전시킬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라오스 방문에는 중앙사정원장 월운, 충남종무원장 혜산, 총무원 교무국장 월조, 총무원 문화국장 보원 스님 등 종단 소임 스님 14명이 함께했다.

노덕현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백양사 야단법석 "깨달음의 길 제시"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가 11월 21일 오후 2시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주제로 4박5일간 야단법석의 문을 열었다. 이번 법회는 지난 8월 지리산 실상사에서 열려 불교계 안팎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에 이은 두 번째 법회다.

백양사 교육관에서 거행된 입제식에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익산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전국 각지에서 동참했다.

관련기사 5~12면 김성우 기자

중생 아픔 같이하는 사찰로…

마곡사 주지 진산식 대신 '자비의 김장 나눔'… 김치 오천포기·쌀 천포 보시



마곡사의 '자비의 김장 나눔 한마당' 행사에서 김치를 버무리는 이완구 충남도지사, 원혜 스님, 자승 스님, 주호영 특임장관, 이준원 공주시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공주 마곡사 주지 진산식을 대신해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보시하는 '자비의 김장 나눔 한마당' 행사가 열려 지역민의 찬탄을 얻었다.

11월 25일,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이날 행사를 통해 김장김치 5000포기와 쌀 1000포를 관내 소외계층 이웃에게 전달하고 지역민의 고충과 아픔을 함께하는 사찰이 될 것을 발원했다. 이번 김장김치에 사용된 배추는 지난 9월 23일 마곡사 생태도량선포식에서 심은 7000 포기의 배추 중 사찰내 사용분을 제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김장나눔 한마당은 마곡사가 '마음을 맑히는 수행도량', '자연과 하나 되는 생태도량', '이웃에 희망주는 나눔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발심의 법석이자 쉼 없이 정진하고자 하는 다짐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혜 스님은 "마곡사 사부대중은 충청지역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는 도량, 지역민과 소통하는 도량이 될 것을 발원한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세계사적 격변 속에서 경제위기, 계층과 지역간의 갈등, 사회 혼란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때, 마곡사의 자비배추 김장 나눔 행사는 지역민의 고충과 아픔을 함께 함으로써 소통하고, 자비를 나눔으로써 화합하는 불교적 소통과 화합의 모범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치하했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수덕사 주지 옹산스님,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과 주호영 특임장관,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준원 공주시장, 심대평 국회의원 등 내외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성우 기자

히말라야 트레킹 성료

본사 세종문화원 공동

현대불교신문사와 네팔 카트만두 소재 세종한국문화 언어교육원이 공동 주최한 '영봉스님과 함께하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이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중앙 히말라야 피케이(Pikey)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비구스님 4명과 거사 3명 우바이 7명 등 14명이 함께 한 행선 트레킹은 불교계 언론사상 처음으로 진행 됐다. 관련기사 18~19면

임연태 기자

금주의 Hot……



빛고을아카데미
법륜 스님
14지상중계



학술강연회
박성배 교수
13불자들



제1차 만해포럼
박원순
04종합

사람

前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정부는 '고해 건너는 배' 같은 존재 돼야"



대구 심인고 다니며 '자리이타' 새겨
'주인정신'으로 정치에 관심 기울여야

"불가에서는 삶을 고해(苦海)라고 합니다. 정부는 그런 위험을 보장해 주는 '고해(苦海)의 배'같은 존재가 돼야합니다."

유시민 前 보건복지부장관이 11월 24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주최한 불교미래사회포럼에서 '부자를 위한 복지, 서민을 위한복지'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유시민 前 장관은 여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 국가라고 주장했다.

유 前 장관은 우리나라 복지정책 현황에 대해 "제도 운영 기반이 취약하고 제도 적용의 폭과 깊이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꾸준히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前 장관은 부처님의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참된 삶을 살아라"는 말을 예로 들면서 문명정부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베풂과 나눔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前 장관의 이러한 사상은 진각종립학교를 다니며 확고해졌다.

"저는 진각종립 대구 심인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불교 과목을 수강하면서 들었던 말 중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말이 자리이타(自利利他: 자신뿐 아니라 남을 위해 불도를 닦음)입니다."

유 前 장관은 "우리 마음 안에서는 권력에 대한 갈망과 공감 · 배려 · 나눔이 공존하면서 갈등하고 있다"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前 장관은 "정당과 정치를 직업정치인들의 전유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이 정당과 정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주 기자

법구경
의심의 마음과 욕망을
극복하지 않는 한,
자신을 정화시킬 수 없다.

현대불교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행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홍포하는
밑거름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ARS 포교후원
060-700-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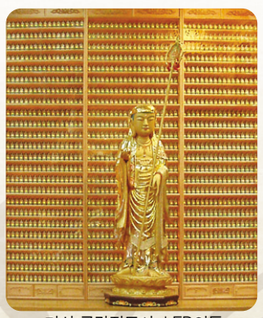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장애인 포교에 관심 가져야

11월 14일 수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신명나는 난타공연의 장(場)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지적 · 발달 장애 어린이 · 청소년 · 성인들로 구성된 6개 팀. 모두 전문가의 난타 공연만큼 능숙하게 장기를 발휘했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의 사물놀이단이 차지했다.

승가원 사물놀이단처럼 단순한 문화예술 관람이나 프로그램 활동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직접 문화 ·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청각 · 시각장애인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원심회는 지난 3월 난타공연팀 '두드림'을 창단해 부처님오신날, 21주년 창립법회 등에서 공연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인 보리수아래는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있는 불자들이 모여 시 쓰기와 시 낭독, 작사에 참여해 음반제작, 시집 발간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밖에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청각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압화(꽃누름) 공예 교육을 실시, 완성된 작품은 직접 판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두각을 나타내는 예는 많다. 운보 김기창 화백(1913~2001)은 7세 때 장티푸스로 청각을 잃고 미술활동에 전념해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으며, 황원교시인(50)은 20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후 문학을 접하고 시를 쓰기 시작, 산문집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 피아니스트 이희아(25)는 선천성 사지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네 손가락으로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며, 미국의 작곡가 겸 가수인 스티비 원더(60)와 레이 찰스(1930~2004)는 시각장애를 딛고 재능을 발휘, 수 많은 곡들을 발표해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 받아오고 있다.

장애인과 일반인의 차이는 생활함에 있어 약간 불편하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점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이들이 간혹 있다. 자신의 흥미 또는 관심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도 이들의 시선 때문에 망설이는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다.

차별을 수용해야 건강한 세상이 된다. 조금 더 불편한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에 앞서 장애인 포교에 대한 정책개발과 예산 배정이 선행돼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영석학원 東大 보시 '훈훈'

안채란 이사장 11월 23일 기부합병 협정 조인



기부 합병에 관한 협정 조인식을 가진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과 영석학원 안채란 이사장.

평생 일군 교육도량을 조건 없이 모교인 동국대에 기증한 불자 교육인이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학교법인 영석학원 안채란 이사장은 11월 23일 의정부 영석고 회의실에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과 '영석학원의 동국대와의 기부 합병에 관한 협정'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정식은 2008년 10월 안 이사장이 영석고의 동국대 기부를 발원하고 약정식을 가진 데 이은 것이다. 약정식 당시 영석고는 학내분규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상태로 주변에서는 동국대와의 합병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어수선한 학내 상황도 안 이사장의 원력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안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84세로) 세상에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이 삶을 마감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내 배움의 터전으로서 내 철학이자 전부인 동국대의 발전과 불교계에 공헌코자 영석학원을 기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이사장은 "불교가 한국사회에서 사심 없이 애국하는 데 앞장서고, 103년 전통의 명문사학 동국대가 그 선두에 설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련 스님은 "부처님은 무주상보시를 최고의 공덕으로 여겼다"며 "영석고를 지역 최고의 명문학교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안 이사장은 동국대 국문과를 1954년 졸업하고, 행정대학원과 교육대학원에서 각각 1973년과 1982년 수학했다. 그녀는 12년 간 동국대 총동창회장 부회장을, 6년간 동국대 이사로 활동한 이력에 더해 '채란장학회' '불교사상연구회' 등을 설립하며 남다른 모교 사랑으로 후배를 도와왔다.

한편, 영석학원이 동국대에 기부한 재산은 의정부 용현동 소재 영석고와 의정부3동의 영석빌딩 등으로 250여 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하는 규모다.

영석고는 안채란 이사장이 고향인 용현동에 아버지 이름을 빌어 1970년 개교한 학교로 17개 학급에서 600여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자기 발 밑에서 열반길 찾으라"

12월 1일 동안거 결제… 법전 스님 등 법어

겨울철 운수납자들이 외부 출입을 끊고 산문 안에서 참구정진하는 동안거가 12월 1일 결제에 들어갔다. 이번 안거에는 조계종에서 2300여 수좌 스님들이 100여개 선원에서 방부를 들였다.

결제에 앞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한 방장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당부하는 법문이 이어졌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산승에게 만약 열반문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장 방망이로 등줄기를 때려줄 것이고,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할을 해서 내쫓을 것"이라며 "각자가 자기 발 밑에서 열반길을 찾으라"고 설법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도 법어를 통해 "무슨 일을 하든지 밥먹고 일하고 쉬고 버릴 때에도 끊임없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며 "나하고 다른 근기의 사람들에게 조사 스님들이 내린 법문을 내게 맞추려 애쓰지 말고, 근기에 맞게 스승에게 탄화두를 골똘히 사유해 그 참뜻을 제대로 알아내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무쇠 솥에 넣어 삶아 살점이 없어지고 홀로 벗어나 의지함이 없어야 비로소 일호(一毫)만큼 점두(點頭)를 얻게 될 것"이라며 결제법어를 내렸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본래면목 자리는 명상이나 사량으로도 짐작할 수 없는 것"이라며 "동안거를 통해 생사를 영단(永斷)하는 출격장부가 되어 일체무애인(一切無碍人)이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남)하는 대과(大果)를 성취하기를 지도지도(至禱至禱: 간절히 기도)한다"고 격려했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은 결제법어에서 "중국의 무착(無着) 스님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저 열심히 기도를 하던 중에 죽을 쑤다가 죽이 넘쳐 솥뚜껑을 여는 순간 죽 거품마다 문수보살 얼굴이 나타나자 크게 깨치고 오도송을 지었다"며 "무착 스님의 깨친 도리를 아는 이가 있거든 한마디 일러보시오"고 물은 뒤 "물은 거꾸로 흐리지 않느니라"고 자답했다.

법어 전문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참조.

노덕현 기자

"훈련소 법당 중창불사 동참"

조계종 군종교구 '군승의 날' 기념법회


11월 27일 하림각에서 열린 제41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서 삼귀의례하는 사부대중. 오른쪽부터 현성 스님, 자광 스님, 자승 스님, 혜정 스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11월 27일 하림각 AW컨벤션센터에서 '제41주년 군승의날 기념대법회'를 열고 육군훈련소 불사 선포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군종교구장 자광스님은 현성, 도영, 일면 스님을 고문위원으로, 성타 스님을 비롯한 2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을 불사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30여 년간 군포교 활성화에 나선 공로로 군포교 특별상을 수행했으며, 그 외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보운 김종봉 법사가 총무원장상 등을 수상했다.

글 =노덕현 · 사진=박재완 기자

"세상 이익되게 하는 대들보 되라"

태고종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태고종은 11월 26일 서울 법륜사(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불기2553년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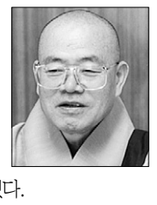
이날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교수사(敎授辭)를 통해 "이제 불법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금계(禁戒)를 받고 생사의 나루를 건너 허망한 생각을 끊어버리고 진실한 도(道)를 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차인연 공덕으로 계해(戒海)가 맑아져서 중생의 업을 씻어주며 세상을 골고루 이익 되게 하는 대들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계대화상 수진 율사는 "부처님의 교법을 잘 받아서 응당히 힘써 복된 일과 중생교화에 앞장서 달라"며 수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사미 71명, 사미니 39명 등 총 110명의 스님들이 비구 · 비구니 구족계를 수지했다. 한편 수계식에는 삼화상으로 갈마아사리에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이, 7증사에는 원봉 청봉 화경 영우 보경 혜공 경담 스님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법계위, 고산스님 위원장으로



조계종 제5기 법계위원회는 11월 27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사진)을 법계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고산 스님은 당초 위원장으로 추천받은 임시 의장 보성 스님(송광사 방장)이 건강상 이유로 고사하며 추천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법계위 간사로 종진 스님(해인사 율주)을 재선출 했으며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와 각 위원회 구성, 법계법 등 개정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보성 스님과 고산 스님, 종진 스님과 지성 스님, 무관 스님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卍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청화 대종사 부도탑 제막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는 11월 27일 부도전에서 '무주당 청화 대종사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과 청화스님 문도 대표 청파 스님과 문도 스님 및 신도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4대강사업 중단' 기원 순례

국민소송단, 4대강사업공사중단 가처분 신청

지율 스님과 종교인들,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종교인과 함께 하는 낙동강 이야기' 순례길에 나선다.

환경 ·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1월 22일 영산강과 금강에서 '4대강 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종교계와 부산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3.14'는 " '생명경시풍조'와 '개발 성장주의'를 성찰하고 생명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자"며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낙동강을 순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례길은 매 주말 1박 2일 동안 상주 경창교에서 상주보 건설현장을 지나 장안사, 회룡 마을, 내성천, 병산서원 산길, 마애습지, 풍산 등을 도보하응 여정이다.



지율 스님.

지율 스님은 " '낙동강3.14'와 함께 매주말 상주에서 안동까지 '4대강 사업 중단 기원' 순례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강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곳(낙동강)을 배회하는 마음은 불안하지만 희망은 우리에게 있다. 자연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자연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낙동강 순례 신청은 낙동강3.14(www.nakdongkang314.org)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5만원 이다.

한편, '4대강 사업 위헌 ·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4대강소송단)'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법치적 사업"이라며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명진 스님(봉은사 주지) 등이 동참한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만여명은 11월 26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사업에 대한 위법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4대강소송단은"4대강 예산 때문이 국회가 어지러운데, 정부는 4대강 기공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4대강사업의 내용적 위법성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깨달음의 사회화 위해 정진

올해 재가불자상 우희종 교수 선정



2009재가불자로 선정된 우희종 교수.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는 11월 26일 '2009올해의 재가불자상'에 서울대 우희종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우희종 교수가 참여불교적 관점으로 사회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적 생명존중의 신념으로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토론회 발표 및 저술활동을 한 것은 다른 이의 모범이 됐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우희종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와 대한면역학회 이사,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센터 배아연구계획 심의자문위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 한국수의면역학협의회(KVIC) 회장, 법무부 보호소년 지도위원등 많은 직함으로 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불자로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사,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전문위원, 불교신문 논설위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의원, 조계종 포교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제23기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을 맡아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2009올해의 재가불자상 시상식은 11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회관 2층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총회'와 함께 개최됐다.

박선주 기자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위해 쓰여

진흥원, 군종교구에 후원금 1억원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11월 25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에 군포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민병천 이사장은 "(자광 스님의) 손이 따뜻하니 마음도 따뜻하겠다. 지속적으로 군포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광 스님은 "연무대(육군 논산훈련소) 법당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진흥원의 도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종교구는 이 후원금을 군승 · 간부 불자 연수와 군종병 집체교육, 민간인 성직자 교육 등 군 포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중점 사용하기로 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진흥원은 1976년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50여 동의 군법당 지원과 50만부의 불서 등을 보급하며 군포교 진흥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불사 등에 치중해 집행된 예년의 후원금과 달리 올해부터는 교육 등 군불교 진흥 프로그램 개발에 주로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우리는 열혈노인입니다!

'2009 탑골대동제 열혈노인' 개최



난타공연을 선보이는 어르신들.

사진= 박재완 기자

어르신들의 삶의 추억과 연륜이 묻어나는 문화예술의 장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은 11월 24~27일 관내에서 '2009 탑골대동제 열혈노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문화교실, 탑골문화예술학교 참여 어르신이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각자의 기량과 실력을 선보이는 '새로운 노인문화예술이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복지관은 행사기간동안 동아리 어르신들이 직접 작업한 작품들을 시화전, 서예전, 동 · 서양화전, 미디어상영전을 통해 전시했으며 서울노인복지센터를 기념하는 티셔츠 및 의류전시로 이뤄진 설치미술전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 셋째 날인 26일에는 1부 마임 · 난타 공연과 2부 연극공연이 진행됐다.

공연에 앞서 가섭 스님은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전통문화, 예술공연, 언어, 건강증진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져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02)6911-9555 이나은 기자

'생명의 물' 홍보대사 가수 소녀시대 나서

"생명의 물로 모두 깨끗한 물 마셔요"

가수 소녀시대가 '생명의 물' 홍보대사로 나선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12월 8일 오후 3시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생명의 물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한다.

생명의 물 사업은 수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지구촌 이웃에게 깨끗한 식수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캄보디아에서 시작됐다.

지구촌공생회 측은 "돼지, 오리가 놀고 있는 집 앞 웅덩이 물을 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팠다"며 "인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하게 살 권리를 위해서 생명의 우물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생명의 우물 1000개 사업은 2010년 1월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선주 기자

언론문화상 대상 '출가, 그후 10년'

본지 임연태 부국장 신문부문 최우수상



임연태 편집부국장.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불교발전에 이바지한 언론에게 수여되는 제17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에 본지 임연태 부국장의 '감성으로 가는 부도밭 기행'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감성으로 가는 부도밭 기행'은 사찰의 후미진 부도밭을 집중조명하고, 기사의 완성도가 높이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은 MBC 스페셜 '출가, 그후 10년'에게 돌아갔다. 1998년 MBC스페셜을 통해 소개됐던 조계종 행자교육원 18기 행자들이 10년 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며 삶을 되돌아보게 해준 작품으로, 참신한 기획력과 돋보이는 구성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탄생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를 맡은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교수)은 "사미계를 받은 후 10년째 스님들의 모습을 다룬 점이 신선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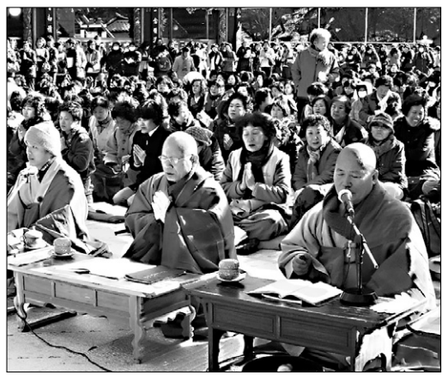
이밖의 수상자(작)에는 △불교언론인상에 박준영(前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신문부문 우수상 금강신문 취재팀 '스러졌다 살아난 옛 절' △TV부문 최우수상 KBS '禪의 황금시대를 열다 신라승 무상', 우수상 SBS 스페셜 '僧, 길위의 하루'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 MBC 부처님오신날 특집 '신부님이 찾아간 낙산사', 우수상 울산BBS '다도명상으로 다시 태어난 초의선사의 유산, 차' △인터넷부문 최우수상 무비스님 '염화실', 우수상 신희권 '불교포커스' △특별상 조명희 KBS 심의의원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7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2월 17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은정 기자

'108산사순례기도회' 3돌 재발심

24일 공옥진 여사에게 108 선행보시금 1000만원 전달

신행 전법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 '108 산사 순례 기도회'가 3주년을 맞이했다.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는 11월 20~21일 108산사 순례 3주년 기념 법회, 천도재, <신행전법순례기>봉정식 등을 봉행했다.





(왼쪽)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108산사 순례 3주년 천도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위쪽)공옥진 여사에게 108선행보시금을 전달하고 있는 혜자 스님.

21일 도선사 경내를 가득 메운 신도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시간여 동안 야외에서 법회를 진행하며 순례를 통해 쌓은 내공을 자랑했다.

혜자 스님은 "108산사순례기도회는 큰 포대에 만물을 담아 보시했던 포대화상의 보살행을 상징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펼쳐온 선행은 7색 광명의 상서로운 빛이 14번 이상 발현하는 기적을 보이기도 했다"며 "보현행 10대 행원을 현대적으로 옮겨 실천함으로써 살아있는 불공, 방생을 실천해 '바른 마음, 자비로운 실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기념법회에 이어 혜자 스님은 참가들을 위한 천도재와 3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신행전법순례기>(연중)에 축원을 적어 전달했다. <신행전법순례기>에는 산사순례기도회의 발대식부터 36곳 사찰에서의 활약상과 다양한 일화, 사찰 소개 등이 혜자 스님의 솔직한 신행담 형식으로 담겼다. 스님은 책을 통해 "36곳의 사찰순례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지금까지 실천한 108선행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며 "불·보살님의 가호와 청담 스님의 '불교는 산중에서 거리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한국에서 세계로'라는 가르침, 문도스님들의 충고, 나를 믿고 따라준 도선사 불자들과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의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전용식 씨(원주·49)는 "내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라 더욱 뜻 깊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늘 함께 해주시는 혜자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농촌사랑봉사단으로 활동 중인 문명옥(구리·55)씨는 "순례동참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사찰순례를 갈 때 종종 나타나는 무지개 외에 새로운 수행을 통한 만남과 풍경 등을 통해 좋은 체험을 많이 한다"고 소감했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월1회 사찰 순례를 떠나 염불과 기도,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및 사경, 발원문, 동참불자에게 낙관과 해당 사찰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 보시를 통해 참가자들의 신심을 북돋고 있다. 또 2006년부터 36곳의 사찰 순례는 단순한 개인 수행을 넘어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진행, 군포교, 다문화가정 자매결연 사업, 환경보호운동 등의 혁신적인 신행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11월 24일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창무극의 대가 공옥진 여사에게 '108 선행 보시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선행기금은 108산사 순례에서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보시한 기금으로 그동안 원로코미디언 배삼룡,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수술비 등에 지원하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불교청년의 사회적 역할 '나눔과 참여'

대한불교청년회, 박원순 변호사 초청 만해포럼 개최

"물질만능과 극심한 사회 양극화 속에 '불교'가 희망입니다."

'소셜디자이너(social designer)' 박원순이 말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청년 불자는 어떤 모습일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 이하 대불청)는 11월 22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를 초청해 '불교 청년의 사회적 역할, 나눔과 참여'를 주제로 제1차 만해포럼 개최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는 '발우공양' '수경·도법 스님의 사회운동' 등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의 활용방안을 쏟아냈다.

"단순 명쾌하고 가장 친환경적인 '빈 그릇 운동', 무명을 깨우는 '죽비' 하나도 외국인에게는 기가 막힌 문화상품입니다. 사찰 요리 뷔페를 호텔에서 운영, 약초 박물관·연구소 설립, 화엄사의 화엄제와 같은 문화공연의 활용, '혜초의 여행길'을 살리는 고행의 길, 숲길 살리기, 행복설계아카데미와 같은 노후 설계 프로그램 등 무한한 소재가 불교에 있습니다. 또 불교의 수행은 종교를 넘어 자기 수련, 운동으로 접근만 해도 뛰어난 아이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쇄국"이라며 "조계종 총무원 차원이 아니고서도 대불청의 유수한 인재들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경제를 경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 디자인, 생태적 감각, 창의적 혁신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 핵심적 발상의 전환이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뛰어난 콘텐츠가 있다고 해도 디자인이 떨어지면 성공할 수 없다"며 불교계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기능성과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투명성을 통한 '신뢰' 확보, '아이디어'와 '기부 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참여를 제안하고 '공익적 목적을 지속 가능케 하는 청년 불자'를 미래의 시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상언 기자

자비와 사랑의 김장담그기

명장사 등 이웃위한 나눔 행사 다양

천태종(총무원장 정산) 지역 사찰과 산하 복지시설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를 나누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청주 명장사(주지 용암)는 11월 24일 경내에서 '자비와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산 스님을 비롯, 총무부장 무원 스님, 충북도청 백경배 행정부지사, 청주시 남상우 시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3000포기의 김장을 담았다.

용암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이 사랑과 자비가 담긴 명장사 김치를 드시고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청주지역 내 독거어르신 및 소년소녀 가장, 장애우 가정, 새터민 가정 등 300가구에 전달 될 예정이다.

이밖에 부천 천화사(주지 월산), 인천 황룡사(주지 덕해), 분당 대광사(주지 월도), 포항 황해사(주지 진덕), 마산 삼학사(주지 갈지),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도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해 이웃들에게 희망과 자비를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복지네트워크 중심거점역할 기대

연꽃마을, 용인시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체 선정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이 용인시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체로 선정돼 용인시 노인복지네트워크의 중심거점 역할을 하게 됐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시노인복지관.

용인시는 11월 23일 용인시노인복지관(처인구 삼가동)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연꽃마을을 위탁법인으로 선정했다.

연꽃마을은 지난 7월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은데 이어 용인시노인복지관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7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 하루 평균 약 78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연꽃마을 7개 복지관을 이용하게 됐다. 연꽃마을은 곧 복지관 인수 대책본부팀을 구성해 2005년 7월부터 위탁 운영해오던 대한간호복지재단으로부터 복지관을 인수,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운영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각현 스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어르신들에게 더욱 질 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031)898-1486

이나은 기자

잘 사는 부산, 하나 되는 시민

제1회 부산불교지도자 조찬 법회 봉행

부산을 대표하는 출·재가 지도자가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조찬법회를 열고, 부산 불교계 및 부산시정을 설계했다.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11월 25일 오전 7시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잘 사는 부산, 하나 되는 시민'을 주제로 제1회 부산 불교 지도자 조찬 법회를 봉행했다.

조찬 법회는 <반야심경>, 서원문 낭독, <보왕삼매론>, 조찬법회 취지 설명, 법문, 석가모니불 정근, 축원 등의 의식을 봉행한 후 아침공양을 하고 각자의 일터로 향했다.

설동근 회장은 서원문에서 "대립과 장애, 갈등의 벽을 무너뜨리고 걸림 없는 지혜와 광명으로 '잘 사는 부산, 하나되는 시민'의 서원이 부처님의 법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남식 부산시장은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교지도자들의 기도와 성원에 감사하다"며 "조찬 법회를 계기로 부산의 희망찬 미래를 열고, 세계 일류 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성원해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정여 스님은 "현대인들은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과도한 경쟁과 물욕으로 정신적으로는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불자로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찬법회에는 정여 스님, 화산 스님 부산시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삼광사 주지), 정각 스님 부산시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미룡사 회주), 심산 스님 전법도량의장,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등 600여 인사가 참석했다.

부산시불교연합회는 앞으로 조찬법회를 정례화해 3개월마다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51)867-0501

박지원 기자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참가

두둥페스티발 대상

승가원자비복지타운(원장 묘전)이 11월 14일 수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영)에서 열린 '제1회 두둥페스티발'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각 지역사회의 지적·발달 장애어린이·청소년·성인으로 구성된 6개 팀이 참여해 그동안 닦아온 난타실력을 겨뤘다.

6개 팀이 각자 개성 있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경쟁을 치룬 가운데 승가원 난타공연팀은 우리나라 고유의 가락을 살린 신명나는 연주와 화려한 구성을 선보여 관객들의 많은 갈채를 받았다. 이날 공연에 참가한 승가원 난타공연팀 정인교(22·지적장애 2급)군은 "지금 어떤 것이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묘전 스님은 "장애인도 한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날이다. 승가원자비복지타운 난타공연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031)641-1300 이나은 기자

동곡당 일타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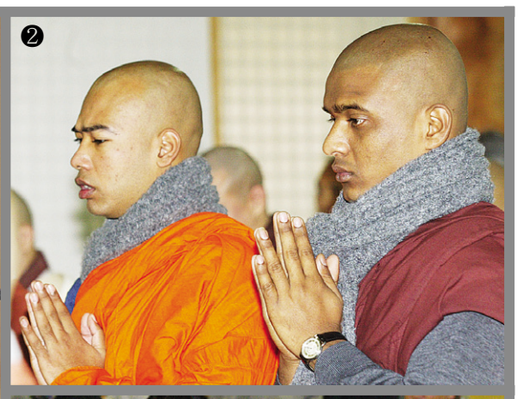
동곡당 일타 대종사의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문도스님들 및 큰스님과 인연 있으신 분들은 왕림하시어 자리를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곡당 일타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

- 일 시 _ 불기 2553(2009)년 **12**월 **8**일(음 10.22)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_ 은해사 법당
- 문 의 _ 종무소 (054)335-3318~9

동곡당 일타 대종사 문도대표 포산 혜인
대한불교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운곡 돈관
분향삼배

도대체 무엇이 본분사인가?




❶ 백양사 야단법석 입제식에서 법어를 내리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❷ 백양사로 유학온 인도 학인스님들.
❸ 법문을 경청하는 재가자들.
❹ 야단법석에서 법문을 듣는 스님들.
❺ 백양사 야단법석 입제식에서 삼귀의례하는 사부대중. 오른쪽 두번째부터 향봉 스님, 도법 스님, 고우 스님, 수산 스님, 시몽 스님.

한국불교 현실 타파 없이 불교 중흥 요원 '공감'
수행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발원 쏟아져 '호응'

"모든 부처 진수를 알려 하는가? 먼저 제 마음과 그 몸을 보라. 조주 늙은이의 '일곱 근 적삼(麻三斤)' 바람을 머금고 또 달을 움켜잡는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도 차나니, 그 공덕 천추에 끊어지지 않으리라."

11월 21일 오후 2시 백양사 교육관에서 열린 야단법석 입제식에서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제 법어를 내렸다. 수산 스님은 "만일 번뇌 망상의 가시밭길을 뚫고 지나가서 불조의 속박마저 끊어버리고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경지를 얻게 되면, 하늘의 신들 마저 꽃을 바칠 길이 없고 외도가 몰래 엿볼 틈마저 없다"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본분사인가를 끊임없이 참구하라"고 당부했다.

'깨달음의 길을 구하다'라는 주제로 25일까지 7명의 법주들이 12번의 법석을 펼친 이번 야단법석에서는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시몽 스님이 '대승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 각묵 스님(화엄학림 교수사)이 '초기불교를 통한 깨달음의 길', 용타 스님(동사섭 이사장)이 '동사섭을 통한 깨달음의 길',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이 '생명 평화 운동과 대승불교 수행론', 월암 스님(벽송사 선원장)이 '간화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향봉 스님(익산 사자암 주지)이 '조사어록을 통한 깨달음의 길'에 대해 각각 설법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회 동참자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과 새벽 정진을 시작으로 오전, 오후 저녁 강의를 들은 뒤 예불을 올리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4박5일간의 빠듯한 사중생활을 불평 없이 이어갔다. 무려 3시간씩 12번에 걸쳐 진행된 쉴 틈 없는 강의에도 50여 동참자들은 조는 사람 한 명 없이 법문을 경청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도 생활속의 수행과 연관된 진지하고도 간절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초기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 위빠사나에서부터 염불선, 동사섭, 간화선, 보살만행으로 이어진 다양한 수행방편에 대한 설법을 들으며 참석자들은 벅찬 환희심을 느끼기도 했다. 몇몇 재가자들은 일부 선원의 느슨해진 수행풍토와 지도점검 체계가 사라진 조계종의 현실에 대한 자기반성이 이어질 때마다 신심이 떨어진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출재가를 막론하고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로 보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개인의 수행도 불교중흥도 이뤄질 수 없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야단법석 회향날인 25일, 도법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전체토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가감 없이 쏟아져 나왔다.

도법 스님은 "오늘날 한국불교는 이론과 실천, 수행과 일상의 삶, 수행과 깨달음, 자리행과 이타행, 개인 수행과 현실 참여, 자기 완성과 사회 완성 등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는 비중도적인 양극단의 수행론으로 인해 수행자들의 회의와 갈등과 방황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이런 이분법적인 불교관이 연기 · 중도적으로 통일되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본래 부처'임을 확신하고 부처행을 하며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 수행풍토에 대한 비판은 자칫 선원이나 각처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몽 스님은 "조선이 망한지 10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지금도 조선시대의 기복불교에 머물러 있거나, 중생을 외면하고 너무 편안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며 "21세기에 적합한 불교로 변화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데 야단법석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법회의 의의를 밝혔다.

김은규 원불교 교무는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자기 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이며 활발발한 비판임을 느꼈기에 불교계의 어떤 광명을 본 것 같다"면서 "이러한 법석이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참가한 김민정씨는 "생활속에서 정직하게 불법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스님들의 법문이 가슴에 와 닿았다. 삶속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단법석을 기획한 향봉 스님은 "불교계의 다양한 지적과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서울 화계사 등에서 개최하는 다음 야단법석을 더욱 알차게 준비해 건전한 수행풍토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불총림 야단법석에 동참한 50여 출 · 재가 수행자들은 깨달음의 길을 찾는 4박5일간의 용맹정진을 통해 저 마다의 고불(古佛)을 만났을 것이다. 하산 하는 길에 백양사(白羊寺)의 네 마리 흰 염소들이 "음메에~ 음메에~" 하며 더욱 우렁찬 울음으로 구도자들을 배웅한다.

글=김성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중앙승가대학교 201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정시모집 '나'군〉 신입생 모집 요강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기본교육기관」입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계 열	학 과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재외국민 등)	비 고
인 문	불 교 학 과	21	2	
	역 경 학 과	21		
사 회	포교사회학과	21		
	사회복지학과	21		
합 계(명)		84	2	86

※ 수시모집 합격자(본교포함)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100%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 (400점)	60% (600점)	100% (1,000점)

- 고교내신성적은 고등학교(검정고시 포함)성적 중 학인이 지정한 우수과목 4과목만 평가함.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본관 1층)
◇ 교부기간 : 2009. 12. 7(월) ~ 2009. 12. 23(수)
◇ 접수기간 : 2009. 12. 18(금) ~ 2009. 12. 23(수) 16:00까지
※ 우편접수는 원서마감(16:00)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단, 토 ·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 부
2) 고교졸업(예정) 증명서 1부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 (2010년 졸업예정자포함)
4) 승적증명서 1부 -타 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5) 수계증명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1부
7) 사진(종단 의제규정에 따른 의제를 수한 반명함판 3×4㎝) 5매 제출(2매 원서 / 3매 별도)
☉사미(니)스님은 의제규정 준수 제출 요망
8) 총무원장 추천서(타 종단 스님에 한함) 1부
※ 타종단 도제의 소속종단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으로 한정함.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2) 전형료 : 60,000원

■ 전형일정
◇ 예비소집 : 2010. 01. 12(화) 12:00
◇ 면접 및 인성검사 : 2010. 01. 12(화) 13:00
◇ 합격자 발표 : 2010. 01. 21(목) 11:00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 기 타
- 신입생은 전원 수행관 입방 생활을 하여야 함. 단, 편입생은 1년을 큰방생활을 할 경우 가능하고, 타 종단 지원자는 수행관 입방을 할 수 없음.

편 입 생 모 집 요 강

①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구분	학 년	학점코드	학 과	모집인원
인문 · 사회계열	3학년 (일반편입)	13	불 교 학 과	00명
		23	역 경 학 과	00명
		33	포교사회학과	00명
		43	사회복지학과	00명
	3학년 (학사편입)	14	전학과	00명

■ 지원자격
- 일반편입 : 2010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비구니 승려로서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나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사편입 : 2010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비구니 승려로서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타 종단의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 지원 가능.

■ 전형방법 및 일정
-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서류(전적대학 성적)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

■ 기 타
-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중 사미(니)는 편입학을 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 (www.sangha.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 ☎(031) 980-7713~5

공 요달하면 지혜 나와서 더불어 사는 세상 옵니다

<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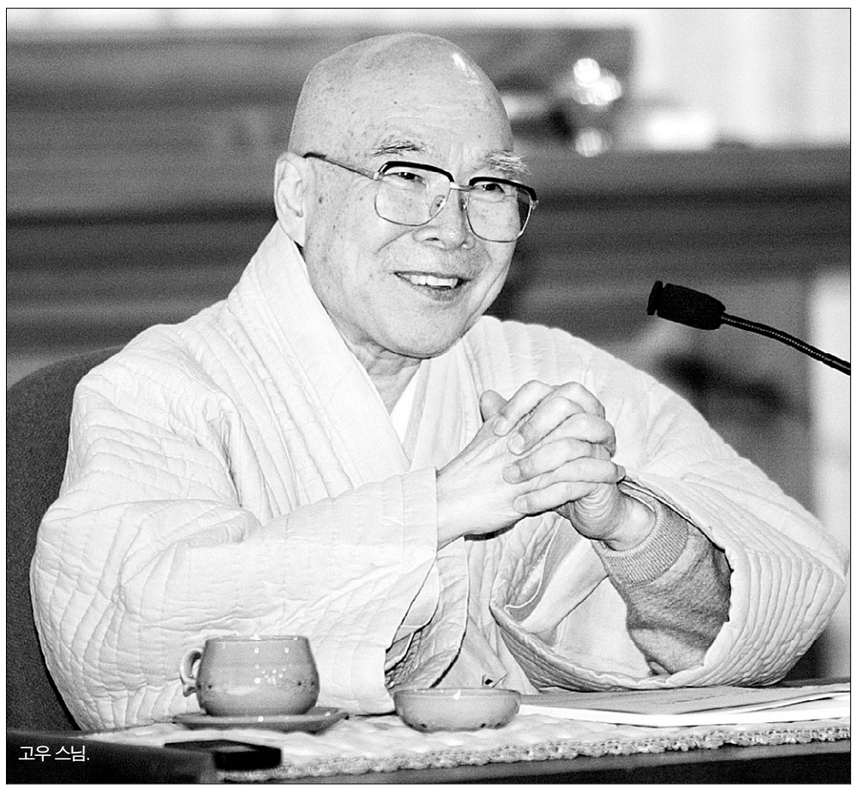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11월 21일, '깨달음의 길을 찾는백양사 야단법석'의 첫 번째 법주로 나선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에 대해 설법했다.

고우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굳이 한 마디로 말하면 '공(空)'이라 할 수 있다"며 "연기된 자성(自性)으로서의 공을 깊이 이해하기만 해도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법문했다. 스님은 "누구나 '본래 부처'로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살면 나와 남이 모두 즐겁고 편안하게 된다"며 수행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실천수행을 당부했다.

다음은 법문과 토론의 요지.


고우 스님.

불교라는 깨달음의 길을 가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운문 선사는 "매일 매일이 좋은 날이다"라고 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속상하거나 즐거워하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나라와 나라, 집단과 집단, 가족과 직장의 구성원간, 개인과 개인간, 또한 스스로의 갈등으로 한 시도 편할 날이 없기에 어떻게 보면 '날마다 좋은 날'은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禪)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한다면 못할 것도 없이, 우리는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다. 모든 분별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선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깨달음의 가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다. 하지만 깨달음은 생활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생활을 떠나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것은 '토끼뿔(토끼의 뿔은 상상으로만 존재하기에 얻을 수 없다)'을 구하는 것과 같다. 생활 하는 마음과 불교를 공부하는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 깨달음에 대한 설법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서, 바뀐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삶이 아주 가벼워지고 행복해진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가르치신 깨달음은 무엇인가. 무엇을 깨달았길래 행복을 느꼈을까. 나는 선방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전통적인 선을 바탕으로 깨달음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중국 당나라 때, 조사선의 대종장인 마조 선사에게 대주 스님이 찾아갔다.

마조 선사가 물었다.

"어디에서 왔느냐?"

"월주(越州) 대운사(大雲寺)에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무엇하러 왔는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불법이 어찌 나한테 있겠는가? 그대는 왜 자기 집에 있는 보배를 돌보지 않고 밖에서 찾고 있는가?"

대주 스님은 무슨 뜻인지 몰라 눈을 껌벅이다가 되물었다.

"제게 보배가 있다니요? 무슨 뜻인지…."

마조 선사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게 묻고 있는 그대가 바로 보배일세. 그대 배 안에 모든 보배가 가득 갖추어져 있어 평생을 써도 바닥이 나지 않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밖에서 찾아다니는가?"

이 말에 대주 선사는 크게 깨달았다.

이러한 문답이 바로 선의 전통이다. 그런데, 대주 스님이 깨달은 보물창고는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누구나 갖고 있다는 소식이 더욱 놀라운 이야기다. 누구나 본래부터 보물창고가 있다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말한다. 깨닫고 안 깨닫고와 상관 없이 모두 '본래 부처'이건만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있지만, 그 많은 경전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대주 선사와 같은 선사들은 그 어렵고 복잡한 경전의 가르침을 한 순간에 '순간깨침(頓悟)'을 통해 체득한 것이다. 선의 전통은 순간깨침을 강조하지만, 이것이 선에만 있는 전통은 아니었다.

부처님 당시도 순간깨침을 한 분이 많다. 교진여를 비롯한 다섯 비구도 2~3주만에 깨달았다. 부처님 당시 순간깨침을 한 분이 적지 않음을 원시불교를 전공한 분들도 인정하고 있다. 선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 당시의 순간깨침 하는 전통을 이어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데 요즘은 순간깨침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런 길이 존재하였기에 가라는 것이다. 화두 참선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방법이다. 최선은 조사스님들이 수행자가 묻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으라고 일깨워주는 것이다. 순간깨침이 흔하지 않다고 해서 그 전통마저 부정하면 안된다.

그러면, 깨달음을 교(敎)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팔만대장경이 포장은 방대해도 내용, 즉 깨달음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다.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든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존재의 원리를 이야기한 공(空)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선에서는 '공'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는 이야기다. 물론 이름을 부정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열반경>은 공을 자성(自性)이라 표현했다. 자성이 있다고 보면 힌두교의 아트만(atman)을 연상할 수 있는데, <열반경>의 자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했다. 자성 역시, 중도 연기된 것으로 공(空)과 다름 아니다.

진리를 체험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공(空)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해도 삶이 달라진다. 지혜가 100% 완성돼 도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50% 이해하면 생각이 50% 바뀌게 되고, 10% 이해하면 10% 바뀌게 된다. 생각이 바뀐 만큼 삶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진다.

그렇다면, 팔만대장경의 핵심인 '공'을 알게 되고 깊이 이해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

첫째, 공을 이해하면 남과 비교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일상속에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다. 나 역시 출가 전에는 그랬다. 나를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했다. 나를 학대하니 폐결핵이란 몹쓸병에 걸려서, 절에 병을 고치기 위해 들어왔다가 출가까지 하게 된 것이다. 공을 해 비교하지 않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인종, 민족, 이데올로기, 종교를 초월할 수 있다.

둘째, 공을 알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된다. 나도 공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비로소 '중놀음'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됐다. 전에는 소극적이고 위축돼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당당해졌다.

셋째, 공을 알면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백양사 방장스님이셨던 서옹 스님이 강조한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이 그것이다.

넷째, 공을 알게 되면 그 무엇과도 소통이 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갈등지수가 제일 높다. 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돈이 년간 약 70조에 달한다고 하니 4대강 사업비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사회갈등으로 인해 소모되는 것이다.

선사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순간깨침'으로 체득해
생활 떠나서 불교 말하는 것은 '토끼뿔' 구하는 것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일방 소통'일 뿐이고, 불교의 소통은 '쌍방 소통'이다.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했다. 산은 물이 될 수 없고 물은 산이 될 수 없지만, '공'이란 본질을 보게 되면 산과 물이 소통 된다. 현상만 갖고는 절대 소통이 안된다. '공'이라는 존재원리에서는 산하고 물이 둘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게 된다.

오온(五蘊)이 공한 것을 믿고 이해하면 내가 있다는 집착을 안할 것이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과 반대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공에 대해 이해하면 지혜가 나와서 각계 각분야에서 갈등과 대립 없이 서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나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면 행복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 길로 간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나와 남이 모두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덕스럽고 당당해지는 길이다. 이것이 누구나 본래부터 가진 '본래 부처'의 길, 깨달음의 길이다.

질의응답

토론자(비구니) : 초기불교의 전통과 선의 전통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

고우 스님 :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선의 전통이 다르다면 안된다. 보자기의 포장만 다를 뿐 내용물은 똑같다. 대부분의 수행은 참구해서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방법이라면, 선은 순간깨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 마저 돈오(頓悟)의 전통을 잃어버리면 점수(漸修)의 방법만 남을 것이다. <아함경>에 보면 금방 결혼한 새댁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 깨닫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한 순간깨침의 전통이 원시불교에도 있었는데, 선이 돈오의 전통을 어렵게나마 귀하게 이어온 것이다. "어떤 것이 부처인가?"라는 질문에, 선사가 "정전백수자(뜰앞의 잣나무)"라는 답을 하는 것은 말길과 생각의 길을 끊어주는 선사의 독특한 지도법이다. 깨달음은 주객(주관과 객관)이 무너진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이 철칙이다. 은산철벽(銀山鐵壁)이란 주객이 무너진 자리를 상징한다.

토론자(우바새) : "오온이 모두 공하다(五蘊 皆空)"고 하는 법문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고우 스님 :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연기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 이 세상 어떤 물건이든 독립된 물체가 없다. 지, 수, 화, 풍으로 구성된 물질이든 60조의 세포로 구성된 몸이든 모두 연기로 이뤄진 것이다. 나무, 흙, 돌로 구성된 집을 해체하면 집은 사라지듯이, 집은 본래 공한 것이다.

향봉 스님 : 팔만대장경을 공으로 요약하고, 오온이 공한 것을 다시 연기된 자성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공은 동시에 무아(無我)라는 의미도 내포한다. 수시로 변화하는 오온은 공한 것이기에 집착할 것이 없고, 집착이 끊어지면 편안해진다. '무아'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에 공통되는 가르침이다.

고우 스님 : 상응부 경전에 보면, 오온개공을 설명하면서 "색(色)도 무아요, 수상행식도 무아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반야심경>은 초기불교의 무아 사상을 잘 계승하고 있다.

도법 스님 : 노무현 前 대통령이 서거한 사건과 용산 참사가 벌어졌을 때, 불교계는 노무현 前 대통령에게만 지극한 관심을 보이고 용산 참사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불교가 불평등한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보는 것은 아닌가.

고우 스님 : 불교계가 사회적인 인기에 영합해서 그렇게 반응했다면 그것은 밖으로 추구한 것으로 반성할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도 외적인 추구와 함께 공과 평상심(平常心)과 같은 내면의 가치를 알고 실천할 수 있었다면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글=김성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기2553(2009)년 포교결집대회 기록물 공모전

귀의 삼보합니다.

불기2553(2009)년 포교결집대회가 지난 11월 14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1만2천여 사부대중의 동참과 성원에 힘입어 원만히 봉행되었습니다. 이에 동참해주신 사부대중에게 지면을 빌어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본 대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포교결집대회 기록물 공모전**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공 모 명 : 불기2553(2009) 포교결집대회 기록물 공모전

2. 참여대상 : 포교결집대회 참가 대중

3. 공모 기록물
1) 사진, 동영상, UCC 등 대회 참가과정 및 대회 현장의 모든 기록물
2) 참가후기 : 원고지 10매 내외 분량의 원고 파일 또는 출력물
3) 제출 기록물은 1인당 총 3편 이하로 제한합니다.

4. 접수기간 : 2009년 11월 30일부터 ~ 12월 11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접수방법
1) 참가신청서 (별첨양식)
2) 인터넷 : 웹하드 (www.webhard.co.kr)
ID : pogyowon1 비밀번호 : 1111
〈GUEST 폴더 → 올리기전용 → 교결집대회 기록물 공모전 폴더〉에 제출
3) 우편 :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공모전 담당자 (우 110-170)
4) 문의 전화 : 02-2011-1900

6. 시상내역
□ 대 상 : 1편 (50만원) □ 우수상 : 3편 (각 20만원)
□ 참가상 : 다수 (문화상품권)

7. 입상자 발표 : 불기2553(2009)년 12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8. 유의사항
- 참가신청서 양식은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모전 공지사항 또는 웹하드 내리기전용 폴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웹하드 이용 시 본인 이름의 폴더를 만든 후 신청서와 함께 기록물을 올립니다.
- 우편물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함께 동봉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 기록물을 제출하여 입상한 후 필요할 경우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기록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출판 및 저작권은 포교원에 있습니다.

불기2553(2009)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 총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하수체에 훈습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렴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나와 함께 모든 이를 깨닫게 하는 진리가 참 가르침

대승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

시몽 스님(백양사 주지)

11월 21일, 백양사 야단법석이 문을 연 날. 고우 스님의 법문에 이어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이 '대승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주제로 설법에 나섰다.

시몽 스님은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체 상대적인 것이 끊어진 '절대현재'의 자리"라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동시에 남을 구원하는 진리, 자기 자신이 깨닫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다 깨닫게 하는 진리가 참으로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설했다.

다음은 법문과 토론 요지.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내 것을 남에게 베풀어주는 마음과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보시하는 마음은 저 사람과 나, 마침내는 우주와 내가 한 몸이라는 대자대비심이 본래부터 있기 때문이다.

보살의 수행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시에 힘써야 한다. 보살의 수행은 보시가 근본이기 때문이다. 보시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보살행은 저절로 수반되는 일이다. 보시의 근본이 되는 것은 남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인데, 진실로 남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선 자신의 수행을 쌓아야 한다. 자신의 지혜가 모자라면 남을 구할 수 없다. 보시에는 자비심이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게 된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게을러지기 일쑤다. 덥다고 게으름을 피우고 춥다고 게으름을 피운다. 진실로 세상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 그래서 육바라밀이라는 보살행을 완전히 실천하려고 그 근본 되는 보시를 가르쳤던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코끼리나 말도 아까워하지 않고 국토나 보물 따위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처자나 권속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과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보시를 행하셔서 지혜를 기르고 덕을 쌓았던 것이다.

자기 혼자만의 괴로움을 없애고 번뇌를 없애는 진리는 그다지 거룩한 것이 못된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동시에 남을 구원하는 진리, 자기 자신이 깨닫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다 깨닫게 하는 진리가 참으로 거룩한 가르침이다.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만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만 해서는 안된다. 몸으로써 실제 행해야 한다. 이른 바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실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 듣고 생각하고 행함으로써 지혜가 얻어진다. 이것을 문사수 삼혜라고 한다. 교법을 들거나 책으로 읽거나 한 다음에는 깊이 생각해 보고 실제로 행해 보아 얼마간 알았으면 다시 한 번 듣거나 읽거나 하고 다시 깊이 생각하고 다시 실행해야 한다. 부처님 교법은 그 뜻이 매우 깊고 높고 넓고 넓어서 몇 번이고 되풀이 해 생각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체 상대적인 것이 끊어진 '절대현재'의 자리이다.

옛 선사들은 말하기 전에 눈썹 말을 전하고 묵연히 눈으로 미소를 짓곤 했다. 눈이 마주치는 곳에 도가 있다고 해서 목격도존(目擊道存)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가만히 참선하고 있는 것이 극락의 소식이요 안락처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참하고 성내는 모든 번뇌 망상을 다 쉬고 모든 생각이 불으려고 해도 불을 수 없는 그 경지에 들어가야 한다.

마음이 항상 편해서 몸은 분주하더라도 마음은 태연해서 담연히 부동해야 안락처에 들어간다. 지극히 고요한데 들어가면 몸도 마음도 자연히 편안해진다. 그런데 번뇌 망상의 도적놈이 들어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 하여 자기 자신도 어찌하지 못한다. 그런 때일수록 마음을 고요한 고요한 곳에 머물러 두도록 애쓰게 되면 자연히 익숙하게 되어져서 고요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같이 되면 마음과 몸이 하늘과 달 보다 더 밝아지고 고요한 바닷물 보다 더 맑아지는 경지가 들어온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일이 즐겁고 편안하다. 공부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의 낙처(落處)를 알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천진하고 깨끗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심과 팔만의 번뇌를 일으켜서 순금에 잡철이 붙듯이 몹쓸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있다.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교법을 믿어서 마음도 올바르게 하고 그 마음속에서 아무 잡된 생각이 없다면 잡철이 순금이 되고 보검이 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다. 바른 뜻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데 어찌 괴로우며 이 어찌 기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보살이 행하는 곳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건지는 사람은 완전하게 사물을 보는 판단력을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욕된 것을 참는 곳에 머물러서 부드럽고 화하고 착하고 따뜻한 가슴을 지니게 된다.

수행자는 부동의 경지에서 자유자재 해야 한다.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놀라지도 말아야 한다. 산이나 풀밭을 가다가 꿩이나 산짐승이 푸드득 소리를 내더라도 마음을 다 잡아 공부를 지어가면 저와 같이 푸드득할 때도 마음이 부동이 된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 자리는 마음을 두어서 구하지도 못하고 무심으로도 얻지 못한다. 무심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망심이 없는 바로 그것이다. 말로써 짓지도 못하고 문자로 이 자리를 어떻다고 형용할 수도 없는 적묵(寂默)으로도 통할 수 없는 그 마침의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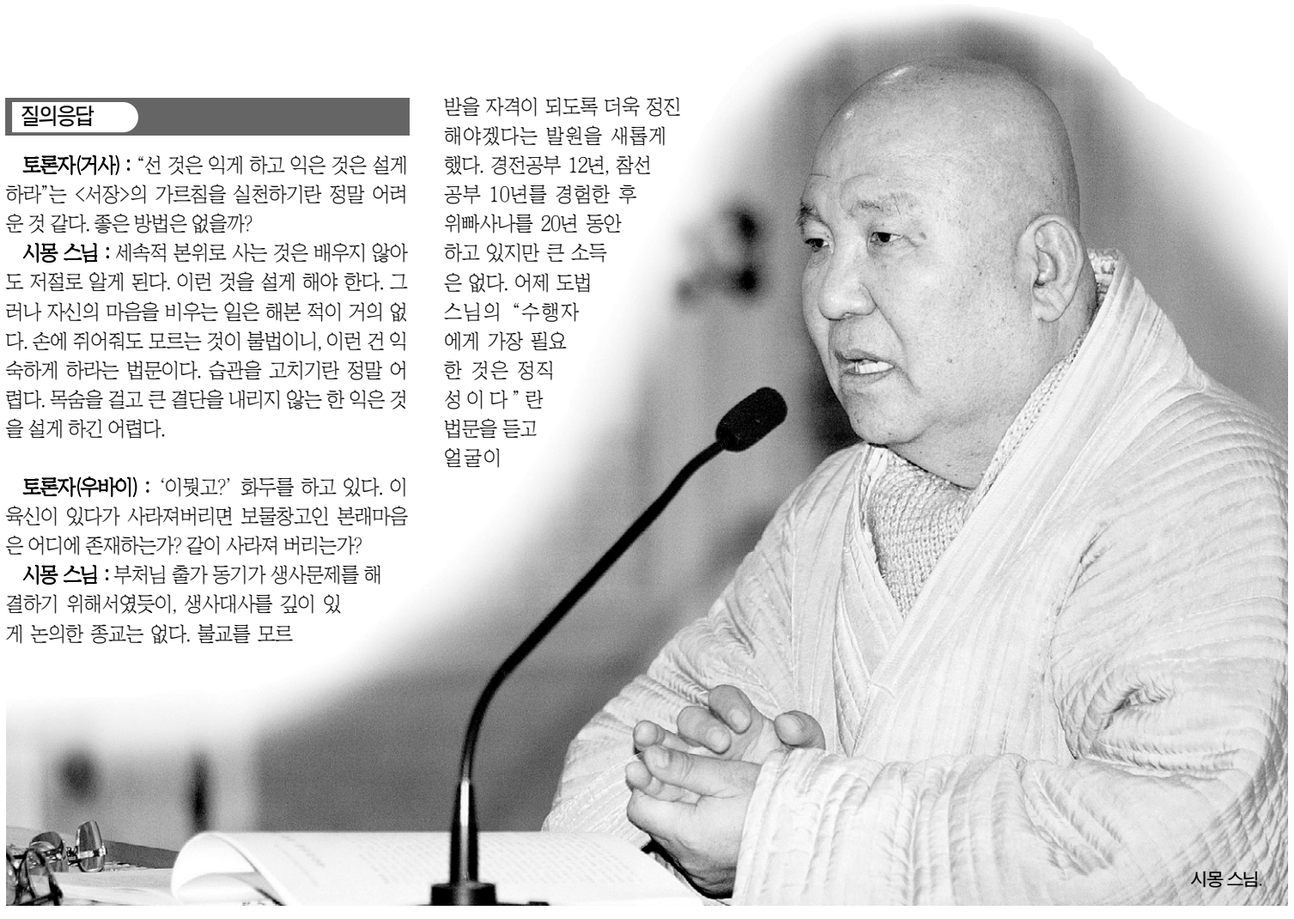
질의응답

토론자(거사) : "선 것은 익게 하고 익은 것은 설게 하라"는 <서장>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좋은 방법은 없을까?

시몽 스님 : 세속적 본위로 사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된다. 이런 것을 설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일은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것이 불법이니, 이런 건 익숙하게 하라는 법문이다. 습관을 고치기란 정말 어렵다. 목숨을 걸고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익은 것을 설게 하긴 어렵다.

토론자(우바이) : '이뭣고?' 화두를 하고 있다. 이 육신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보물창고인 본래마음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같이 사라져 버리는가?

시몽 스님 : 부처님 출가 동기가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듯이, 생사대사를 깊이 있게 논의한 종교는 없다. 불교를 모르는 범부들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다는 '일생일사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 기독교인은 어머니 뱃속과 천국에 태어난다는 '2생2사관'이다, 그런데 불교는 '다생다사관'이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생사관을 갖는다.


시몽 스님.

우주 · 내가 한 몸이라는 대자대비심 동물과 달라

진실로 세상 구하려 한다면 어려움도 척척 이겨내

향봉 스님 :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인불(人佛)사상을 말하는 <법화경>에서 상불경보살은 모든 사람을 부처로 공경한다. 승만보살은 <승만경>에서, 유마거사는 <유마경>에서 법문을 설한다. 이와 같이 거사와 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 법문을 설하는데, 80세의 비구니가 20세의 비구에게 절하는 비구니 팔경계법은 시대에 맞지 않고 불평등한 계율이다.

토론자(비구니) : 비구니스님 가운데는 비구를 원수 보듯 하는 분들이 있다. 공부 차원에서는 비구, 비구니가 따로 없지만 같이 공동체로 사는 한에는 팔경계가 있어야 조화롭게 살 수 있다. 미얀마에서 거사 분에게 삼배를 받고 얼굴이 후끈 달아올라서, 절뜨끈 했다. 뭔가 수행의 체험을 얻으려는 조급증도 놓고 가장 정직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 어른 비구니가 젊은 비구에게 절하는 것도 상(相)을 비우는 공부를 한다는 점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토론자(우바새) : 선종의 28조인 달마 대사의 스승인 27조 반야다라 존자가 여성이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중국의 유마거사라 불리는 방거사의 딸 영조는 위대한 선지식이었듯이 반야다라 존자가 여성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토론자(우바이) : 고등학생 시절,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을 듣고 경전을 안 봐야 된다고 생각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풍토도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마명 보살의 <대승기신론>을 본 후 마음의 구조를 알게 됐고, <금강경>을 본 후 '즉비(卽非)'에 큰 감동을 받았다. 언어와 문자를 강조하는 시대에 서양인들은 로고스와 담론을 통해 마음의 해탈을 얻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불립문자'의 잘못된 전통이 진리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아닌지. 경전을 통한 공부로는 도(道)를 통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시몽 스님 : 덕산 선사는 깨닫고 난 후 <금강경> 소초를 불태웠는데, 이런 경우는 경전에 쓰여 있지 않는 법(法)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언어와 생각을 떠난 자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불립문자를 말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체험을 할 때까지 경을 볼 필요가 있다.

도법 스님 : 모든 부처님 법은 병을 치유하는 약에 해당한다(응병여약). 팔만사천 번뇌가 있기에 팔만사천 법문이 나온 것이다. 존재의 실상을 직접 깨달은 부처님과 제자들은 불교를 대화와 실천의 종교로 이끌어나갔다. 시대가 흘러 설법이 많아지고 존재의 실상에 대한 언설을 갖고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게 됐다. 그러나 또 다시 시대가 흘러 후대에는 언설의 절대화라는 함정에 빠져 언설이 병이 됐다. 오늘날은 '불립문자'를 절대화한 중독을 치유할 때다. 다시 언설의 처방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향봉 스님 : 오조법연 선사는 '불립문자'라는 말 대신 '불착문자(不着文字)' 즉, 언어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경전과 어록을 공부할 것을 제시했다. 불립문자에 대한 오해를 풀고 불착문자의 본뜻을 되살려 정견을 확립하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글=김성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청화스님이 전하는 희망과 행복찾기



312쪽 값 12,000원

스님은 책에서 특별히 가르치거나 훈계하려 하지 않는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무리를 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인생에 대한 바른 안목을 얻고, 인격적으로 허물없는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 연합뉴스

이 책은 때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로, 때로는 시인의 감성과 출가 수행자의 모습으로 변해 성찰과 행복, 각성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스님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 불교방송

힘든 세상이지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행복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교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인간의 삶 쪽에서도 불교를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 현대불교

청 화 스 님 산 문 집

향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

개미 T. 02-704-2546, F. 02-714-2365

부처님이 말씀하신 궁극의 행복은 열반과 깨달음

초기불교를 통한 깨달음의 길
각묵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교수사)

백양사 야단법석 이틀째인 11월 22일 오전. 각묵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교수사)은 '초기불교를 통한 깨달음의 길'을 주제로 열정적인 법문을 펼쳤다.

각묵 스님은 "초기불전에서 설하는 깨달음의 핵심 '해체해서 보기'"라고 주장했다. 각묵 스님은 "초기불전에서 나타나는 수행방법의 핵심도 '나'라는 존재를 몸, 느낌, 마음, 심리현상들(신, 수, 심, 법)로 해체해서 그 중의 하나에 집중(삼매, 사마타)하거나 그 중의 하나의 무상, 고, 무아를 해체해서 보는 것(통찰, 위빠사나)"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설법과 질의 응답 요지.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 즉,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초기불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행복을 말씀하셨다. 그것을 간추려 보면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구경의 행복이 된다. 이 가운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행복은 열반이요 깨달음이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깨달음, 해탈, 열반, 성불은 세상의 어떤 가치체계나 신념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교만이 제시하는 고귀한 가르침이다.

궁극적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인 존재'(名言)를 해체해서 법으로 환원해서 보아야 하는데, 초기불전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온(5蘊), 처(12處), 계(18界)의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에 대한 철견, 사성제의 통찰, 팔정도의 완성, 12연기의 역관(逆觀) 등으로 말씀하셨다. 초기불전에서는 이러한 행복을 바르게 추구하는 방법은 37보리분법이며, 이것은 팔정도로 귀결이 된다.

이처럼 초기불교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열반의 실현이요 깨달음의 성취이다. 이 둘은 "염오, 이욕,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염오경)이라는 문맥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열반야말로 불교의 진리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 가운데 세 번째인 저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苦滅聖諦)'이며 사성제를 철견하는 것이 바른 깨달음이다. 따라서 열반은 궁극적 행복이요, 그 궁극적 행복은 바로 괴로움이 소멸된 성스러운 경지요, 이러한 것을 철견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러면 깨달음은 어떻게 해서 실현되는가? 깨달음은 당연히 수행을 통해서 실현된다. 초기불전의 도처에서 나타나는 수행은 팔정도를 근간으로 하는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37보리분법, 37조도품)'로 정리된다. 그러나 팔정도를 위시한 37보리분법만 닦으면 깨달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나와 세상과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緣起)와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내용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온(五蘊)'이라 말씀하셨다. '나'라는 존재는 물질(몸뚱이, 色), 느낌(受), 인식(想), 심리현상들(行), 알음알이(識)의 다섯 가지 무더기(蘊)의 적집일 뿐이라는 것이다.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2처로 말씀하셨다. 나와 세상은 조건발생이요, 여러 조건(緣)들이 얽히고 설켜 많은 종류의 괴로움을 일으킨다. 이러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구명하여 그 괴로움을 없애야 저 깨달음과 해탈, 열반은 실현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나와 세상에서 진행되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철저하게 밝히시는데, 이것이 바로 연기의 가르침이다. 나와 세상과 여기에 존재하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에 대한 연기적 관찰은 궁극적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체계화 되는데, 그것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라고 한다. 이처럼 교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37보리분법의 수행이 있어야 깨달음은 실현되는 것이다. <상윳따 니까야>를 위시한 니까야에서는 깨달음의 실현이 ① 무상, 고, 무아의 통찰과 염오-이욕-해탈-구경해탈지를 통해서 ② 연기의 이욕(탐욕의 빛바램)-소멸을 통해서 ③ 사성제의 통찰을 통해서 ④팔정도의 실현을 통해서 ⑤37보리분법을 닦아서 실현된다고 밝히고 있다.

초기불전에서는 불교의 인간관인 오온과 세계관인 12처의 무상, 고, 무아를 통한 염오-이욕-해탈-구경해탈지를 설하고 있고, 연기관인 12연기의 이욕-소멸도 역설하고 있으며, 진리관인 사성제를 관통할 것도 역설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수행실천관이요 중도인 팔정도와 37보리분법의 실천을 통한 깨달음의 실현도 강조하고 있다.

초기불전에서 설하는 깨달음의 핵심을 한 마디로 말해보라면 주저 없이 '해체해서 보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부처님 제자인 왕기사 존자는 <상윳따 니까야>에서 부처님을 "부분들을 해체해서 설하시는 분"이라고 찬탄하고 있다. 그리고 주석서는 "마음챙김의 확립 등의 부분으로 법을 해체하는 것이라는 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분석과 해체의 궁극적 지향점은 개념의 해체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명칭이나 말 즉, 개념에 속게 되면 죽음의 굴레에 매이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의 도처에서 강조하신다.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일체 존재는 12처로 해석해서 보고, 세계는 18계로 해체해서 보고, 생사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 온, 처, 계, 연 등으로 설해지는 모든 존재들의 무상, 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무상이나 고, 무아를 통찰함으로 해서 염오하고 탐욕이 빛바래고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것이 초기경전 도처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념적 존재나 명칭, 말에 속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단지 오온이고 12처이고 18계이고 조건발생(연기)일 뿐임에 사무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 처, 계, 연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디가 니까야> <대념처경> 등 초기불전에서 나타나는 수행방법의 핵심도 '나'라는 존재를 몸, 느낌, 마음, 심리현상들(신, 수, 심, 법)로 해체해서 그 중의 하나에 집중(삼매, 사마타)하거나 그 중의 하나의 무상, 고, 무아를 해체해서 보는 것(통찰, 위빠사나)이다.


각묵 스님.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 즉 '이고득락'이다
모든 존재 온·처·계·연으로 해체하는 것이 수행

나와 존재와 세상과 생사문제를 온, 처, 계, 연으로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염오-이욕-소멸을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어느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다.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는다.

질의응답

토론자(사미) :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색수상행식(오온)이라고 답하셨다. 느낌이 반복되어 기억을 만들고 개념을 형성해서 '나'라는 것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한다. 초기불교에서는 '기억'을 어떻게 보는가.

각묵 스님 : 초기불교에서는 기억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 기억도 행위의 일종이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하나의 심리현상으로 환원할 수 있다. 구사론에서는 영(靈)을 '기억'으로 해석하지만, 초기불교에서는 '마음챙김(사띠)'으로 번역한다. 기억 보다는 현재의 마음챙김이 중요하다.

토론자(우바새) : 윤회는 불교 고유의 교리인가, 인도 전통에서 유래한 것인가.

각묵 스님 : 삼사라(윤회)는 인도의 6파철학 등 모든 종교나 사상에서도 인정한다. 다만 윤회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힌두교는 '자아의 윤회'를, 불교는 '무아의 윤회'를 주장한다. 그런데, '무아'인데 왜 존재하는 것 처럼 보이는가. 불교에서는 윤회를 오온이 '찰나생 찰나멸' 하며 상속(거듭되며 흘러감)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금생의 마지막 마음, 즉 '죽음의 마음(死心)'이 다음 생의 최초 마음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이른바 재생연결식이 여러 조건으로 인해 새로운 생의 흐름을 받아 이어지는 것이다. 물론 아라한이 되어 반열반(般涅槃)에 들면, 윤회의 흐름이 끊어지게 된다. 부처님은 '반열반'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다.

토론자(사미) : 선불교에서는 견성성불(見性成佛)해야 깨닫는다고 말한다. 초기불교에서는 '견성'을 어떻게 보는가.

각묵 스님 : 견성은 무아성(無我性), 무상성(無常性), 고성(苦性)을 깨닫는 것이라 이해하고 싶다. 즉 무상, 고, 무아란 '삼법인'의 근본성질을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토론자(비구) : 선종과 화엄, 법화에서 말하는 자성청정심은 연생(緣生) 연멸(緣滅)이 다 알아진 상태라고 본다. 이를 일러 굳이 '일심'이니 '자성청정심'이라 한 것이다. 성품을 본다는 것은 연기법과 삼법인(무상, 고, 무아)을 깨달은 상태로 초기불교의 깨달음과 차별이 없다.

토론자(우바새) : 초기불교에서는 정토 삼부경에 나오는 극락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각묵 스님 : 초기경에도 천상에 대한 법문이 많이 나온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 각각 천상이 있다고 본다. 욕계 천상은 보시와 지계를 잘 지키면 태어날 수 있다. 색계 천상은 공덕을 쌓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삼매(선정)를 닦아야 갈 수 있다. 특히 정거천은 삼매를 닦아 불환과(不還果: 아나함과) 이상을 얻은 성자만이 태어날 수 있다. 극락세계에 가려면 죽기 전에 염불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력이 대단해야 하기 때문에 색계 4선천, 또는 정거천을 극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토론자(우바이) : 화두 참선 중인 불자다. 8정도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각묵 스님 : 정견(바른 견해), 정사유(바른 사유), 정어(바른 말), 정업(바른 업), 정명(바른 직업), 정정진(바른 정진), 정념(바른 마음챙김), 정정(바른 삼매) 가운데 정념이 본격적인 수행에 해당된다. 정념은 수행의 대상에 대해 바른 마음챙김을 함으로써 선법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수행의 대상은 신수심법(身受心法)의 사념처이든, 화두이든, 염불이든 무관하다. 화두 참구는 화두에 대한 마음챙김으로 볼 수 있다. 화두 챙김을 하되 바른 견해를 갖추고 팔정도를 함께 닦아야 함은 물론이다. 화두 참구만 바르게 하면 팔정도는 저절로 닦게 된다.

글=김성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分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다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생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 수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라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 수 과 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 수 일 시**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세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buddhanews.com

‘상놀음’ 하지 말고 머무는 바 없이 정진하라

<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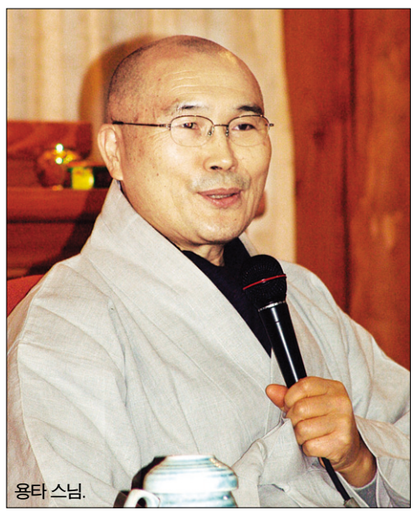
동사섭을 통한 깨달음의 길

용타 스님(사단법인 동사섭 이사장)

11월 22일, 백양사 야단법석의 네 번째 법주로 나선 (사)동사섭 이사장 용타 스님은 ‘동사섭을 통한 깨달음의 길’이란 주제로 설법에 나섰다.

용타 스님은 “동사섭이라는 수련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궁극의 깨달음인 돈망(頓忘)은 필자가 소속한 불교 문중의 주행법(主行法)인 염불선(念佛禪)과 같다”고 밝혔다. 용타 스님은 “이번 야단법석 세미나(연구 집회)에서는 동사섭이라는, 30여년 역사 속에서 궁극의 과정으로 구축된 돈망 내지 돈망파지(頓忘把持: 염불선의 다른 이름)를 드러내기로 하겠다”며, 동사섭수행의 구체적인 방편을 소개했다.

다음은 법문과 질의응답 요지.



용타 스님.



동사섭 수행의 ‘지인(至人) 3박자’ 프로그램 중 온전히 웃기로 엔돌핀을 만들어 보는 야단법석 동참자들.

지금 여기 그냥 존재하되 일체 걸림 없어야
고통 속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

부처님은 보리수하에서 연기의 이치를 깨달으시고 두 가지 큰 결론을 얻으셨다. 자아라는 실체가 본래 없음을 인식하시고 자아에 집착함으로써 빚어졌던 생로병사에 대한 고뇌를 해탈하신 것이 그 하나요, 우주에 존재하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이루면서 얽혀져 있는 한 유기적인 존재임을 깨달으심으로써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을 구현하신 것이 다른 하나라는 것이다. 석존의 해탈과 동체대비가 바로 연기의 이치를 파악하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교인의 한 의식과정이라는 것, 사색을 통해서 연기(緣起)의 이치를 파악하셨다는 것 등을 거듭 강조한다. 사색, 그것은 사유요, 이 사색을 보다 바람직하게 잘하는 것이 정사유(正思惟)이다.

보리수하에서 석존은 정사유(正思惟)를 통해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무아라는 결론을 얻음으로써 자아의 노병사 불안(老病死不安)으로부터 벗어났으며, 녹야원에서 제자들에게 연기의 이치를 설법하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연기의 이치를 이해하여 자아의 공성(空性, 無我性)을 파지함으로써 석존과 같이 노병사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탈을 하게 된 것이다.

동사섭수련에서 말하는 ‘돈망(頓忘)’이란 아공법공(我空法空)을 전제한 ‘옴나’이다. ‘옴나’ 개념은 ‘깨어있음’ 정도로 수긍한다면 좋겠다. 즉 그냥 깨어있는 것이요, 깨어있되 아공(我空)이요 법공(法空)이니 안팎으로 마음을 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다.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의 심리 과정 정도로 이해해도 좋다. 지금, 여기 그냥 존재하되(그냥 깨어 있되) 일체에 걸림이 없음이요, 살되 걸림 없이 사는 것이다. 안팎으로 걸림이 없으면서 그냥 이대로 깨어있되, 이대로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무한으로, 구경(究竟)으로 수긍되는 심리과정을 의미한다.

세인이 말하는 세계란 자기 주관성에 의해 현전하는(나타나는) 표상물(表象物)이다. 그 표상물을 실체시(實體視)하고, 이를 ‘분별-시비-집착’하면서 고통과 싸움을 빚어낸다. 자기 주관성(뮐터)으로 세계를 현전시켜놓고 시비집착하면서 고통과 전쟁을 빚으며 살아야겠는가, 아니면 주관성이 끼지 않는 세계를 만나면서 극락과 평화를 살아야겠는가?

돈망이란 바로 주관성이 끼지 않는 의식과 세계를 의미한다. 이 때 ‘세계’라는 말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법유식(萬法唯識)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돈망이라는 의식 차원을 향해 나아가보자. 아래의 접근법들은 동사섭수련의 고급과정에서 돈망명상을 안내할 때 쓰는 방편이다.

#불사선 불사악(不思善不思惡)

중국 선불교의 거장, 육조 혜능이 오조 홍인으로부터 법(法)의 인가를 받고 남하하고 있었다. 홍인의 제자이자 혜능의 사형인 혜명 스님께서 남하하고 있는 혜능을 붙들고 법을 청한다. 혜능 대사는 “선(善)도 악(惡)도 생각하지 않을 때(不思善不思惡) 귀하의 본래면목(본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혜명 스님은 깨닫는다. 어떠한가? 이 글을 접하시는 분이 혜명 스님이시다. 선도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얻어지는 것이 있는가? 준비된 자는 이 질문 하나로 화룡점정(畵龍點睛)을 할 수 있다.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바라보기(槪念以前)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보는 것이 더 제대로일까,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보는 것이 더 제대로일까? 물론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보는 세상이 더 제대로일 것임은 당연하다. 지금 바로 인위(人爲)의 개념놀음이 없는 상태로 바라보라. 천하가 자연(自然, 스스로 그러함)이리라. 어떤가 이때 당신의 의식은 어떤 상태인가?

#그냥 존재함

아공(我空)인지라 안으로 집착할 것이 없고, 법공(法空)인지라 밖으로 집착할 것이 없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모든 유위법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번개와 같다)’이다. 안팎으로 잡히는 것, 분별시비할 바, 집착할 바 없으니 무장무애(無障無礙)한 순수의식(깨어있는 의식을 느낌)이 한계 없는 무한 우주에 두루 한다.

자, 어떠한가? 이것을 일러 돈망이라고 한다. 수긍되는 바가 있는가?

#내려놓음(放下)

손을 본다. 이 때 나의 마음은 손이다. 손을 치운다. 손이 사라진 자리에 허공이 드러난다.

이 때 내 마음은 허공이다. 허공을 치워본다. 이 때 오직 ‘그것’만이 의식된다.

‘그것’은 순수한 의식이요, 진정 스스로의 마음(自性)이요, 세상 자체이다. ‘그것’을 표기함에 ‘옴’ ‘순수의식’ ‘자성’ 등이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은 이렇게 명료하게 안내해 주어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 또 잡았다 해도 이 좋은 ‘그것’은 견지 되기가 어렵다. 과거에 ‘그것’아닌 상태로 살아온 삶의 습관성 때문이다. 이 습관성을 업장이라고 한다. 이 업장의 장애를 엷애기 위해서는 아공법공(我空法空)이 좋은 도구이다. ‘그것’은 아공법공의 경호를 받음으로써 무장무애한 무한으로 열려 체험된다. 이때의 ‘그것’은 돈망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옴’은 돈망과 질적으로 동일하나 큰 득력을 하지 못한 차원에서는 양적인 차이에 있어 돈망을 따를 수 없다.

#무한 만트라로 정혜균지

돈망을 파지한 분은 그 돈망이 삶의 기초가 되고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 돈망을 파지했다고는 하나 과거에 무수히 개념화를 비롯해서 분별-시비-집착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우리의 의식에 대단한 에너지로 깊이 뿌리하고 있을 터이다. 얼음이 물인 줄은 알지만 아직 물로 잘 쓰지는 못하니 열을 가하여 액화하여야 하듯 비돈망의 의식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딱딱한 의식을 부드러운 돈망 의식으로 보다 온전히 길들이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그 길은 돈망을 반복 반추하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마지막 길이 ‘무한 만트라’이다. 모든 규정성을 넘어선 것, 무유정법(無有定法)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 했던가. 그 돈망의, 그 무한의 다른 이름 하나로, 성스러운 다른 이름 하나로 ‘아미타불’이라하면 어떨까? 만트라는 주문(呪文)이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식으로 염(念)하는 것이다. 돈망이라는 의식차원을 깨달은 자가 그 의식 차원을 관(觀)하면서 염(念)의 차원에서 ‘아미타불’ 만트라를 외면서 염념상속(念念相續)한다면, 염과 관이 상응하면서 정혜균지(定慧均持)의 무한의 의식 경지가 깊어진다고 상상할 때 어떤 공덕이 있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가!

질의응답

토론자(우바이) : 여기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분이 동참했지만 불교는 기독교인에 비해 관심이 없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 때도 신부님, 목사님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스님은 본 적이 없다. 불교가 대중화되어 생활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용타 스님 : 미국 미네소타주 삼보사 주지로 있을 때 미국에 유학 온 신도 분 아들이 공항에 마중나온 교회 사람들의 친절한 환영에 감격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을 본 적이 있다. 불교도 그들처럼 포교에 적극성을 가지면 좋겠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기에, 불교도 다양한 측면에서 커버할 수 있는 종교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법정 스님과 도법 스님처럼 세상을 향해 바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한국불교의 답답한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도법 스님 : 한국불교는 백지 위에 깨달음이니, 부처니, 참선이니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깨달음병, 부처병에 걸려 굶주리는 이웃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은 아닌가. 간디는 “배고픈 이에게는 밥이 하느님이다”라고 했다.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보고 밥을 주듯이, 삶의 현장속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는가?

용타 스님 : 상아탑 속에 머물지 않고 현장 속에서 걱정과 호소는 더욱 활구적(活句的)으로 다가온다. 법륜 스님 처럼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보살행은 감동적인 보살행이다. 고통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가 깨달음의 길이라는 데 동감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손이 갈 때도, ‘응무소주’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때가 깨달음의 실천이 아닐까.

토론자(비구) : 무루(無漏)의 법을 추구하되, 유루(有漏)의 세간을 떠나서는 안된다. 무루의 수행이 무르익으면 유루의 세간을 감싸안아야 한다. 하지만 무루의 법을 한결 같이 추구하기도 어렵고, 무루의 공부를 하면서 중생에게 다가가는 것도 어려운 것 같다.

용타 스님 : 무루의 법이라도 정말 제대로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서 삶의 현장을 외면한다면 문제다. 무루의 길이든, 유루의 길이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분법적인 흑백논리 보다는 저마다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과감히 길을 바꾸는 결단도 필요하다. 산간에서 참으로 수행에만 전념하는 스님들도 나와야 하고, 사회참여를 열심히 해서 보살행을 닦는 분들도 나와야 한다. 어느 쪽이든 상(相) 놀음 하지 않고 머무는 바 없이 정진한다면 모두 깨달음의 길이라 생각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14-1 일본산 후리지아향(단)



13-1 일본 영원향(소바라)



13-2 일본 영원향(소바라)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2-1 야광용 핑크 70ℓ×35㎝ / 2-2 밀납초 반야심경 70ℓ×35㎝
2-3 쑥향초·야광용 70ℓ×35㎝ / 2-4 봉황색 전사지 70ℓ×35㎝



7-1 P.C 컵 밀납초 받침대 / 7-2 P.C 컵 밀납초 연소시간 약 8시간
7-3 바람막초



5-1 웨딩초 육각초 70ℓ×45㎝



15-1 액체 파라핀 18ℓ

“본래부처임을 믿고 지금 당장 부처행 하라”

생명평화운동과 대승불교 수행론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11월 23일과 25일, 여섯 시간에 걸쳐 야단법석 법주로 나선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운동과 대승불교 수행론’을 주제로 법문했다.

도법 스님은 “오늘의 한국불교 현실은 비연기적 사고인 실체론적 불교관과 이분법적 실천론인 비중도적 수행론에 빠져 매우 혼란스럽다”고 진단했다. 도법 스님은 “이론과 실천, 수행과 일상의 삶, 수행과 깨달음, 자리행과 이타행, 개인 수행과 현실 참여, 자기 완성과 사회 완성 등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는 비중도적인 양극단의 수행론으로 인해 수행자들의 회의와 갈등과 방황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이런 이분법적인 불교관이 연기 · 중도적으로 통일되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본래부처와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자신의 온 존재를 다 바쳐 본래부처로 사는 것이 참 보살행이요 행역선좌역선(行亦禪坐亦禪) 하는 참 정진”이라며, ‘본래 부처’임을 믿고 부처행을 하며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법문과 토론의 요지.

불교란 고통에 찬 삶을 살아야 하는 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 생명은 어떤 존재인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류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화두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그 해답으로 초기경전에서는 ‘유아독존’, 대승경전에서는 ‘본래부처’, 선가에선 ‘본래면목’이라고 했다.

잘 알다시피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본래부처론이다. 본래부처란 ① 천하에 제일 귀한 존재임 ② 가장 주체적인 존재임 ③ 제일 원만구족한 존재임 ④ 제일 고마운 존재이다.

왜 그럴까? 지금 여기 생명(본래부처)의 존재인 나와 그대는 천하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지금 여기 나와 그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가는 매우 주체적인 존재이다. 온 우주의 그 무엇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데, 본래부처인 그대와 나는 자유자재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원만구족한 존재이다. 온 우주의 낱낱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여기 그대와 나,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인 것이다. 이보다 더 거룩하고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매 순간 귀하고 고맙고 거룩한 존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어찌 날마다 뿌듯하지 않겠는가.

본래부처론으로 보면 수행해서 다시 부처되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어리석은 생각은 전도몽상이다. 절집에는 특별한 부처를 찾아 천하를 헤매고 다니는 무지한 중생을 비유해서 “소를 타고 있으면서 다시 소를 찾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일반사회에도 정신 없는 사람을 비유해서 “업은 아기 3년 찾는 사람과 같다”는 말이 전해온다.

그럼 부처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초기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했고 화엄불교에서는 ‘동체대비’라 했고, 선가에서는 ‘대무심(大無心)’이라고 했다. 본래부처인데 괜히 다시 부처를 구하고, 찾고, 이루려는 헛고생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본래부처로 살자. 본래부처답게 사는 것을 화엄에서는 ‘보현행’이라 했고 선가에서는 ‘대무심행’이라 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초기불교 수행론의 기본은 ‘팔정도’이다. 내용을 단순화시켜보면 법의 정신에 맞게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라는 것이다. 팔정도는 매우 평범하고 현실적인 가르침이다. 바로 당신의 삼업(三業: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활동을 법과 교법에 맞게 하라는 것이다. 즉 지금 당장 당신이 법에 맞게 마음을 쓰고, 법에 맞게 말을 하고, 법에 맞게 행동을 하고 사는 것이 팔정도요 초기불교의 기본수행이라는 뜻이다.

법에 맞게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자
수행 따로 일상생활 따로면 참된 불교 아니다

초기불교 시대에 사용해 온 ‘법’이라는 말과 본래부처, 팔정도 즉 본래부처와 삼업활동의 문제를 다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가 정견(正見)이다. 지금 직면한 존재의 실상, 법의 실상인 본래부처를 사실대로 보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사실은 정견 자체가 부처의 견해이다. 만일 정견 말고 부처의 견해가 따로 있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전도몽상의 견해일 뿐이다. 지금 여기 직면한 현장의 일상적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본래부처의 견해를 바르게 갈고 다듬고 적용시켜 실천하는 것이 정견 수행이요, 깨달음의 수행이다. 둘째는 정사유(正思惟)이다. 본래부처답게 사유 음미하는 것이 바로 정사유요, 그대로 부처의 사유이다. 셋째는 정어(正語)이다. 본래부처 답게 말하는 것, 즉 여어(如語: 한결같은 말) 실어(實語: 사실을 밝힌 말) 불이어(不異語: 말 바꾸지 않음) 불광어(不狂語: 미친 말 하지 않음)자로 사는 것이 바로 정어인데, 이 역시 그대로 부처의 정어이다. 넷째는 정업(正業)이다. 본래부처 답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업이요, 그대로 부처의 행위이다. 다섯째는 정명(正命)이다. 본래부처 답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정명이요, 그대로 부처의 생활이다. 여섯째는 정정진(正精進)이다. 본래부처 답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정진이다. 그대로 부처의 정정진이다. 일곱째는 정념(正念)이다. 본래부처 답게 깨어있음, 정신차림, 알아차림이 바로 정념이요 그대로 부처의 정념이다. 여덟째는 정정(正定)이다. 본래부처 답게 언제 어디에서나 흔들림 없이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정이요, 그대로 부처의 정정이다.

본래부처가 있는 곳,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 바로 현장이다. 바로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곳이요,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다. 따라서 현장이 도량이요, 만나는 사람사람이 본래부처이므로 매 순간, 매 상황마다 만나는 그 사람을 본래부처로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팔정도의 길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하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교학불교와 참선불교, 수행과 현실의 삶이 저절로 하나의 길로 통일된다. 서로 분리시키고 서로 다르다고 서로 우열을 다투어야 할 까닭이 어디에도 없다. 중생의 병을 치유하는데 적절한 처방이라면 그 이름이 초기불교면 어떻고 대승불교면 어떤가. 참선불교라고 특별대접하고 교학불교라고 푸대접하는 것이 과연 불교적이겠는가.

수행 따로, 일상의 삶 따로라면 그것이 선방에 있든 법당에 있든, 산중에 있든 도심에 있든 참된 불교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직하게 물어보고 겸손하게 돌아볼 일이다.

질의응답

토론자(우바이) : 꿀벌이 사라지면 (환경파괴의 결과로 인해) 인류가 망한다고 하셨다. 인류도 존속하려면 좋은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 자손을 나아야만 한다. 좋은 DNA를 가진 스님께서 환속해서 자식을 낳을 생각은 없는가.

도법 스님 : 물이나 곤충이나 짐승이나, 남자나 여자나, 출가자나 재가자나 세상이 돌아가려면 다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인드라망이라 하는데, 모두 다 같으면 안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아이 몇을 낳아 잘 기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해서 그들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수만명을 낳아 키우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다양속의 조화, 이것이 인드라망이다.

토론자(우바새) :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도법 스님 : 70년대 초에 선방에서 10여 년 정진하다가 이런 저런 회의가 들었다. 그러다 80년 대 초에 <화엄경>을 만나 실상사에 화엄학림을 설치해 석달 동안 스님들과 함께 공부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청정법신(淸淨法身) 비로자나불이로구나, 생명의 활동이로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 때부터 생명 · 평화의 관점에서 삶과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90년대 들어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진보진영이 나아갈 방향을 잃고, 자본주의 역시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해 생명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장익순, 박경리, 김지하 선생 등의 말씀을 접하고 더욱 용기를 얻어 생명평화 활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불교와 사회적 대안을 동시에 실현하는, 종단과 사회에 모두 도움이 되는 자리이타의 수행이라 생각한다.


도법 스님.

도법 스님 : 야단법석은 발로(發露)참회의 심정으로 마련된 자리인데, 실상사 야단법석 후 여러 압력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종단이나 총림, 선원 등에 대한 비판을 정직하게 할 수 없다면 불교 발전은 불가능 하다. 우리 허물을 만천하에 드러내 참회하지 않고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아픈 현실을 이해해 달라. 다음 야단법석에서는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속에서 갈등을 치유하면서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

김은규 원불교 교무 :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기에 개혁의 목소리가 나올 수록 긍정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불교계의 어떤 광명을 본 것 같다.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적으로 이런 법어의 마당이 열린다면 모든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토론자(비구니) : 수행자는 늘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고민한다. 본래부처로서 생활이 안될 때,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도법 스님 : 수행은 특수한 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선방에서 연습만 하다가 본 게임에 응용을 못하면 되겠는가. 연습이 연습인 줄 모르고 거기에 매몰된다면 문제이다. 선방 수좌는 수좌다워야 한다. 수좌에게 자원봉사를 하라는 게 아니다. 진실 되게 수행하는 수좌와 열심히 포교하는 스님들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수행에는 쉽고 편한 길이란 없다. 수행이 어렵더라도 맨날 안된다 하면 정말 안된다. 본래부처와 연기, 무아, 공에 대해 확신하고 팔정도에 따라 부처행을 하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사찰스님 20%할인)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buddhanews.com

일념 즉 오온이 공함을 보아 해탈을 성취한다

간화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월암 스님(벽송사 선원장)

'백양사 야단법석' 3일째인 11월 23일 오후, 월암 스님(함양 벽송사 선원장)은 '간화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설법했다. 이 자리에서 월암 스님은, 최근 간화선이 부처님 수행법과 무관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초기불교 수행자들의 지적에 대해 "간화선이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과 상좌부의 아비담마, 그리고 대승불교의 수증론과 동일한 지평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월암 스님은 "대혜 선사가 주장하는 일대사인연이나 혜능 선사가 설한 근본종지와 일념(一念)수행 역시 부처님께서 설한 무상(無常), 고(苦), 공(空), 무아(無我)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오온, 십이처, 십팔계 등의 교설이 초기불교로부터 중국 선종에 이르기까지 기본 내용으로 설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다만 초기불교는 생멸연기의 입장에서 부정적 언어(무상, 고, 무아, 부정)로 기술하고 있으며, 선종에서는 환멸연기적 입장에서 긍정적 언어(보리, 불성, 청정, 본래면목, 주인공)로 표현하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초기불교의 가르침과 연관시켜 간화선 수증의 방편에 대해 설법했다.

다음은 법문과 토론의 요지.

남방의 해탈열반과 견성성불은 같은 깨달음의 경지

지혜·자비 함께 수행하는 '복혜쌍수' 가풍 진작시켜야

간화선을 확립한 대혜 선사는 "오음(五陰), 육입(六入),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 이십오유(二十五有), 무명업식(無明業識), 사량분별(思量分別) 하는 마음", 즉 팔식(八識)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그 곳, 즉 무명으로 인한 번뇌 망념에 휘말리지 않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무자화두를 참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화두참구의 요체를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음, 육입, 십이처, 십팔계 등으로 대변되는 일체 번뇌망념(팔식 작용)을 놓아버린 그곳에서 화두 참구를 통해 번뇌가 바로 공성(空性)임을 요달해 번뇌가 그대로 보리인 진여불성의 중도를 깨닫게 하는 견성법(見性法)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종에서 주장하는 돈오자성청정(頓悟自性淸淨)이란 자기 성품이 무명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본래적 진실성(淸淨)을 단박에 깨닫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간화선의 사상적 연원은 혜능 선사의 선법에서 찾을 수 있다. 혜능 선사는 <육조단경>에서 최후 유교(遺敎)설법을 통해 선종의 근본종지를 잃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삼과법문(三科法門)'과 '삼십육대법(三十六對法)'을 설하고 있다. 혜능 선사가 설한 삼과법문은 오온, 십이처, 십팔계를 가리키며, 삼십육대법의 내용은 다름 아닌 중도를 수행하는 견성과 전법의 논리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삼과법문과 삼십육대법은 일념(一念)수행과 일념 해탈로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념을 수행하면 자신이 곧 부처이다. 깨닫지 못한 즉 부처가 중생이요, 일념을 깨달은 즉 중생이 부처이다."(돈황본 단경)

혜능 선사가 천명한 일념수행이란 중생과 제불의 차이를 단지 일념의 미오(迷悟)에 있다고 보고, 미와 오의 차이는 다만 일념지간에 있으므로 일찰나에 전미개오(轉迷開悟)할 것을 권장한다. 이 말은 중생의 일념은 무명에 오염돼 분별망념으로 생멸윤회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지만, 분별망념에 휘말려들지 않고 망념이 본래 공함을 여실히 깨달으면 본래심이 회복돼 부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념, 즉 오온이 공함을 보아 해탈을 성취하는 초기불교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대혜 선사가 말한 보리열반, 진여불성이 번뇌망념 너머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듯이 혜능이 말한 자성 혹은 본성, 심성 또한 공, 무아를 내용으로 하는 중도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선종에서 말하는 자성청정(自性淸淨), 본래면목, 주인공 평상심, 즉심시불(卽心是佛), 무위진인(無位眞人) 등의 언구는 실체적 진아(眞我: 아트만)의 의미로 설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 무아, 중도를 나타내는 존재의 참모습을 선종용어로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이다.

혜해 선사는 정념(正念: Samma-sati)이란 "오직 보리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보리열반은 본래 얻을 수 없고,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무념은 모두 일에 따른 방편에 의해 가짜로 그 이름을 붙인" 중도정관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지관(止觀: 사마타-위빠사나)겸수의 입장 또한 선종의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전통과 간화선에 있어서의 성성적적(惺惺寂寂)이라는 화두참구법과 동일 지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남방의 sati(혹은 위빠사나)수행을 통한 해탈열반과 화두 타파로 얻어지는 견성성불이 똑같이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경지임을 알 수 있다.

화두 참구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은 간절함(切)이다. 일대사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발심이 전제되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의정이 끊어지지 않는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틈이 없는 마음, 즉 무간단(無簡單)이 돼야 한다. 간단없는 의심을 이어가되 간절하고 철저하게 사무치는 의심이 일념만년(一念萬年)되게 해야 깨달음의 단계로 향상할 수 있다.

간화선 수증의 일반적인 방편인 발심-출가-정견(연기적 中道正觀 확립)-참문(參問: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물음)-결택(決擇: 선지식이 수행자의 수행기연과 이력을 관찰해 화두를 제시함)-참구(參究)-탁마(琢磨)-행각(行脚: 동중공부인 만행)-삼매(화두가 끊어짐 없이 늘 한결같은 상태)-거량(擧量: 수행의 진척상태를 점검하는 선문답)-점검(선지식의 지시)-인가(선지식으로부터 깨달음을 인정받는 것)의 과정을 거친 선사는 최종적으로 교화에 나서게 된다.

수행자가 견성성불하기 위해 수행 정진하는 것과 일체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것은 결코 두 가지 일이 아니다. 항상 화두를 참구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두 수레바퀴를 굴려 지혜와 자비가 함께 수행돼지는 비지쌍운(悲智雙運), 복혜쌍수(福慧雙修)의 가풍을 진작시켜야 한다. 수행 가운데서도 이러할진대 깨달음을 성취한 연후 육도중생을 널리 구제함은 대승보살의 비원일 것이다. <심우도>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난후 마지막으로 중생의 삶의 현장인 저자거리로 나아가(垂手入廛) 화광동진(和光同塵)할 것을 설하고 있다.



월암 스님.

중국의 조사선과 달리 한국 선종의 종풍은 늘 선과 화엄의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의 견성성불과 화엄의 보현행원이 결합해 선수행과 보현행원이 일치하는 선엄일치(禪嚴一致)의 가풍을 유지해 왔다. 선엄일치에서 주장된 심지법문이 바로 견성성불과 요익중생이다.

질의응답

토론자(거사) : 하나의 화두를 투과한 뒤에 계속 몇 개의 화두를 하나씩 타파해가는 것을 바른 화두공부로 볼 수 있는가?

월암 스님 : 역대 선사들의 어록을 보면 작은 깨달음, 큰 깨달음이 여러번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간화선을 확립한 대혜 선사는 물론이요 보조 스님은 세 번의 깨달음을 체험했다고 하며, 일본의 백은 선사는 큰 깨달음을 8번, 작은 깨달음을 여러 번 체험했다고 한다. 육조 스님의 경우도 나무꾼 시절에 <금강경> 독송 소리를 듣고 한번 깨닫고, 오조홍인 대사 아래에서 행자로 생활하면서 <금강경>의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법문에서 활연대오 한다. 근기와 기연에 따라 크고 작은 여러 번의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향봉 스님 : 확철대오의 경우는 하나를 통하면 전체를 통하는 '일통 만통'이 돼야 한다. 일본의 선종은 '사다리 선'이라고 해서, 의리선 냄새를 풍기는 게 사실이다. 하나의 화두를 타파해 넘어야 할 화두가 있다면 증오(證悟)가 아니다. 증오인 경우는 '일통일체통'이 돼야 할 것이다.

토론자(우바새) :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설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월암 스님 : 고려시대의 선적을 보면 거의 보조 스님 일색이다. 경허, 만공, 용성, 한암 스님도 보조 스님의 견해를 따랐다. 다만, 서산 스님이 법통 문제에 있어서 연원을 태고보우 스님으로 이은 바 있지만, 성철 스님 때까지 보조 스님이 한국 선사상의 주류를 형성한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철 스님이 보조 스님의 '돈오점수설'을 비판하고 '돈오돈수설'을 제기한 것은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많은 부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나, 성철 스님의 주장 역시 비판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보조 스님이 돈오점수설을 말한 것은 독단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규봉종밀, 영명연수 선사 등의 전통적 입장을 따른 것이다. <아함경>에서는 '돈현관', '점현관'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돈점이론은 불교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돈점이론은 중생의 근기에 따른 수기설법으로 봐야 한다. 육조 스님이 단경에서 "법에는 돈점이 없으며, 중생의 근기에 예리함과 둔함이 있을 뿐이다"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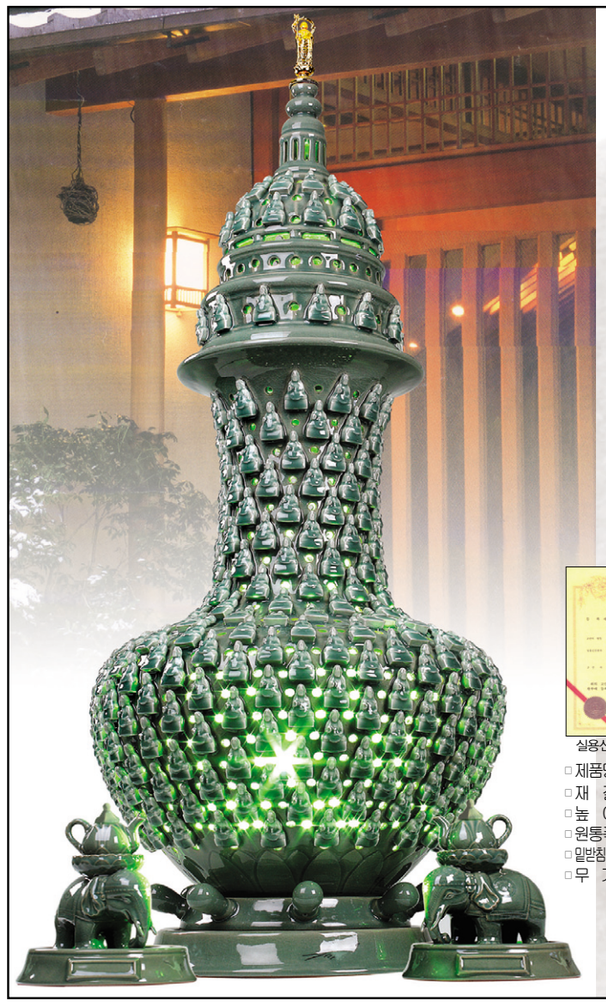
토론자(비구) : 임제 스님을 황벽 스님에게 인도해 깨닫게 한 목주 스님처럼 구참수좌들이 역할이 필요한 시대다. 수좌와 조실스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만 살아있어도 간화선이 좀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한다.

월암 스님 : 눈밝은 종사가 부족해 거량과 점검, 인가제도가 사라진다면 시스템으로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지견이 나고 견처가 생긴 분이 부족하다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라도 간화선 수행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자(우바이) : 중생은 무명(無明)에 의해서 12연기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명 이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월암 스님 : 무명이 본래 없는데, 무명 이전 이후가 있겠는가? 일체 유위법이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다. 망념이 본래 망념이 아니다(분별망념에 휘말려들지 않고 망념이 본래 공함을 여실히 깨달으면 본래심이 회복돼 부처를 이루게 된다) 굳이 질문에 대답하라 한다면 무명 이전이나 이후가 광명, 지혜, 부처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일반침폭 30cm
□ 무 게 25kg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
사찰경제 살려!!!

불교 엑스포 [해운대 백스코, 12월 3일 ~ 6일]에서
사찰경제 살리는 법륜대를 돌려보세요!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장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륜대에
복장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빚, 해탈이 복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료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 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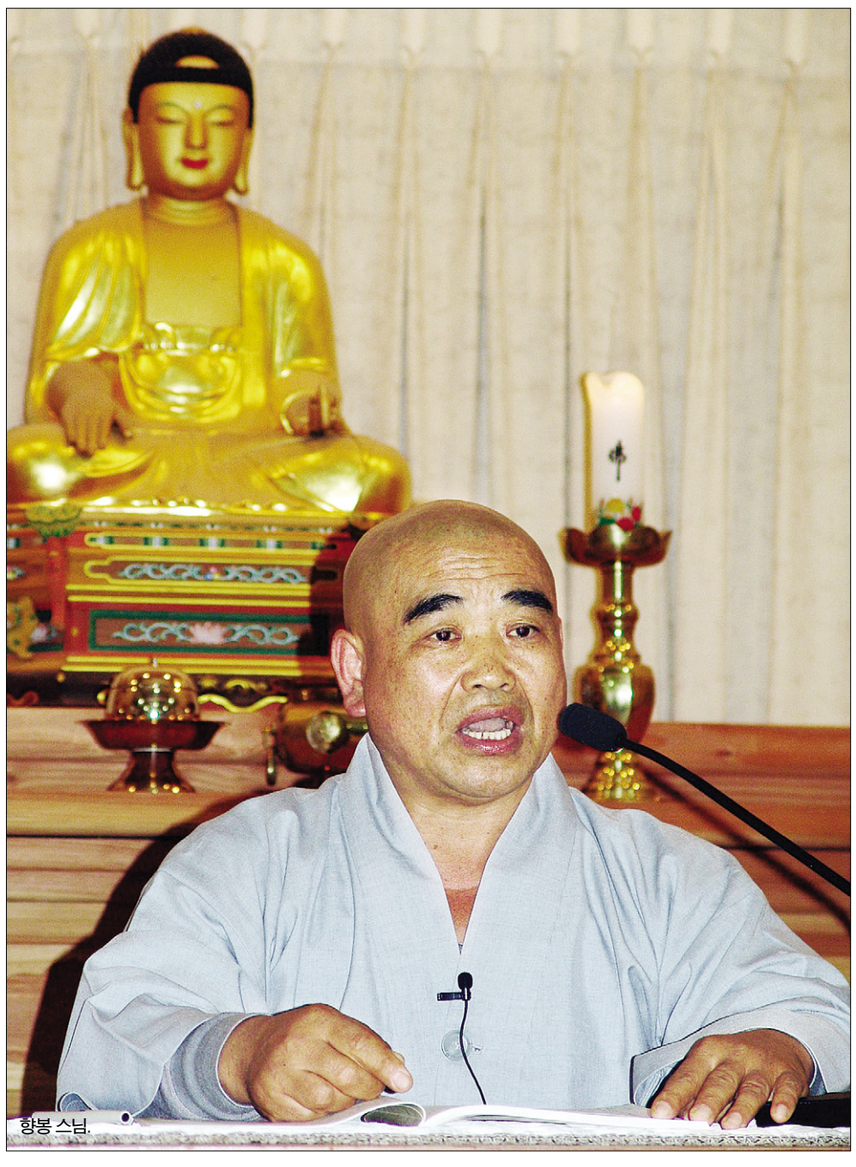
진리는 드러나 있으니 문 열면 서울, "열어라"

조사어록을 통한 깨달음의 길
향봉 스님(익산 사자암 주지)

11월 24일 '백양사 야단법석' 나흘째, 향봉 스님은 '조사어록을 통한 깨달음의 길-임제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법문했다.

향봉 스님은 좌선지상주의의 간화선 수행풍토는 문제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향봉 스님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정(定)에 든다'면 이러한 무리들은 조작심의 수행자일 뿐 무위진인(無位眞人)의 선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게 임제 선사의 가르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봉 스님은 "요즘 선방에 참선 수행자는 많으나 법거량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며 열린 선지식을 쉽게 만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조사어록을 뚫는 지혜의 안목은 간절심으로 시작해 간절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오로지 간절심 하나로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이 통일된다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선지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문과 질의응답 요지.


향봉 스님.

부처님께서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논리와 표현을 갖춘, 법(진리)을 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비해 선어록은 어떠한가? 논리와 분석을 배격한다. 처음도 없고 중간도 없고 끝도 없다. 이원론을 버리면서도 일원론에 머물지 않는다. 연기의 법칙인 존재론적 상의성과 연관성마저 훌훌 벗어버린다. 선어록에 있어 사고나 설명은 죽은 송장에다 채찍질을 하는 경우처럼 의미를 잃고 만다.

어떤 학자는 조사어록을 설명할 때 지극히 형이상학적이라 표현했지만, 어록에 담긴 정신은 형이상학 쪽 보다는 형이하학 쪽에서 오히려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어록에는 두변이 없다. 형이상학도 형이하학도 아닌 것이다.

<법화경>의 한 구절처럼 일체만물이 본래 고요하고 텅 비어 있는 것으로 관조하되 텅 빈 것에 머물지도 않는다. 텅 빈 가운데 충만이 있고 충만 가운데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선불교의 거목인 임제 스님은 수행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해 참사람에 이르는,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고 있다. 첫째는 주체를 버리고 객체를 남겨두는 경우, 둘째는 객체를 버리고 주체를 남겨두는 경우, 셋째는 주체와 객체를 다 버리는 경우, 넷째는 주체와 객체를 다 남겨두는 경우다.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집과 편견에 의해 나(我)라고 하는 주관적 생각들이 걷혀야만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만 보이는 대상에 따라 마음의 작용이 쉬임이 없으나, 존재론적인 근원의 움직임을 깨달아 산을 보아도 산일 수만은 없고 물을 보아도 물일 수 만은 없는 것을 말함이다.

셋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로 어우러져 사물에 대한 조화를 이루는 눈을 뜨게 되지만, 상대성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보는 나와 보이는 사물이 참나를 이뤄 걸림과 막힘이 없는 대자유의 참사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산은 산인 그대로, 물은 물인 그대로 차별이 없는 참사람의 열린 지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곧 마음을 바로보아 부처를 이루는 선(禪)의 생명이자 어록의 특징인 것이다.

임제 스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선사들은 깨달음을 성취한 뒤 떠난 자리를 뒤돌아 온다. 치열한 정신력의 간절심으로 한 바퀴를 돌아나와 버릴 객체도 머물 주체도 없는, 상대가 적멸한 절대의 무념처(無念處)에 이르게 되면 객체는 객체 그대로, 주체는 주체 그대로 '평상심이 도(道)'가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 그대로가 진리 아님이 없으며 옷 입고 밥 먹으며 졸리울 때 자고 목마를 때 물을 먹는 무위진인이 되는 것이다. 사바예토가 당생극락(當生極樂)이 되어, 임제 스님이 즐겨 쓰는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참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임제 스님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열린 마음의 진정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염원하는 사람은 집착과 분별심에서 벗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에 힘써 숱한 체험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간절심으로 정진하되 주체와 객체의 두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채찍질을 가해야만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중략)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그가 부모이면 부모를 죽이고 그가 친척이면 친척마저 죽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최상의 해탈인 대자유인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막힘과 걸림이 없는, 차별 없는 무위진인이 되는 것이다."

부처와 조사만을 죽이면 안 된다. 나 까지도 내 몸뚱이마저도, 차별심과 집착심마저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 던져 송두리째 태울 수 있는 그런 간절심이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러나 지름길과 열쇠마저도 버려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전등록> <선문염송> <조당집> <벽암록> 등의 조사어록에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 널려 있다. 깨달음의 문을 여는 수천 개의 열쇠가 박혀있다. 다만 우리가 지름길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열쇠의 임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착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어록에는 말과 글의 한계를 벗어던진 그들만의 자유로움이 격외도리(格外道理)로 춤추고 있다.

차별심·집착심도 태울 간절심이 깨달음의 열쇠
집착의 병 앓고 있기에 열쇠의 임자 되지 못해

조사어록에 널려있는 지혜의 말씀들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비수가 되고 화살이 돼 환한 빛줄기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조사어록의 바다에서 생선 한 마리 건지지 못하는 것은 닫혀있는 마음 탓도 있겠지만 속어(俗語)와 고어(古語)에 대한 무지도 채찍을 맞아야 할 허물임을 밝혀 둔다.

조사어록을 뚫는 지혜의 안목은 간절심으로 시작해 간절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오로지 간절심 하나로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통일된다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선지식이 될 수 있을 터이다.

진리는 드러나 있다. 문은 활짝 열려있다. 개문즉장안(開門卽長安: 문 열면 서울이다)이다.

질의응답

토론자(우바새) : 선방에 있는 2200여 수좌들이 정말 잘못 수행하고 있는가? 재가자로서 존경심이 떨어져 마음이 불편하다. 수좌들의 문제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는가.

향봉 스님 : 100여 개가 넘는 선원에 5가지 병통이 있다고 생각한다. 짜여진 시간표에 의해 죽비소리에 길들여지는 병, 법거량을 두려워하는 병, 안거 횟수에 따라 서열과 소임이 정해지는 병, 선원장 이상의 소임을 맡을 경우 한 곳에 주저앉는 병, 문중 위주로 조실 · 방장이 정해지는 병이 그것이다. 선문답이나 지도점검이 없는 안일한 체제에서는 도인이 나오기 어렵다. 하루 속히 개선이 돼야 참 선지식이 출현할 것이다.

토론자(비구니) : 법주스님 말씀처럼 자기 공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선방의 분위기인 것 같다. 활발발한 문답이 늘 아쉬웠다. 스님은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 궁금하다.

향봉 스님 : 마흔 살까지 불교신문이나 총무원 소임을 보고 책도 많이 썼지만, 아버님이 입적을 계기로 생사문제가 화두로 다가왔다. 내장사에서 아버님 49재를 모시는데, 팔순의 어머님이 "49재를 지내면 아버지가 오시느냐?" "49재를 지내면 영혼이 왕생극락 하느냐?"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진공(眞空)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너무나 캄캄해 꽉 막힌 화두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다. 이러한 의문을 품고 인도에서 수행할 때,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가 박살나듯 고통스러웠고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다. 극한상황에서도 일종의 오기가 나서 '영혼은 있는가, 없는가?' '왜 내게는 깨달음이 오지 않는가?' 하는 일종의 '자연 화두'가 자리잡혔다. 인도에서 1년 정도를 지났을 때 정다운 스님이 한국에서 보내온 포켓용 달력에 쓰여진 '조주 무(無)자' 화두에 대한 글귀를 보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심을 느끼며 종교적 체험을 했다. 선어록과 일체 만사를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후 나는 인도, 티베트, 네팔, 중국에서 15년간 만행을 하고, 5년전 익산 사자암으로 와서 조용히 지냈다.

토론자(우바새) : '조주 무자'는 어느 방향에 존재하는가?

향봉 스님 : 거사님! 거사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토론자(사미) : (거사님! 거사님! 하고 부른 후 박카스 병을 질문자인 거사에게 살며시 던지는 거량을 함)

향봉 스님 : 거사님은 무아(無我)의 참뜻을 아는가?

토론자(우바새) : 모른다.

향봉 스님 : 모르면서 선문답을 흉내 내는 것은 앵무새나 마찬가지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향봉의 본래면목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질문에 "흐르는 물이 안개 돼 비바람을 몰고 간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고인들의 말귀나 흉내 내는 것은 자기도 속이고 대중도 속이는 일이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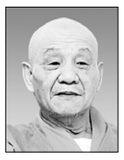
학술 세미나 - 한국 독립운동과 진관사
- 진관사에서 발굴된 독립운동자료의 역사적 조명 -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13시 ~ 18시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
◆문 의 : 진관사 종무소 02)359-8410
■ 개회 및 의식
■ 1부 : 기조 발제 · 강연 / 사회 : 김주용 (독립기념관)
진관사에서 발굴된 자료의 독립운동사에서의 가치 -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
진관사 독립운동 자료의 발굴 경위 및 문화재적 가치 -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 2부 주제발표
1.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 김광식 (동국대) / 논평 : 한동민 (수원박물관)
2. 진관사 태극기에 대한 종합적 고찰 - 한철호 (동국대) / 논평 : 송명호 (서울시, 태극기 전문가)
3. (신대한)신문과 신채호의 민족운동 - 김주현 (경북대) / 논평 : 박걸순 (충북대)
4. (자유신종보)와 상해지역의 독립운동 - 한상도 (건국대) / 논평 : 강영심 (이화여대)
■ 논평 및 종합토론 / 좌장 : 정재정 (서울시립대)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 관 : 삼각산 역사문화보존회 ◆후 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독립기념관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주지 계호 합장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장애를 갖고 있는 분
특별 결혼 정보
캄보디아=베트남=네팔



해성불원 자비회는 특별히 불자 가정 장애우님들께 봉사의 마음으로 해외에서 포교하시는 스님들과 짝지어 주기 운동을 전계 하였습니다.
자격조건=생활능력 있는분
불교가족 선남 선여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여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일주문



DMZ평화상 대상수상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 오현 스님은 DMZ평화상 제5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철원 고석정 전적관에서 열린다.



추모 다례 및 사리탑 제막식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은 12월 4일 오전 11시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승산 스님 5주기 추모다례 및 사리탑제막식을 봉행한다.



월정사 삼보일배 대정진 입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2월 31부터 2010년 1월 1일 월정사-상원사 구간에서 송구영신 삼보일배 대정진을 봉행한다.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추대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능인 스님은 오는 12월 9일 오후1시 진천읍 화랑관에서 석가산 대종사 종정 추대식을 봉행한다. (053)325-5288.



사천 선원사 현판식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12월 5일 경남 사천에 연꽃 홍보사찰인 선원사 사천 분원 현판식을 거행한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서재교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 스님은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 및 논술 등을 교육하는 선재교실을 개최한다. (02)2282-1100



통일문화대상 수상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1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아카데미홀에서 통일문화연구원이 주최하는 '제5회 통일문화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시조아카데미 겨울학기 개강

홍성란 시조시인은 12월 7일~2월 22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유심> 세미나실에서 '시조 아카데미' 겨울강좌를 개최한다. (02)739-5781



신지식인 문화예술 부문 최우수상

진산 정지완 작가는 (사)한국신지식인협회(회장 최세규)가 주최하는 제14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문화예술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촉

배재수 불교방송 기자는 12월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영등포 문화웨딩홀 2층 러블리하우스홀에서 신부 박혜윤씨와 화촉을 밝힌다. (016)333-4514

"다른 것 인정하는 곳이 불국토"

美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 박성배 교수 학술강연

"어린이는 자기와 다른 것을 보면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중생심(衆生心)입니다."

재미 원로 불교학자인 박성배 교수(美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 · 75세)는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이사장 정해숙)가 1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청화대종사 불교사상 학술강연회에서 강연했다.

박 교수는 주제강연 '몸과 몸짓의 논리로 본 청화 스님의 불교사상'을 자신의 미국생활에 대한 회고로 시작했다.

"40여 년을 미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인종차별을 크게 느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역시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 차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다.

박성배 교수는 미국 내 언론을 인용해 "오바마가 현재의 위기에 봉착한 것은 그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대통령조차 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은 자기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중생의 근본적인 결합 탓"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배 교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무차별'에 관한 집착도 그릇된 중생심입니다. 무차별한 곳이 불국토라 생각하는 것 또한 큰 잘못이지요. 자기와 다른 이가 더불어 사는 세상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차별없는 세상은 어떨까? 박성배 교수는 미국의 부호인 록펠러가 건축 · 기부한 한 병원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1600 병상의 대형 병원이 지어졌는데 건물 안에서 길을 잃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유는 건물 구조가 차별 없이 모두 똑같아서였어요."

박 교수는 사람을 차별 없게 강요하는 그릇된 것으로 지식을 꼽았다.

"지식은 인간에게 산 것과 죽은 것의 구별을 사라지게 합니다. 종교에 관한 지식만 갖고서 자신이 성자(聖者)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박성배 교수는 "청화 스님은 당시 보편적이던 간화선 수행법을 떠나 염불선으로 차별을 실천한 선지식이었다"면서 "부처님도 모두가 바라문의 길을 가던 무차별에서 붓다만의 길을 걸었기에 성불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른 것이 새로움과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실상입니다."

이날 1시간 여 강연 동안 고희를 넘긴 원로 교수는 꼿꼿이 서서 말했다. 박성배 교수의 한국불교에 대한 숭고한 열정과 사랑은 12월 2일 그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27일 동국대BK21사업단, 30일 광주 전남대 특별강연에서도 이어졌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의례 통해 공동체 의식 회복

불교생활의례 문화원 배관성 초대 이사장 임명

"향후 2천만 불자 모두가 불교식 생활의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배관성 이사장(동대문 케레스타 대표이사)을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배관성씨.

배관성 초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의욕과 단합된 힘으로 생활포교의 전법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불자들의 생활의례를 유교적 생활의례에서 불교적인 것으로 전환시켜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배 이사장은 "불교상례 봉사자 양성교육과 전문과 과정 교육 등의 인성교육을 통해 대사회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앞으로 불교생활의례를 복원해 전통문화로서의 제자리를 확고히 찾고, 불교의례를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에 앞장선다. 배관성 이사장은 "생활의례 봉사단을 결성해 일반 불자들이나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의 생활의례와 관련한 고충 및 민원해결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의례봉사단은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인 대사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원은 또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불교식 관혼상제의 보급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할 방침이다. 배관성 이사장은 "연구소는 범불교적인 생활의례의 매뉴얼 작업과 불교의례에서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성년식, 돌, 칠 · 팔순 잔치를 비롯한 영아 수계 등의 깊이 있는 연구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2007년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원장 엄상호)에서 주관한 '장례산업의 동향과 불교 장례산업의 현재'에 대한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2009년 4월 발기인 153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에는 제1기 불교상례 전문지도사과정 교육생들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8월 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사무국은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2층에 위치해 있다. (02)720-1079

이상언 기자

中, 달라이 라마 방한 반대 압력

취임 첫 예방에 '결례', 자승 스님 "상황 고려 판단"

중국불교협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달라이라마 방한 반대 압력을 행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종교평화위원회(CCRP) 대표단 도술인 부단장(刀述仁.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은 11월 2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 "달라이 라마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중불교계의 우호에 해로울 것"이라는 엄포성 발언을 내뱉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에서 세번째)과 부선위 단장(네번째), 도술인 부단장(오른쪽 끝).

이날 자리는 앞선 19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중국종교평화위원회(CCRP) 초청 방한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됐으며,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취임 축하예방도 겸해 이뤄졌다.

당초 예방 행사는 중국종교평화위원회 부선위 단장(중국종교평화위원회 부주석, 중국기독교삼자애국회 주석)의 취임 축하 인사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축하 축전에 대한 감사, 중국불교계의 현황과 한중일불교교류대회의 지속 방안 등이 논의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달라이 라마를 공식 초청한 바 없으며 방한과 관련해 공식 접수된 것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자승 스님은 이어 "종단은 전과 같이 한중불교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고 있고, (방한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동산인의 밤' 발전기금 마련전시회 열어

20일, 동산불교대학 창립 27주년 기념 법회

신행 · 교육 · 포교 전문 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이사장 안동일)은 11월 20일 창립 27주년 기념 법회 및 동산인의 밤을 개최하고 발전기금 마련전시회를 함께 열었다.



동산불교대 창립 27주년을 기념한 발전기금 전시회의 테이프 컷팅장면. 오른쪽 네번째 부터 법산 스님, 무진장 스님, 안동일 이사장.

이날 전시회에는 동산반야회의 초대 이사장인 故 김재일 법사의 애장품 50여점과 故 이항녕 박사(전 홍익대 총장)의 불교 소장품 50여점이 전시됐다.

또 석주 스님, 만봉 스님, 운보 김기창, 최규일 화백의 작품, 故 김재일 이사장이 네팔에서 모셔온 만다라와 부처님 일대기를 그린 작품 및 소품 등을 함께 전시해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동산불교대학 안동일 이사장은 기념법회에서 "단순히 동산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보다 故 이항녕 박사와 몸과 마음을 바쳐 불교를 위해 정진 했던 故 김재일 이사장의 정신을 본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일 이사장은 기념법회에서 이번 전시회에 소장품을 기증한 故 이항녕 박사의 아들 이재후 변호사와 발전 기금 장학금을 전달한 조중건 화암학술연구재단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법현 스님(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박윤흔(전 환경부 장관), 정귀호(전 대법관), 김종규(삼성출판박물관장), 조중건(재, 화암학술연구재단 이사장), 엄상호(불교인재개발원 이사장), 이재후(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창종 2주년 대법회

모시는 말씀

삼보에 귀의 하옵고
존경하는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도 및 사부대중 여러분 광대무변한 불법 광명과
제불보살님의 대자비심으로 불은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창종과 더불어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말씀에 따라 생활속에서 불법을 널리
홍포하며 불국정토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창종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정예하 큰스님 부종정큰스님 장로원장님 각 부원장큰스님
여러 대덕큰스님들을 모시고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창종 2주년 법회를 봉행코져 하오니
사중(寺中)에 바쁘신 일이 있으시더라도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53년 11월 24일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총무원장 혜상 합장

■ 일 시 : 불기 2553년 (서기 2009년) 12월 12일 토요일(음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 장 소 : 화엄조계종 총무원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 632-2799 / 핸드폰 011-228-7813

▷ 입 종 안 내 ◁
맑고 투명한 종단 대한불교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집 합니다.

가족은 전생의 원수? 스스로 눈 뜨면 제대로 보인다

주제:여래의 사자(使者)를 만나다 5

일시:11월 24일

장소:광주동구KT문화센터

강사: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위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 · 부부 · 자식과 세 가지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이니까 고마운 분이고,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더 교육을 잘 안 시켜줬다, 어릴 때 야단을 쳤다, 재산을 더 많이 안 물려줬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는 마음을 갖기는 커녕 아직도 바라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은혜 갚을 줄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내가 선택한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듯이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대부분 원만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냐? 원수를 보듯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왠수야!" 라고 할 때. 원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원수라고 그러겠어요.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고통이 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맺고 있는 부부관계가 굉장한 이기심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는 그 사람 키가 얼마나 크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집안이 얼마나 좋냐? 공부를 잘 하냐? 이런 거 잘 안 따집니다. 애가 되먹었냐! 이것만 따집니다. 즉, 의리가 있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할 때, 거래를 할 때도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신용이 있느냐!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선을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열 가지, 스무 가지를 봅니다. 키도 조금 커야 하고, 얼굴도 예뻐야 하고, 신체도 건강해야 하고, 학벌도 좋아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직업도 좋아야 하고, 거기다가 성격도 좋아야 하고, 나만 사랑해야 하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친구를 사귀다가 의리가 없으면 친구 관계를 그만두잖아요. 사업을 같이 하다가 신용이 없으면 그만 둡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종합적으로 굉장한 의심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좀 살아보면서 뭔가 내가 손해가 아닌가? 즉, 덕 볼라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별로 덕이 없어. 그러면 "에이, 혼자 사는 게 더 낳을 걸." 조금 더 지나면 덕 보기는 커녕 손해를 봐. 그러니까 "같이 살 필요가 없겠다. 혼자 사는 게 낳겠다." 이렇게 해서 헤어질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출발할 때 관점이 벌써 잘못됐다 이겁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왜 안 좋냐? "내가 속았다. 돈 있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돈이 없더라. 성격이 좋은 줄 알았더니 성격이 나쁘더라. 속았다." 그 말은 상대가 나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은 다 상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저런 여자, 저런 남자를 만났느냐? 이것에 대한 이유,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나온 말이 뭐에요? "궁합이 안 맞다. 전생에 우리는 원수였나봐. 전생의 원수가 이생에 부부가 된다." 이런 말을 하잖습니까. 부부가 그만큼 갈등이 심하기에 이런 속설이 생겨난 겁니다. 부부관계가 나쁜 것은 궁합 문제도 아니고, 사주팔자 문제도 아니고, 전생의 원수도 아니고 바로 덕 볼려고 하는 이기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이제 자식의 문제예요.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키웠으니까 닮아도 누굴 닮겠어요? 자기 닮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키웠으니까 자기 뜻대로 돼야 하는데 자식들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 자식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예요. 이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입고 커도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 보다는 간섭하는 사람, 속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간섭을 안 받으려고 집 나가잖아요. 부모가 자식이라고 맘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나빠집니다.


법륜 스님.

부부관계 나쁜 것은 서로 덕 보려는 이기심 때문

부처님 가르침은 내 무지·무명 깨뜨리도록 도와줘

부모는 자식에게 온갖 것을 해줬는데 자식이 고마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원망하니까 부모로서는 원수를 하나 키운 것 같죠. 그래서 또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원수야!" 할 때, 남편 다음에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 이예요. 그래서 또 속설이 생기는 거예요. 전생의 원수가 이생의 부모 자식이 된다. 이런 속설들이 왜 생기느냐? 현재의 부부나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 만큼 나쁘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인생의 절반 이상이 결국은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자식 때문에 이게 인생의 고민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왜 가족 관계를 맺고 사느냐? 행복하려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를 맺는데, 이 가족관계가 행복은 커녕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은 원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인간관계를 잘못 맺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못 맺고 있느냐? 바로 인간관계의 올바른 원리, 법칙, 이치 이걸 모르고 소위 무지하게 무지해서 관계를 잘못 맺고 있다 이겁니다.

물질에는 물질의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성질을 모를 때는 이용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겪습니다. 지금은 그런 물질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내 필요에 맞게 이용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작용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원리를 모르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전생의 죄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니고, 하느님의 벌도 아니고 무지, 무명(無明), 이것이 모든 고(苦)의 근원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는 거기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원리를 모르면 어떠냐? 좋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나빠지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고, 전생을 탓하고, 팔자타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법칙, 자연에는 자연의 성질, 생명에는 생명의 원리, 마음 작용의 원리,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붓사가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불 켜라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아무리 불을 켜도 더 이상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눈을 떠라" 하셨어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무지를 깨우쳐라. 눈을 뜨면 되면 세상이 본래 밝아 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계속 괴로워한다 해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해결 할 수 없다. 다만 잠에서 깨면, 눈을 뜨면 그 모든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사가 온갖 괴로움이 생겨나며,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것은 뭐냐?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무지와 무명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하신 말씀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괴롭다던지, 어떤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인생살이가 괴롭다던지, 어떤 자식 때문에 괴롭던지 할 때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원리와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 두 가지만 알면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처럼 까르마(Karma) 즉, 업식(業識)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 사람이 아닌 이상 노인은 노인의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몸뚱이도 굳어서 유연하게 휘어지지 않듯이 이 생각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어르신들의 성질 이예요. 이미 습관화 된 것들은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르신이나 부모님을 자꾸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어르신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맞춰 주는 것이 좋다. 언제나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다? 부모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뜻대로 할 수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하고, 못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입니다. 부모님이 말하거나 어르신이 말할 때 그것을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따지면 안된다는 거예요. 분별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안되는 것을 자꾸 고치려고 하면 내가 화가 나고, 지치게 되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다" 그러고,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을 "지혜롭다" 그래요. 어리석으면 원수를 만들고, 지혜로우면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부지간에는 자라온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는 방식이 서로 다르게 들립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리고, 싫은 소리,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리는 안 들려요. 이걸 첫째 인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걸 생각 안하고, 부부니까 항상 생각이 똑같은 줄 알아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남이면 오히려 확실히 약속을 잡는데, 부부는 이걸 분명하게 잘 안 해요. 대충해 놓고 자기 생각대로 남편이 다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예요. 착각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기 할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늘 속이 꽁해 있어요. 참다가 참다가 말을 하니까 말을 할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 번 생각하면 세 번 남편이 거절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남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계속 혼자서 생각을 하며 나쁜 사람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남편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이듯이 남편도 자기 생각 표현하는 것을 자유라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대화를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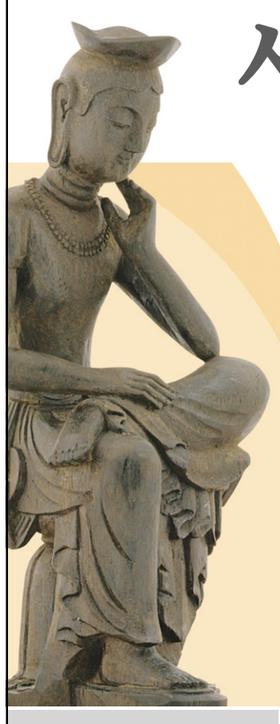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사찰 화재보험 안내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0-7344-1881

buddhanews.com

소통하려면 내 무지 깨뜨려라

할 때 망설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정해놓고 요구하지 말라. 그에게 언론의 자유를 줘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에 너무 집착해요. 그래서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이란 말도 신의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살지 못하게 해요.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우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것. 즉, 사명감이라는 것이 견해를 고집하는 건데 견해를 고집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견해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볍고, 맑고, 밝아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맑고, 밝고, 가벼워야 늘 잔잔한 행복이 오고 자유로워집니다.



법륜 스님의 생활선 법문을 경청하는 광주지역의 스님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딪치는 경계 속에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마음의 작용은 결국은 자기 까르마로부터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분별이 일어나는 것은 객관 사실의 옳고 그른 게 아니고 내 업식에 의해서 이것이 옳게도, 그르게도 분별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 이게 단순히 부부문제가 아니고 이게 공부고 수행이다 이거죠. 부부관계가 천지원수(徹天之怨讐) 같았는데도 그런 이치를 깨닫는 순간, 모든 갈등이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바뀐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놓고 내가 그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의 무지를 깨뜨려서 나의 편견을 벗어던져서 내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무지를 딱 깨뜨리고 한 생각 돌이키면 세상 사람하고 소통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지금 나와 갈등이 있는, 내가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바로 수행의 과제로 돌려야 됩니다. 남편에게 일어나는 내 마음을, 자식에게 일어나는 내 마음을 늘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런 분별심이 휩싸이는구나. 그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분별은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든지, 분별이 없어야 한다든지 이런 단정을 짓지는 마세요. 분별이 일어날 때 다만 분별을 일으키고 있구나, 내가 내 생각에 또 사로잡히구나, 내가 옳다고 고집하구나, 다만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이 지속 되면 탓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나를 봅니다. 언제나 경계에 부딪혀서 나를 보게 되고 항상 거기에 끼어있게 되면 마침내 경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의 원리를 보세요. 닭도 병아리를 까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덤빕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옹호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면 어떻느냐? 돌봐주는 사람은 있는데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픈 마음을 움켜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뭐든지 따라 배우다가 자기가 자기 것으로 하기 시작하는 사춘기 과정에 무조건 부모가 다 해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나이가 스무 살이 넘고, 대학은 나오고, 박사는 땄는데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 자립적으로 살 아무런 능력이 안 돼 있어요.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냉정하게 지켜봐주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하든, 사고를 치든 그것이 다섯 가지의 계율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켜봐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무 살이 넘으면 부모는 자식과의 일체 관계를 끊어줘야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해야 자식이 자립적인 인간이 됩니다. 이 세상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은 자녀의 길을 막아놓고, 자녀가 길이 막히니 부모 밑에 붙어서 평생을 살게 되고,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노인은 맞춰주고, 부부관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자식은 어릴 때는 돌보아 주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 주고, 성년이 되면 정을 끊어주고. 그리고 자식에게 생기는 문제는 나의 문제임을 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불법에는 수행만이 있습니다. 재가든, 출가든 그 수행을 전문적으로 출가해서 하느냐, 재가에서 수행하느냐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스님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늘 세상 속에서 보림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불법을 만나서 견도(見道) 법의 이치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 삶 속에서 보림 하듯이 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내 마음을 들여다 보는 거울로 생각해서 늘 그런 공부를 놓치지 않고 해나가면 오히려 스님들보다 더 빨리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연습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늘 인간관계를 공부거리로 삼아버리면 훨씬 더 빨리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를 변화시켜서 내가 거기 안주하려고 그러느냐? 덕 볼려 하느냐? 아니면 내가 깨쳐서 상대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해가 되려 하지 않고 이해하는 쪽으로, 사랑 받으려 하지 않고 사랑 하는 쪽으로, 도움 받으려 않고 도움 주는 쪽으로 내 삶을 보디사트바(Bodhisattva, 보살)로 전환 할 것이냐. 이 기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법에 돌아가고, 생활 속에서 정진을 해 나가신다면 행복은 추상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일상 속에서 자기 마음이 가볍고, 밝고, 맑아야 그것이 행복이지, 일상을 떠나서 행복인 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힘듦은 있지만 괴로워서는 안 돼요. 괴롭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상사 속에서 정진을 하면 일상적으로 늘 찰나 찰나, 매일 매일 정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진하게 된다면 어떤 돈으로, 지위로 살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여러분이 조금 더 부처님 법에 집중하고 귀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양행선 광주 전남지사장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1. 송광사 춘곡 대화상

인쇄체의 대가… 절식 · 세속식 때와 장소 맞춰 알맞게 행해

춘곡 스님은 승주군 송광면 장안 출신이다. 일찍이 출가하여 이력을 마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가는 인쇄체의 대가였다. 글씨를 써 놓으면 인쇄를 해 놓은 건지 손수 쓴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그 필 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참으로 구름 속에서 벗어난 해와 같네."

"가을 못 속에 드리워진 달입니다."

마치 물 먹은 꾀꼬리가 푸른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아르답기 그지 없다. 2m가 넘는 키에 솜털처럼 부드러운 손발. 2500년전 부처님의 손발이 그렇게 생겼을까. 사람들은 만져보고 10대 소녀 같다고 칭찬했다.

"우리 어머니가 이것 하나는 잘 낳아놨어."

하고 너털웃음을 웃으면 조계산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소리가 크다. 사미가 와서 "큰 손님 오십니다" 하면, "주지스님께 아뢰어라" 하고 하얀 모시 장삼에 빨간 가사를 입고 나와 주지스님 뒤에 서서 손님을 맞는다. 그러면 손님들은 총무스님이 주지스님인 줄 알고 "큰스님 절 받으세요." 하고 3배를 한다.

손님을 접대할 때는 절식은 절식대로 엄하게 하여 아무리 큰 손님이 오셔도 작은 상에 밥상을 놓아 행자들 맨 끝에 앉혀 대접하고, 밖에서 대접할 때는 속가의 법에 따라 환희심으로 대접하였다. 그러므로 한번 다녀간 사람은 늘 스님을 찾아 환담을 즐겼고, 글씨 한 장 받아가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청산백운(靑山白雲), 이것이 무엇입니까?"

"푸른 산은 흰 구름을 붙들지 않고, 흰 구름은 푸른 산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청풍명월(淸風明月)은요?"

"맑은 바람에 밝은 달. 이렇게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겠소."

이것이 스님의 포교정신이다.

'청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 주인이고, '백운'은 흘러가는 것이니 손님이다. 청산과 백운이 한데 어울리면 한 수의 시가 된다. '청천(靑天)에 백운(白雲)이 만리(萬里)에만 통(通)하게 된다'면 그들이 만난 보람은 끝도 갓도 없으리라.

'맑은 바람'은 아내요. '밝은 달'은 남편이다. 어두운 세계에 밝게 빛나는 달빛처럼 밝은 사람과 거기 크게 드러나지 않고 맑은 바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이야 말로 곶감집안이 될 것이다.

고흥 능가사 주지를 지내면서 후배 이산 스님과 같이 얼마나 따뜻하게 지냈던지,

"재영재영우재영(再榮再榮又再榮) 춘곡산천백화만(春谷山川白花滿)."

이라는 시를 지어 가지고 오셨다.

춘곡 스님의 본 이름이 재영이다. "재영재영 부르고 또 불러도 한 없이 불러지는 이름이여, 봄 골짜기 산과 내에 흰 안개가 가득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는 시다.

1962년 봄 필자가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자, 춘곡 스님이 친히 올라오셔서 대학교재 일체를 사주셨는데, 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아리 고개를 넘게 되었다.

"얘야! 너 거기 잠깐 섰거라."

하고 들어가시는 곳을 보니 선술집이었다.

"앗차 늦었구나. 왜 이리 미련하단 말이냐."

하고 따라 들어가 음식을 시켜려 하니,

"아서라. 중옷을 입고 이런데 들어오면 못쓰는 것이여. 그러니 어서 절에 가서 밥 먹자."

하고 막걸리 한 잔을 달게 드셨다.

지금 돌아가신 뒤에는 재사 상에 막걸리 한 통씩을 올려놓지만, 그때 한 잔만은 못한 것 같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장소에 맞춰 알맞게 행하는 것이 약인 것 같다.

"천하총림반사산(天下叢林飯似山: 도처에 총림이요 흡족한 밥이거늘)이요, 발우도처임군찬(鉢盂到處任君餐: 발우 들고 가는 곳에 밥 세 그릇 걱정하리)이라. 황금백벽비위귀(黃金白璧非爲貴: 황금과 백옥만이 귀한 줄 알지 마소) 유유가사피최난(惟有袈裟被最難: 가사장삼 얻어입기 더욱더 어렵네). 짐내대지산하주(朕乃大地山河主: 이 내 몸 중원천하 임금노릇 하건마는) 우국우민사전번(憂國憂民事轉煩: 나라와 백성 걱정 마음 더욱 시끄러워) 백년삼만육천일(百年三萬六千日: 인간의 백년살이 삼만육천 날이지만) 불급승가반일한(不及僧家半日閒: 풍진 떠난 명산대찰 한 나절에 미칠손가)."

하고 '순치황제 출가시(順治皇帝 出家詩)'를 크게 읊으며 만족해 하시던 중노릇을 우러러 바라보며 회상한다.

중노릇만 잘 한다면 어느 곳에 밥이 없고 옷이 없으리! 그래서 스님은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셨다.

바로잡습니다

759호 '지암 이종익(智庵 李鍾郁, 1884~1969)'은 '법운(法雲) 이종익(李鍾益, 1912~1991)'의 오기이며, 사진은 이종욱 스님의 진영임을 밝힙니다. 내용의 혼선을 빚어 죄송합니다.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산사에 피는 야생화 -大, 小 (3단 카렌다)


아름다운 기도-大, 小


깨달음의 길을 간 큰스님-大, 小


이루어주소서-大, 小


보현행자의 서원-大, 小


禪의 미소-大, 小


동자승의 세계-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달라이라마의 행복이야기-大, 小


법음이 있는 산사-大, 小


수행의 길-大, 小


연꽃의 향연-大, 小


아름다운 절 -大, 小


피안으로 가는 길-大, 小


탑이 있는 풍경-大, 小


적멸보궁과 기도처-大, 小


관음의 미소-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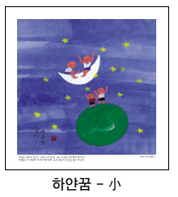

산사에 피는 들꽃-大, 小


선승의 노래-大, 小


깨달음의 미소-大, 小


세계불교 성지순례 -大, 小


염화미소-大, 小


하얀꿈 - 小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大-국 6절 (30×31cm) | 小-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25>

유한한 자원 적절하고 슬기롭게 이용해야

자리이타의 불교경제학 · 물질주의적 근대경제학과 가치관 달라

"경제학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태어난다. 하지만 일단 모습을 드러내면 그것은 자기 발전의 메커니즘에 따라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된다."

이 말은 경제학의 본질을 설명한 말로,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 입문서에 소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미 인간의 손을 떠난 경제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5미터짜리 천장을 설계하는 건축가의 어리석음이 경제학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싶다. 마찬가지로 그 주체이자 최종목적인 인간을 무시한 경제학은 그 순간부터 무효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T 슈마허는 경제의 성장 지향성을 비판하고 있다.

슈마허가 주장하는 불교경제학의 중심과제는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곧 자연과의 조화와 합목적성의 추구이다. 여기서 자연은 경제의 객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한한 자연을 무한히 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슈마허는 무모한 경제성장과 개발을 지양하고 자원을 적절하고 슬기롭게 이용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의 문제는 더 나아가서 생태계의 보전과 형평 문제로 이어진다.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방사능 문제이다. 차라리 그것은 인류사회의 저주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합목적성 문제란 경제학의 최고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당연히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그는 서구 경제학 이론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다. 예컨대 자본장비율과 생산성의 관계와 같은 성장이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경제개발과 성장의 목적은 고용의 증대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곧 가장 필요한 복지욕구의 충족이 가장 긴급한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슈마허의 이러한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물질주의적 근대경제학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불교도는 문명의 본질을 물질적 욕망의 증대가 아닌 인간의 정신적 순수화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참된 인간성은 본래 인간의 일(work)에 의해서 형성되고, 일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존하는 상황속에서 정당하게 수행된다. 올바른 생활 즉, '정명(正命)'은 불교의 팔정도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관련 슈마허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올바른 생활을 위한 일을 할 기회가 없다면, 그는 절망적인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소득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숙련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삶의 영양분과 활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다른 실체로도 대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경제학자는 완전고용이 경제적인지 아닌지, 혹은 안정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완전고용 이하의 수준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경제적이 아닐까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만 한다. 경제학자는 이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수리분석에만 집착하는 물질주의자다. 물질주의자는 주로 재화에 관심을 갖지만, 불교도는 주로 해탈에 관심을 갖는다.



그림 · 김필헌

하지만 불교도는 중도주의이기 때문에 물질적 복지를 결코 적대시하지 않는다. 해탈의 길을 막는 것은 부(富)가 아니라 부에 대한 집착이며, 유쾌한 일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에 탐닉해 지나치게 갈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경제학의 기초는 절제 즉, 간소화에 있다."

이러한 슈마허의 불교경제론에 이어서 필자의 논점을 추가한다면 다음과 같다.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경제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외부성(外部性)'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소비생활이 왕성해진 결과 전통적으로 가치 있는 생활습관이 상실되었다고 하자. 전통이 사라진 것은 그 사회에 대해서는 손실일지 모르지만, 그 손실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경제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외부성'인 것이다.

이 같은 경제학이 지닌 한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사회의 유대를 파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에는 '가격'이 붙지 않으므로 시장활동이 문화적인 가치를 파괴해도 경제적 손실로서 계산되지 않는다. 문화손실의 비용은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점점 전통문화가 파괴되어도 경제학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류경제학이 상정하는 '세계'란 '화폐적'으로 평가된 합리성에 기초를 두고 개인의 자유의사로 행동하는 '경제인(호모이코노믹스)'에 의해 구성된 시장이다. 이 시장은 '가격'이 붙는 상품만 다룬다. 가격이 붙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비경제적인 것, 예를 들어 문화전통이나 자연환경 같은 '외부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이나 환경 어메니티(amenity, 살기 좋은 환경이나 매력있는 환경)의 파괴나 노동의 소외로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것 역시 경제학의 대상 밖이다.

예를 들어 '자기희생의 정신(利他行)'에 대해서도 경제학이 다루는 경우는 '이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될 때 뿐이다. 모든 것은 이익과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이 근대경제학의 기본인 것이다. 이것을 부연하면, 만약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전통을 지키고 싶다든가, 혹은 자연환경을 지키고 싶다면, 그런 운동이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는 장치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논리다.

그러나 근대경제학 이론에서는 전호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지수(GNH)의 사상에서 '부탄'이 주창하는 그런 발상이 없다. 부탄을 두고 문화전통의 보호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매스미디어도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선진국의 정보를 나름대로 얻고 있다. 글로벌환경에서 다소 불편하고 다른 나라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구미 선진국의 물질문명을 따라가기 보다는 전통적인 부탄사회의 생활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데에는 국왕자신이 국민들에게 GNH의 정신을 설득하고 다니는 등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국왕이 솔선해서 군주제를 폐지하고 입헌제로 이행한 데에도 나타난 것처럼, 어디까지나 '국민의 총의'를 결집해 독자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탄의 정책을 지지하고, 부탄을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늘어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㉕ 이름

경주 어느 주택가에서 수도검침원이 검침하러 한 집에 들렀다가 빨래판으로 사용되고 있는 돌에 각문(刻文)이 있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니 그것이 200년 전 사라져 행방이 묘연했던 문무왕릉비의 깨어진 윗 조각이었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발견자는 신라문화동인회라는 경주 문화사랑 동인모임의 회원이었다는데, 이 분의 호기심과 열정을 일깨우고 이에 전문성을 더해준 분들이야 말로 진정한 코치임에 틀림 없다.

중화사상을 자처하는 중국인, 특히 학자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세계 각국이 모두 라틴어에 기원을 둔 공통 원소기호를 영자 표기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알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소 하나 하나에 한자(漢字) 표기를 고집하고 있는데,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면 이에 해당하는 새로운 한자를 새로 만들어 대응한다. 국제화 시대, 특히 학문의 국가 벽이 허물어진지 오래된 현대과학의 시대에 이르러 이와 같은 국수주의의 대가로 치뤄야 하는 여러 직 · 간접 비용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바꾸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 바탕을 흐르는 생각은 우주 만물을 이루는 근본 요소는 세계와 우주의 중심인 중국어로 표시돼야 한다는 입장 위에 서있다. 이렇게 자부심 강한 중국인이 자기네 나라 말의 자전(字典) 중 남의 나라에서 편찬한 사전을 표절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겠는가?

허달의 불교와 코칭

'부처' 떼어버리고 가르침만 보여주라

필자도 소장하여 자주 애용하고 있는 모두 열두 권의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이 바로 문제의 사전인데, 중국이 자랑하는 <강희자전(康熙字典)>보다 더 방대하고 정밀하다는 것을 중국학자들도 인정하고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인 모로하시 하쓰지라는 분이 눈을 너무 혹사해 한쪽 눈을 실명하면서까지 일생을 바쳐 편찬한 것인데, 그 편찬 동기가 도쿄고등사범 시절의 담임 마쓰이 간지 선생의 "한자 사전은 쓸만한 것이 없으니 한번 만들어 보라"는 한 마디였다니 마쓰이 선생은 대단한 코치, 모로하시 씨는 대단히 진국인 고객이었던 셈이다.

동학사에서 강백(講伯) 스님들을 모시고 '리더십' 소개를 하고 난 2006년의 가을이었다. 스님들과 포교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교를 가르치는데 불교라는 이름을 떼어버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나누게 됐다. 세상 만사 그저 그러함이 착(着)을 떠나면 바로 불법이니, 부처 떼어버리고 가르침만 보여주는 것도 모든 중생에 대한 설법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들었다.

코칭 역시 그러하다. 상대가 누구든지 그를 배려하고 경청하며, 그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질문을 그의 언어로 고안해 물어주고, 그를 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정/칭찬해 용기를 북돋으며, 때로 그의 고착된 사고에 도전하여 기왓장 갈아 거울 만들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야와 시각을 바꾸어 주는 코칭적 삶의 방식을 일상(日常)으로 삼게 된다면 굳이 코칭이란 이름을 빌어 번거로움을 자청할 필요가 없이도 시너지를 이루는 상의성(相依性)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아내가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에 따라가서 머리 커트 하던 날, 내 머리를 만져주던 쥴리 라는 애칭의 미용사 아가씨에게 물었다. "헤어 디자인 공부는 어떻게 한다지?" 대답 없이 입을 손으로 가리며 웃었는데, 아마도 성찰 질문이 되었을 것이다.

'금배지 차라리 떼어버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금배지의 문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을 꾸짖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러고 보니 20~30년 전까지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다니던 대학생들의 배지가 모르는 새 사라져 버렸다. 코칭이 삶의 방식이라면, 코치도 이처럼 배지를 떼어버려야 진정한 코치가 되는 것이 아닐까?

공자의 정명(正名)사상이란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이다. 군군신신(君君臣臣) 부부자자(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이름과 실질을 부합시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혹자는 이름을 바르게 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이름에 부합하는 실질이 없으면 바른 이름이라는 것이 허상을 만들 뿐이니 경계해야 한다고 풀이 하기도 하는데, 내 소견으로는 다만 선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 하겠다.

더 들어가면 모두 무명(無明)의 여섯 가지 거친 번뇌 중 계명자상(計名字相)의 미혹일 뿐이니 이를 떼어버려야 진실에 접근하는 길이 트인다는 뜻이 자못 자명하다 하지 않겠는가?

■ 한국코칭센터 고문





과거 들먹이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

정찬주 구도 소설 – 혜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48〉

제12장 지리산(1)

대연 거사는 혜암스님이 머문 지리산과 태백산 중에서 어느 곳을 먼저 갈까, 하고 망설였다. 지리산에는 혜암스님이 정진한 세 곳의 암자가 있었다. 보조국사가 깨달음을 얻었던 상무주암과 혜암 스님이 천신만고 끝에 창건한 문수암, 일찍이 조선시대 중기에 청매조사가 주석했던 암자를 복원한 도솔암 등이었다. 그리고 태백산에는 선객들이 최고의 명당으로 쳤던 각화사 동암이 있었다. 동암은 금봉암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대연 거사는 왠지 지리산으로 마음이 끌렸다. 자신의 공방에서 거리가 가까운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지리산의 유장한 산세가 늘 눈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며칠 전 강진 백련암으로 가 혜암 스님의 상좌 여연스님을 만나 차를 몇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연스님과 나눈 다담 중에 혜암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상무주암에서 수행했던 처절한 일화가 잊히지 않았던 것이다.

대연 거사는 마천면 농협마트 마당으로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했다. 산길을 안내해주기로 한 정견 스님과 만나기로 이미 약속해 두었던 것이다. 정견 스님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농협 마트 마당에는 주차된 차가 한 대도 없었다. 불화를 그리는 도행 스님의 소개로 만났는데, 정견 스님도 역시 혜암 스님의 상좌였고 도솔암을 복원할 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선객이었다.

대연 거사는 정견 스님을 기다릴 겸 농협마켓 안으로 들어갔다. 문득 암자 불단에 과일이라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과일을 고르고 있는 동안 어느새 정견 스님이 다가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사지 마십시오."

"정견 스님이시군요. 불단에 올리려고 하는데 무슨 과일을 사야 됩니까."

"산길을 오르기 힘드니까 사과나 배 같은 것으로 몇 개씩만 사십시오."

세 군데 암자 불단에 올리려면 적어도 사과나 배를 9개씩은 사야 했다. 정견 스님이 랩으로 포장된 사과와 배를 골라 계산대로 가지고 갔다. 그 사이에 대연 거사는 스님용 음료수로 요구르트 묶음을 서너 개 샀다.

"눈이나 비가 좀 와야 합니다."

그러나 도행 스님은 달리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가뭄 탓도 있지만 나무들은 겨울 날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자기 몸 안의 수액을 뿌리로 내려버리거든요. 비워버린다 이겁니다. 사람도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다가는 재앙을 만나거든요. 하하하."

상무주암 마당 앞의 샘도 말라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암자로 들어가 불전에 사과와 배를 놓고 두 스님이 삼배했다. 대연 거사도 뒤따라 했다. 그리고 난 뒤 암주인 현기 스님에게 절했다. 정견 스님이 현기 스님에게 인사의 말을 했다.

"스님, 날이 좀 가문데, 상무주암 형편은 어떻습니까."

"무를 묻으려고 사람 키만큼 땅을 파보았지만 땅속에 물기가 없어요. 이런 가뭄이 계속된다면 재앙이 오지 않겠습니까."

현기 스님은 생태계의 파괴를 염려하며 산에 자라는 나무들의 고사(枯死)를 걱정했다. 대연 거사도 인사의 말을 했다.

"스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잡니까. 기자들은 내게 무슨 말을 들으러 오지만 나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얘기를 글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글이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대연 거사는 현기 스님이 왜 자신을 기자로 보는지 의아해 했다.

"저는 도예갑니다. 스님께서 어느 책에선가 상무주란 부처님도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뜻이고, 나무는 한 생이지만 숲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이 생각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 틀린 말입니다. 언어는 성색을 좇습니다. 성색이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언어로 표현한 것은 여여한 것이 아닙니다. 숲은 여여일 뿐입니다."

유발상좌인 듯 머리를 깎지 않은 젊은 거사가 차를 돌렸다. 공양주보살이 떡과 과일도 내왔다. 대연 거사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스님, 스님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을 지금 정정하시니 그것만으로도 여기 온 보람이 있습니다."


그림 · 최문정

대연 거사 일행 지리산 상무주암 도착
현기 스님으로부터 혜암 스님의 수행담 들어

밖에는 도행 스님도 도착하여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견 스님이나 도행 스님이나 사륜구동의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 '지리산에 사는 스님들이구나!' 하는 느낌이 새삼스럽게 풍겨왔다.

대연 거사와 도행 스님은 정견 스님의 차에 탔다. 마천에서 영원사 입구까지는 길이 잘 닦여져 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스님, 상무주암에는 지금 누가 살고 계십니까."

"현기 스님이 정진하고 계십니다. 상무주암에 계신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산중암자만 사시는 분으로 세상에 잘 나서지 않는 선지식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던 도행 스님이 말했다.

"암자가 살기는 좋지요. 부처님 법음 같은 바람소리만 듣고도 하루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정견 스님도 한 마디 했다.

"혜암 스님께서는 절대로 혼자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너 명 뜻이 맞는 사람끼리 정진하기에 암자처럼 좋은 곳도 없습니다."

산길은 가파른 데다 낙엽이 덮여 미끄러웠다. 초입부터 경사가 심해 대연 거사는 금세 숨이 차고 다리가 뻑뻑했다. 그러나 산사람이 다 된 정견 스님과 도행 스님은 비호처럼 앞서 올라갔다. 대연 거사는 뒤쳐진 채 걸었다. 며칠째 비가 오지 않은 날씨 탓에 골짜기 물은 말라 있었다. 목을 축이고 싶었지만 옹달샘도 바닥이 드러나 보였다. 앞서 가던 정견 스님이 대연 거사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원래 상무주암 쪽은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산길에 흙먼지가 날릴 정도입니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가을가뭄이 느껴졌다. 솔잎들이 푸른빛을 잃고 잣나무 잎처럼 흰빛을 띠고 있었다. 아직 떨어지지 못한 활엽수들은 하나같이 오그라들어 있었다.

"스님, 이곳은 가뭄이 심한 모양입니다."

"자꾸 과거를 들먹이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리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앞뒤가 어디 있습니까."

일행은 잠시 침묵했다. 현기 스님이 자꾸 대화를 잘라버리기 때문이었다. 또한 스님의 말씀에 일행은 갑자기 주눅이 들어 대꾸도 못했다. 현기 스님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어느새 법문을 하고 있었다.

"성색을 좇지 마세요. 언어만 성색이 아니라 권력, 명예 같은 것도 성색입니다."

현기 스님은 상무주암에서 체험한 것을 예로 들었다. 상무주암 창문에 나무 그림자가 어리면 새들이 자꾸 날아와 낙상하는데, 새가 나무 그림자를 좇는 것과 사람이 성색을 좇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경책했다.

일행 모두가 비로소 바르게 앉아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관음신앙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불문문(不聞聞), 무설설(無說說)이 관음신앙입니다. 보지 않고도 보고, 설하지 않고도 설하는 것이 관음신앙입니다. 도는 밖으로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현기 스님은 옛 스님의 얘기를 또 예로 들었다. 암자에 사는 노승이 학인에게 '무엇 하러 왔느냐'는 물음에 학인이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노승이 '왜 신발을 닳게 하느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옛 스님이 하고 싶은 말은 학인의 신발을 닳지 않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즉 무설설 불문문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도는 밖에서 구하지 않고 설하지 않는 설함에, 듣지 않는 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연 거사는 깔깔한 현기 스님의 정곡을 찌르는 법문의 매력에 빠졌다. 현기 스님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대연 거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지 '믿음'에 대해서도 스님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다.

"믿으면 부처님이 있고, 믿지 않으면 부처님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없는 세상을 말세라고 합니다."

현기 스님의 독특한 해석이었다. 말세를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었다. 선(禪)도 마찬가지라며 법문을 계속했다.

"선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선입니다. 수행이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유발상좌가 맞장구를 쳤다.

"믿음의 순도가 100%라면 깨달음의 필요충분조건은 이미 갖추어진 것이겠습니다."

대연 거사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빼기를 하십시오. 참선은 빼기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빼기입니다. 자꾸 더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빼기는 곁가지를 자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살인검 활인검이듯 자르고 죽이는 것이 불교의 지혜입니다."

정견 스님도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질문했다.

"믿음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선이라면 교(敎)는 무엇입니까."

"교는 닦고 난 뒤에 받는 것입니다."

현기 스님의 대답은 단호하고 명쾌했다. 그러나 대연 거사는 솔직히 알쏭달쏭했다. 스님이 구사하는 용어는 현란하지 않고 쉬웠으나 그 뜻은 심오하기만 했다.

"수행자나 예술가는 천애고아가 되어야 합니다. 더뺄 것이 없는 고독한 사람이 되어야만 수행하는 데 고생을 덜합니다."

도행 스님이 화제를 바꾸었다.

"스님, 태백산 동암에서 혜암 스님과 정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97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혜암 스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큰스님은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신도들을 좋아했고, 그러니 신도들도 스님을 따랐습니다. 신도들이 오면 큰방에 들게 하고 밤새 법문을 했습니다. 뒷방으로 물러난 우리 후배들은 불편했습니다. 큰스님은 우리들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신도들이 뒷바라지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큰스님은 경제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동암을 금봉암이라고 했습니까."

"각화사 서암에서 동암을 보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자락이 봉황이고 암자는 알과 같이 보입니다. 금봉이란 도를 깨친다는 상징입니다. 저녁 햇빛이 비추는 아름다운 동암을 보면 옛 도인들이 자리를 참 잘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허나 지금 가보면 암자 위치를 그대로 하지 않고 불사를 하여 그윽한 맛이 없습니다. 아쉬운 일입니다."

> "신도들에게 법문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시키려고 한 것이지 살림살이 걱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행은 현기 스님이 찻잔을 밀치는 순간 약속이나 한 듯 일어섰다. 현기 스님은 두 스님을 문밖까지 나와서 합장하며 배웅했다.

정견 스님은 상무주암 앞에 자라는, 혜암 스님이 심었다는 30년생 소나무들을 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더니 상무주암에서 문수암 가는 길로 들어서서야, 현기 스님이 혜암 스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정정했다.

"우리스님께서 신도들을 맞이한 이유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고마워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신도들을 데리고 밤새 법문하신 까닭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키려고 한 것이지, 살림살이를 걱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영봉 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트레킹 동행기** 〈상〉

현대불교신문사와 네팔 카트만두 소재 세종한국문화 언어교육원이 공동 주최한 '영봉스님과 함께하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이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중앙 히말라야 피케이(Pikey)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비구스님 4명과 거사 3명 우바이 7명 등 14명이 함께 한 행선 트레킹은 불교계 언론사상 처음으로 진행됐다. 영봉 스님은 20여 년 동안 히말라야 지역을 샅샅이 등반한 노하우를 최대한 반영해 행사를 리드했다.

보름간의 일정 가운데 2일은 항공편으로 2일은 버스로 이동했고 2일은 카트만두 시내 유적관광을 했다. 따라서 온전히 행선을 한 것은 9일이었다. 9일간의 행선 트레킹을 일정별로 요약, 2회에 걸쳐 연재 한다.





지리에서의 출발. 옆 사진은 네팔 여고생들.


소녀들이 인사한다. "나마스테".


지리의 가게들.

길을 걸으며 길은 본래하나였음을 깨닫다

#나마스테, 땟국물 흐르는 얼굴들

11월 8일.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있었던가? 5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졌다. 나름 긴장하고 있음이다. 비행기로 하루, 버스로 하루 그렇게 이틀을 이동해 이 적막한 산속 마을에 왔다.

마을 이름은 '지리', 해발 1900m 지역이다. 정말 '지리~'하게 온 곳이다. 카트만두에서 200Km 가량 떨어진 곳이라는데 버스로 9시간 가까이 왔으니 말이다. 높은 산을 몇 개나 넘어 왔는지 알 수 없다. 하긴 높은 산이라고 말했지만 이곳에서는 이름조차 얻지 못한 그저 그런 산들이다. '산의 왕국' 네팔에서 해발 3000m 이하의 산들은 이름도 없기 일쑤다.

잠결에도 여전히 신기한 것은 어제 환하게 피어있는 벚꽃을 봤다는 것이다. 이 가을에 웬 벚꽃? 어디 그 뿐인가? 어느 마을에서는 쟁기로 밭을 가는 농부를 봤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꼬도(우리나라의 피 같은 작물)를 수확하는 풍경도 봤다.

봄과 가을의 풍경을 하루에 보다니. 아니다. 멀리 하얗게 눈을 덮어 쓰고 성자처럼 서 있는 설산을 볼 때의 그 감탄사도 생생하다. 봄과 가을과 겨울을 하루에 다 본 셈이다. 그럼 여름은? 풀풀 먼지 나는 길을 달리는 차안에서의 그 답답함과 등줄기를 적시던 땀이 여름이라면 어제 하루 4계절을 다 겪은 것이 분명하다.

침낭에서 몸을 뺐다. 무슨 애벌레처럼 침낭에 웅크리고 잤던 그 방의 풍경 또한 한국에서라면 말도 안 된다. 침대 두 개가 놓인 방의 크기는 한 평 반 정도. 침대 넓이는 60Cm을 넘지 않고 길이도 키가 조금 더 크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소방법이나 건축법이라면 백번은 더 철거당했을 이 4층짜리 목조주택이 게스트하우스다. 간판에는 롯지나 호텔이라는 이름을 함께 쓰기도 했다. 가이드가 서툰 한국말로 염장을 지른다.

"이제부터 이 집 보다 좋은데서 잠자기도 함들 겁니다."

아침 운동과 식사를 하고 출발이다. 첫 걸음을 떼는 순간을 기념하기위해 단체 사진을 한 컷 찍고 지저분하고 얼룩덜룩한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본격적인 트레킹이다. 행선이라 했는데 '화두'는 무엇으로 한다? 행선도 선이니 화두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영봉 스님, 명색이 행선 트레킹인데 화두 하나씩 들고 가야죠?"

"그냥 걸으세요. 걷기도 힘들텐데 들긴 뭘 들겠다는 겁니까?"

황당한 대답이지만 그게 명답이란 것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 30분정도를 걸으니 오르막길이 이어졌다. 산 하나를 넘는 것이 첫날의 일정이다.

"나마스테~"

이 인사말이 갖는 아름다운 의미를 아는가? '나마스테- 손 모아 당신의 영혼이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사인가? 그 아름다운 인사를 처음 받았다. 길갓집의 어두컴컴한 부엌을 배경으로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꼬질꼬질한 얼굴에 눈망울만 보이는 듯한 아이는 두 손을 모은 채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마스테~"

인사를 받긴 했는데 찜찜한 이 느낌은 뭐지? 그 짧은 순간의 혼돈을 해결해 준 것은 그 아이의 뒤에 서 있는 사내아이 손에 들린 사탕이었다. 이로부터 나는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훨씬 노련하게(?) 받을 수 있었다. 단, 주머니에 사탕이나 초콜렛이 없으면 그 인사를 못들은 척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날 길에서 체득한 것은 나마스테 뿐이 아니었다. 사람과 소와 염소 심지어 돼지도 함께 쓰는 길이었으므로 그 길 군데군데를 장식한 배설물들에 익숙해야 했고 밟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했다.

길은 하나일 때 편하다. 어쩌면 길은 본래 하나일 것이다. 사람과 짐승의 길이 다르고, 사람끼리도 저마다 다른 길이 있다고 믿어 온 문명사회에서의 삶은 얼마나 많은 번민과 갈등으로 이어지는가? 두텁게 포장해버린 도심의 길 위에서 얼마나 무참하게 많은 것들을 포장하고 숨기며 하루하루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애써 왔던가? 좁은 흙길에 철퍼덕 싸갈긴 쇠똥이나 점점이 뿌려진 염소똥을 바라보며 길은 모름지기 차별 없이 함께 가는 것임을 생각했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수행하고 길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길에서 평생 진리를 설하시고 길가 나무 그늘에서 열반에 드신 그 성인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그 길에는 쇠똥이나 염소똥이 없었을까? 부처님이 걸으신 길은 인간의 길이었고 자연의 길이었고 무한의 길이었으리.

길을 걸으며 길을 생각하는 동안 목이 말라왔다. 길가에 혹은 롯지 앞마당에는 등짐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단이 쌓아져 있다. 포터들은 거기에 가지런히 바구니를 올려놓고 몸을 쉰다. 배낭을 올려놓고 물병을 꺼내 뜨거운 물 한잔을 마시는 즐거움도 트레킹에서 배우는 행복 중의 하나다.

"내가 말이야. 수 십 년 걸망 메고 선방을 다녔는데 요새는 그놈의 차를 몰고 다니느라 두 다리를 쓸 일이 없었더니 오늘 아주 힘드네그려."

H스님의 솔직한 넋두리에 일행 모두가 묵언으로 동의했다. 좁은 산길, 두 다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오후의 내리막길은 두 개의 스틱이 없다면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손목에 조여 맨 스틱 끈에 의지하면 몸무게의 3할 이상을 스틱이 지탱해 주니 그만큼 힘이 덜 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스틱 보다 더 힘을 보태 주는 것은 풍경이다. 공기가 맑은 탓인지 멀리 있는 것들이 매우 가깝게 보인다. 돌려 말하면, 가까운 듯해도 막상 가보면 제법 먼 거리다. 먼 산들의 우람한 기운이 가슴팍으로 밀려오고 하염없는 다랑논들의 구불구불한 곡선과 셀 수 없이 층을 이룬 그 자자손손의 근적이는 생활력을 엿보는 순간마다 새로운 힘이 솟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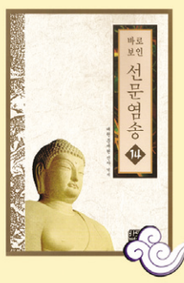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가파른 경사로를 3시간가량 내려간 곳에 제법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강이 있고 강가에 조그만 롯지 타운 하나가 숨어 있었다. 긴 출렁다리를 건너 도착한 그 마을의 이름은 시발라야. '쉬바 신의 다리'라는 의미란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넌 그 쇠로된 출렁다리가 쉬바신의 다리인가보다. 첫 날인만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걸었다. 낮기온은 26도 내외로 걷기에 쾌적했다. 그나마 다리가 뻣뻣해 오는데 오후는 그냥 쉬라니 이게 웬 떡이냐 싶었다.

몸의 컨디션 유지와 고소와 일교차에 대한 적응 등을 고려해 하루의 걷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트레킹의 중요한 노하우다. 심지어 식재료의 성분과 음양오행에 맞춘 기능을 따지기도 한다.

☞19면으로 계속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 동요 속의 마을 같은 반달의 좁은 논둑길을 지나는 트레킹 동참자들. 뒤로 포터들이 따라오고 있다.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 30권중 14권 출간! 최초로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황토삼백초는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신종 플루가 걱정되는 지금
황토삼백초가 내 곁에 있어 좋다!!
삼백초는 항암과 성인병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멸종의 수난을 겪은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식물 177호입니다.
(주)천등소리에서 국내 최초로
대량 재배에 성공한 귀한 식물입니다.

◆황토삼백초는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습니다.
◆황토삼백초 제품은 발효대사과정에서 중금속, 독성물질, 잔류농약 등을 무력화시켜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황토삼백초 제품이나 차를 꾸준히 드시면 힘이 넘칩니다.
(차, 환, 추출액, 발효원액 등)

참고문헌 : 삼백초 건강법, 삼백초 효소건강법, 증약대사전, 당본초, 영남채약록

☎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 본사 (055)945-2976, 2676, 2679
· 대구지사 010-2531-4785 / 인천지사 011-336-5843
· 서울지사 010-3119-1911

황토삼백초는 (주)천등소리의 등록상표입니다.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고산지대 길가에 모셔진 불탑과 룽따.


다랑논은 네팔을 네팔답게 인식시켜 준다.


길을 걷다 돌아보면 히말라야 설산이 장엄하다.


반달에서 마일리로 가는 쇠줄다리.

한걸음 한걸음 새로운 풍경에 감탄사 연발

☞18면에서 계속

#잘 먹어야 잘 걷는다

11월 9일. 트레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것이다. 어디서나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겠지만 특히 트레킹에서 음식이 부실하면 피로도 빨리 느끼고 고소증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섣불리 현지식에 도전하기보다는 전문 식사준비 팀을 대동하는 것이 좋다.

우리 식사준비 팀의 대장은 까르마 텐지. 30대 중반의 그는 한국어를 한국 사람만큼 잘 한다. 서울의 한식 요리학원에서 6개월을 공부했고 요리사 자격증도 있다. 경기도 어디 공장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그냥 한국사람 대하듯 편하게 대할 수 있다. 그가 이끄는 6명의 키친보이들은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솜씨를 발휘해 식사 때마다 일행을 감동시켰다. 미역국 황태국 등을 적절히 준비했고 찌개종류도 그럴듯하게 끓였다. 현지의 싱싱한 야채들을 구입해 겉절이를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매 끼니대마다 숭늉을 준비하는 센스까지.

시발라야는 치즈가 유명한 곳이다.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크(야크는 수컷이고 암컷을 나크라 함)의 젖을 이용해 만드는 이곳의 치즈는 유럽에서도 알아준다고 한다.

두 번째 날도 아침 7시 전에 운동과 식사와 짐 챙기기가 끝났다. 커다란 산 사이의 강을 끼고 형성된 마을 시발라야를 뒤로 하고 곧바로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전날 비교적 많이 쉰 탓인지 모두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산도 다르고 마을도 다르고 거기 사는 사람도 다르지만 길은 매양 그 길이 그 길 같다.

하지만 길은 한 번도 같지 않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열어주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발로 길을 걷는다는 것의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머리를 감지 않아도 휴대폰이 없어도 하루가 즐겁다는 것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이다.

오전 내내 걸어도 산 정상에 다다르지 못했다. 기온은 어제처럼 26도 내외정도. 중간에서 점심을 먹고 두어 시간을 더 오른 고갯마루에 롯지들로 형성된 타운이 있었다. 이름은 대우랄리. 해발 2700m다.

마을 가운데 두 줄로 길게 만들어진 마니탑이 있다. 마니탑은 돌로 쌓은 단위에 '옴마니반메훔'을 새긴 편편한 돌판을 모셔둔 것이다. 그 옆에는 긴 장대에 경전을 새긴 깃발을 매단 초르텐과 역시 경전을 새긴 깃발을 줄에 달아 펄럭이게 하는 룽따가 장엄되어 있다. 바람이 많은 고갯마루여서 바람을 타고 부처님의 진리를 보다 먼 곳으로 날려 보내려는 고운 심성들이 그렇게 치성을 드리며 세월을 이어 온 것이리. 마니탑과 초르텐 룽따는 마을마다 집집마다 거의 다 갖추고 있다. 어쩌면 그 종교적 상징물이 히말라야의 가슴에 펄럭이는 이름표일지도 모르겠다.

종교란 참으로 소박한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지나치게 거창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지나치게 형식을 갖추면 이미 종교의 본질과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적어도 마니탑과 초르텐을 지나치는 순간만은 아무런 장식도 없이 그저 마음속에 '옴마니반메훔' 여섯 글자의 진언만 아로새기고 싶어지는 것이다.

대우랄리를 넘어 아래로 꽃히듯 내리막길로 두어 시간. 마치 동화속의 마을 같이 아름다운 마을이 기다리고 있었다. 반달이라는 이 마을의 중간에는 아담한 절도 있었다. 멀리 우리의 목적지인 피케이 봉이 보이는 이 마을은 비교적 넓은 구릉을 안고 있다. 벚꽃이 드문드문 피어있고 차나무가 올망졸망 자라고 있다. 초지에서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동네다. 해발 2250m에 이런 마을이 있다니 역시 히말라야다.

우리가 묵을 롯지가 바로 절 옆이어서 더욱 좋았다. 절은 50대의 노스님과 20대의 젊은 라마가 지키고 있었다. 법당 앞에는 커다란 스투파가 양쪽에 서 있었는데 젊은 라마는 "왼쪽의 둥근 모양은 여성을 오른쪽의 사각형은 남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티벳의 성인이 이 절을 지어 카트만두의 큰 사원에게 기증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며칠째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몰골이지만 부처님께 합장하고 삼귀의 반야심경 사홍서원으로 간략하나마 예불을 올리고 하루를 마감하니 마음이 홀가분했다.

#똥바, 창 그리고 럭시

11월 10일. 또 하나의 산을 넘고 산등허리를 휘돌며 하루를 마쳤다. 해발 2050m의 마일리라는 동네는 지금까지 지나온 동네들 가운데 가장 척박하다. 강가나 평지에 형성된 마을이 아니고 가파른 산비탈에 붙은 산골마을이다.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자야 했다. 집으로 이어지는 전기선은 보이는데 어쩐 일인지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램프 빛에 의존해 밥을 먹어야 했다.


불불레 가는 길 3200m지점의 마니탑.

두엄 냄새가 풀풀 풍기는 마당가에서의 하룻밤. 그래도 별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이 우수수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산골마을이라 밤도 일찍 찾아왔다. 저녁을 먹고 나니 어느새 어두웠고 별이 창창했다. 경주에서 온 각해거사와 광주에서 동참한 초암거사는 한참동안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 이 두 분은 이번 트레킹에서 처음만나 함께 방을 쓰게 됐다.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지리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사람이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동갑임을 확인했다. 이역만리에서 그렇게 만나는 인연도 있는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에 뭔가 허전하다. 오늘부터 금주령이 떨어진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3000m 이상을 오르게 되므로 술과 양치질과 세수를 금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당부도 있었다. 히말라야는 아무에게나 그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리에서부터는 밤마다 조금씩 반주를 했다. 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똥바나 쌀로 빚은 막걸리인 창, 그리고 꼬도를 증류한 소주인 럭시 등은 화학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네팔의 순수민간 조제주다. 이 술들은 하나같이 뒤끝이 좋다. 똥바의 경우 임산부도 마신다니 술이 아니라 약인 셈이다. 일행을 리드하는 영봉 스님은 "오직 정상에 무사히 오르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했지만 '맨 입'에 잠을 청하려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은 사실이었다.

#언뜻 보이는 설산의 신령스러움

11월 11일. "밥 많이 드십시오. 오늘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오늘은 힘든 코스라는데 일행들은 별 반응도 없다. '힘들어 봤지 걷는 거지 뭐 별수 있어?' 이런 반응이다. 사람은 참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어느 정도 적응되면 배짱도 생기나보다.

과연 가파른 길이었지만, 돌부리를 차면서 오르다가도 한 숨 돌리려고 서면 이내 감탄사가 쏟아진다. 하염없는 다랑논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다. 올라갈수록 먼 곳의 산들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오고 햇살이 비치는 산과 그늘진 산의 명암이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보이기도 한다.

3시간가량 꾸준히 올라간 곳부터는 원시림이다. 네팔의 국화인 라리구라스 꽃나무들이 밀림을 형성하고 있다. 아름드리 전나무와 비자나무들도 숲의 주인으로 서 있고 우기 때의 무성함을 증명하듯 이끼들의 형체도 나무마다 이불처럼 덮여 있다. 꽃이 필 때 이 밀림을 통과하면 온통 꽃향기에 취해 정신이 몽롱할 지경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에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그러니까 라리구라스 꽃이 피면 이 길은 그야말로 난리부르스가 된다 이거죠?"

"…."

가이드가 '난리부르스'라는 속어를 알아들을 리 없지. 아무튼 그러한 꽃 터널은 이 트레킹 코스에서 4일이나 이어지게 된다니 봄철의 트레킹이 더 멋질 것 같다.

오전을 꼬박 걸어 어느새 해발 3200m에 이르는 고지로 접어들었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피케이 봉이 저만치 다가와 있다. 민둥산이다. 밀림과의 경계가 확연하다. 바람이 거세다. 일행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멀리 조망되는 히말라야의 풍경에 넋을 놓았다. 긴 마니탑을 지나며 발아래에서 뭉글거리는 구름 아래는 어떤 마을이 있을까 생각했다.

물이 치솟아 오른다는 불불레. 해발 3200m의 추운 마을, 엉성한 롯지 뒷마당에 텐트를 치고 윙윙대는 바람소리를 이불삼아 잠을 청하면서도 가슴은 설렌다. 이제 내일이면 베이스 캠프에 가고 그 다음날이면 피케이 봉 정상에 오를 것이므로. 과연 히말라야는 우리에게 그 장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계속>

네팔=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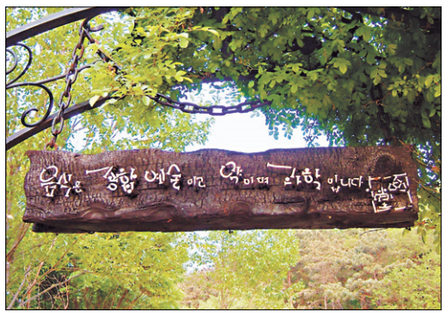
55 밥은 공양-방랑식객, 임 거사 편<2>

곰탕에 꽃 한송이 꽂는 '환상 공양'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식재료를 찾아 전국을 떠도는 임 거사를 다시 만났다. 산으로 들로 염전으로 팔도 산천초목을 방랑하며 만난 사람들 속에서 새롭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는 그의 여정이 아름답고 반가워 TV를 껴안을 뻔 했다. 그것이 그와의 두 번째 만남이었다.

임 거사는 세계적인 자연요리연구가로 명성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러한 수식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말이 있다. 곰탕에 꽃 한 송이를 꽂는 '밥-도인'이다. 그가 지은 밥에는 사람들의 허한 뱃속은 물론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진실한 인간애가 녹아있다. 그러하기에 실로 '공양'이다. 공양…. 절간에 다녀본 사람이라면 너무나 친숙한 이 말에 그토록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있을 줄이야, 사람들은 그가 지어낸 밥을 통해 공양의 의미를 진정 이해했다.

수년 전, 그가 운영하는 밥집(산당 031-772-3959)에 처음 찾아갔을 때도 그러했다. 당시 동행한 지인 중에 임 거사를 만날 일이 있어 물어물어 식당까지 찾아간 날, 그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중이었고 단아한 인상의 그의 아내는 뜰 앞에서 작은 꽃들을 심고 있었다. 미국에서 온 지인이 임 거사를 만나려던 이유에는 사연이 있었다. 그가 미국에 있는 한 절에 와 주변에 난 풀을 뜯어 공양을 지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음식을 먹어본 한 미국인이 깊은 감동을 받아 한국에 가면 대신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란다. 그러한 연유로 그날 임 거사와 그의 요리를 만나게 됐다. 그는 오래도록 시간을 내어 자신의 음식철학과, 언젠가는 아프리카로 건너가 그곳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아름다운 꿈에 대해 들려주기도 했다. 호기심 많은 내게 그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화두와 같은 묘책도 일러주었다. 그것을 일컬어 그는 '환상법'이라 했고, 환상법의 비책 중 하나가 바로 '곰탕에 꽃 한 송이 꽂기'였다. 그 말은 나의 뜬금없는 질문에서 이어졌다.



임 거사의 밥집 간판에는 ('음식은 종합예술이고 약이며 과학'이라는) 그만의 음식철학이 담겨있다.

"사랑을 음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음식 정도가 될까요?"

그는 서슴없이 '곰탕'이라고 했다.

"음식에는 법도가 있어요. 어떤 것은 단순하게 조리할 게 있고 어떤 것은 푹 고아야 할 것이 있죠. 가령 사랑을 고백할 때는 오래도록 푹 고아야하는 곰탕과도 같아요. 곰탕을 정성껏 끓여놓고 거기에 꽃 한 송이를 꽂는 것…. 그것은 환상법이죠."

내 머리는 순간 생각이 멈췄다. 식당 문을 나설 때야 비로소 머리통이 다시 작동돼 "그럼 꽃을 꽂기 전에 곰탕은 뭐예요?", "곰탕에 굳이 꽃을 왜 꽂아야 해요?"라며 어리석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곰탕은 진리를 구하는 법이라, 꽃을 꽂는 건 거기에 환상을 부여하고 입히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여러 방법 중 하나예요. 그냥 살면 뭐해요…."

그의 명쾌한 설명을 뒤로 한 채 달리는 차 안에서도 나의 아둔한 머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뇌었다. 왜 하필 곰탕이지?, 곰탕이 어째 진리를 구하는 법이 되지?, 곰탕에 꽃을 어떻게 꽂지?, 환상법이 과연 필요할까?, 그러면 좀 살맛이 날까?….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소화하기까지 내겐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조금 알게 된 것은, 그는 내게 삶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었다는 거다.

전라도 섬마을로 지리산 촌부락으로 강원도 두메산골로, 다큐멘터리 속 그는 이 땅 구석구석을 돌며 허드레 풀도 최고의 음식으로 바꿔 사람들과 소통하며 곰탕에 부지런히 꽃을 꽂고 있었다.

"세상이 전부 스승이고 요리 재료인데 어떻게 머물러있겠어요. 아마 못 걸어 다닐 때까지 여행을 하겠지…. 살아있는 동안엔 끊임없이 이렇게 할 거예요. 또 다른 내 안의 행복을 찾아…."

그래서 여행을 멈출 수가 없다는 임 거사. 그는 가히 '환상법의 대가'였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14 쌍화탕

원기 충분해야 피로를 이겨낼 수 있다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 다방에서 쌍화차에 계란하나 동동 띄워서 마시는 시절이 있었다.

쌍화차는 기와 혈을 동시에 보하는 대표적인 면역력 강화의 처방이다. 감기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여기에 계란을 추가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다. 신종플루때문에 유명해진 타미플루가 계란노른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계란을 추가한 이유는 사실 단백질이 부족한 당시 상황에서 나왔지만 이런 공통점이 참 흥미롭다.



기와 혈을 보하는 대표적 면역력 강화 처방의 쌍화탕.

쌍화탕(雙和湯)은 기와 혈을 동시에 보한다는 의미의 이름이다. 쌍화탕 처방은 근육의 뭉친 피로를 풀어주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백작약, 보혈, 보음의 명약인 숙지황, 기와 혈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 천궁, 기를 더하여 양기를 솟게 만드는 황기, 몸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를 돕는 건강, 오장을 보호하고 피부를 좋게 하는 대추, 해독작용을 하여 간 기능을 회복하는 감초, 위장운동을 촉진시켜주는 계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절기 감기에 잘 걸리는 경우, 평소 추위를 타고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 매사 의욕이 없고 만성피로에 시달릴 때, 성장 · 발육이 더딘 청소년, 노화로 인한 무기력, 주로 이러한 증상에 사용된다.

피로는 여기 저기서 기의 흐름이 정체된 경우를 말한다. 한두 군데가 정체되면 통증으로 나타나지만 여러 군데가 정체되면 피로를 느끼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되지만 만성질환이 되면 여러 질병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피로는 초기에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쌍화탕은 크게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원기가 충분해야 피로를 이겨낼 수 있다. 원기는 근원적인 생명력을 말한다. 이른바 자연치유력이다. 어떻게 해야 원기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 원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알아보자.

첫째, 수승화강(水升火降)의 부조화이다. 몸속의 수기는 위로 올라가 머리와 가슴을 맑게 하고 화기는 아래로 내려가 단전과 하체를 뜨겁게 한다. 이러한 수승화강이 막히게 되면 머리는 탁한 열이 질병을 일으키고 하체는 냉기가 기의 흐름을 막는다.

둘째, 수곡운화(水穀運化)의 부조화이다. 음식을 섭취하여 체내에서 소화, 흡수, 배설하는 작용이 바로 수곡운화의 기능이다.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식적이 생기게 되고 체내에 독소가 만연하여 질병을 일으킨다.

세째, 칠정(七情)의 부조화이다.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이라는 칠정의 상태가 불균형 하면 기가 막히게 되고 울화가 생겨 불면증,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무기력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현대적 의미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부조화인 것이다.

쌍화탕과 함께 몇 가지 생활습관으로 활기를 되찾도록 하자.

피로를 이겨내는 생활습관

1. 하루 1시간 반은 반드시 산책을 하자.
2.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도록 하자.
3. 매일 아침 대변을 보는 습관을 갖자.
4. 저녁은 되도록 소식(少食)을 하자.
5. 푹 자도록 하자.

한양방센터삶 대표원장 이경제 (02-576-7575)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민족사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 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2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신간 왕초보, 禪 박사 되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오직 공부할 뿐입니다.
선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공부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신간 왕초보, 법화경 박사 되다
법화경 공부의 지름길! 법화경의 엣센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78쪽 / 값9,500원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과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실전 위주로 확실하게 비법을 개인지도 함
역학 : 귀신 빼는 명리 (통변 가능한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사성, 작명
최면 : 전생요법, 빙의, 퇴마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 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 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 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 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불상 • 탱화
아주 저렴하게 판매
사찰에서 직접 조성합니다.
어렵게 불사하시는 스님들께만 판매합니다. 소량만 주문 제작해 드리므로 불교용품점에서도 판매가 불가능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불단 제작도 해 드립니다
043)857-1259

불자 국제결혼
- 국내/ 국제 초혼, 재혼
- 일본 45세 여성 이하 무료
- 미국 영주권 취득

이너머스웨이브
대표전화 070)8813-2265
담당 010-6310-2093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 1:1 개인지도
1. 궁합, 사주, 역학, 택일, 성명학
2. 매화역수, 낙화래정법, 고급포래법
사주운세 전화상담 환영
스님에 한해서 특별 할인 혜택
010-2484-5001
031)943-8094
파주 해인법사

불 자 결 혼
- 초, 재혼
- 20-50대 가능
- 국내, 국제 가능

010-4485-8888
혜덕 스님
051)515-1933

사찰 법당내 불구,
주방기기 등 인연있는 분께
유가로 안내합니다
▶법당내 불상 및 불구
공양간 비품 등.
김해시 삼방동
010-2775-7276

사찰운영 동참 하실분 모십니다
대불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 연락주십시오
- 현사찰 규모 : 법당, 요사채 등 완벽한 시설 완비, (총 건평 350평)
- 위치 : 부산, 울산, 대구에서 1시간 거리 (활발히 운영중인 사찰임)

(1억 가량 투자 가능한 분, 확실한 보장책 있음)
010-9636-0455
010-7249-0377

사 람 찾 음
속명 : 장종인
(해오름으로 이름 바꿈)
법명 : 자혜
나이 : 갑오생 56세
북아현동 거주 추정
위 사람은 부전으로 다니는 스님으로서 부당행위를 한 자임.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031)471-6675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주지스님을
모십니다(도서지역)
법납 10년 이상
(권속있는 스님 및 비구니 스님)
꼭 필요한 스님만 전화하세요
011-663-4893

덕유산 산하
암자에서 기도하며
지낼 40-50대
비구니 스님 또는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스님 구합니다.
017-569-37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지역
051)334-3009
011-840-4355

주지스님,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함께 모십니다
041)835-3933
010-8353-33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189-8745

조계종 3.4-50대 비구니 및 종파 초월하여 내림으로 건립한 곳이니, 인연 건당상좌 및 아니면 노승을 시봉하며 평생을 운영관리할 불심있는 비구니 스님을 찾고 있음.
그리고 4-50대의 오랫동안 자손을 위해 조용한 곳에 큰스님 공양복을 지을 신심있는 공양주 기다림 스님이든 공양주든 답사겸꼭 와볼사람만 전화 하시오.
소백산 지장보궁 정진도량 내원암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010-3188-5103

부전스님
구합니다
▷경남 마산
016-428-6665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침 술 개 인 지 도
◈ 개인지도 내용 : 침구학 기초이론. 전통침술 및 사암침술. 경혈취혈요령과 자침실기
◈ 교육기간 : 1주 1회 4시간씩 2개월간
◈ 위 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 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전 화 : 010-4054-7110

현대침술의학연구소 2개월의 개인지도로 자신있게 침을 놓을 수 있음, 본 연구소에서 개인지도를 하며 지방은 방문지도도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blog.naver.com/kppass7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 한 · 두달 · 100일
산사에서
쉬고 싶으신 분,
기도하고 싶으신 분
오십시오. ○○○주인공?
031)674-7188
033)441-0664

기복, 방편을
쓰지 않고 정법을
실천하는 납자입니다.
거제도나 부산 근교에
사찰이나 터를 싸게
보시하실 분 연락요.
011-9143-0098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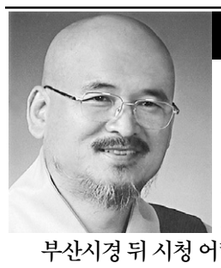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스님들께는 포교당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는 진정한 불보살의 가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사암 운영에 필요한 기도, 명상, 명리학, 침술, 병고침 등 부처님과 함께 하실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진실을 모르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성취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 진정한 피안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양 자운정사 031)386-39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고(古)건축, 사찰 건축전문
전문적인 건축지식과 오랜 현장경험을 통한 완벽, 책임시공 보장
전통사찰 전문. 일반사찰 전문. 부속 건축물 일체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 전문
010-6405-2060
061)741-1624 / 031)581-2120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맥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월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회 원 모 집
세계불교우주대원종단발전총연합회
◆회원종단 : 한국불교일대원조계종
대한불교우주대법왕종
세계불교우주대원종단발전총연합회는 종단연합단체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함께하실 회원종단 및 종도를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입회(종)서류
- 입회(종) 신청서 1부
- 사찰 사암 등록증 1부
- 승려(법사) 등록원부 1부
- 사진 3매
- 기타 서류

▣ 특 전
각 회원종단의 화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사찰 사암 개인 재산은 협회 및 회원 종단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계불교우주대원종발전총연합회 회장 도원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8
전화 031)952-7045. 4077 / 011-286-2439

구단구궁법
※ 테 이 프 출 시
(교재 및 요점 상세히 설명)
- ⊙ 구궁술로 1분안에 길 흉성패 명운을 꿰뚫는다.
- ⊙ 타지방에 계신분은 교재와 테이프로 공부可 (교재 및 테이프 가격 30만원)
- ⊙ 직접래방 개인지도時 (4주완성 수강료 50만원)
- ⊙ 계좌번호 부산은행 233-12-045334-2 (박옥균)

금 어 산 방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916-7
☎ (051)554-6040
010-8569-5695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불사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기타대출

•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一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재무부인가 제9-205호
보 현 사 신 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40평
- 요사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지하철역1분)

- 위치 : 전남함평
- 법당 :20평
- 요사 :40평
- 부속건물 3동
- 부지:340(실1,000)
- 가액: 1억 5천(급)

- 위치 : 경남
- 법당 : 25평
- 요사 : 30외 4동
- 부지 : 920평
- 가액 : 3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150평
- 건평 : 25평
- 요사 : 20평
- 개액 : 6억

- 위치 : 전남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경관수려
- 가액 : 1억 2천만원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0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 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전망 좋은 大 사찰 부지

- 총 평수 : 8만 7천평(60% 평지)
- 4만평 약초농장 조성
- 뒷산 400고지, 금광동굴 10기
- 계곡 천연수 물 철철
- 수백년 노송 및 백목수 군락지
- 가액 : 평당 1만원

시내 아담한 아름다운 절

- 총 평수 : 360평 (남향)
- 법당 : 30평(단청완료)
- 요사채 및 건물 3동
- 주차장 100대, 버스진입 가능
- 가액 : 6억 5천(절반값)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남부 시장부근
- 평수 54평(현 법회중)
- 4층건물 중 3층(관리비 無)
- 시설A급, 법당1실, 방 4개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5만원(올 전세 가능)
  시설비 저렴하게 보시

055)372-3563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약 900평
- 법당, 요사채
- 산세 수려하고 물도 좋음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1억 8천만원

055)672-0340

사찰(종무원)안내

- 위치: 대구 중심 요지(지하철역)
- 건물전체(3층), 주차장 등
- 포교, 교육, 총무원 적지
- 최고시설(법당, 종무원, 후원, 난방 등)
- 전체 7,000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010-6780-6271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동성로
  도심포교당으로
  불교대학 운영 최적지임
- 당포함 전체평수 5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70만원
- 시설비(비품포함) 3천 5백만원

010-8869-8965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구역
  지하철 1분거리
- 번개시장, 교통시장,
  귀금속거리 중앙
- 동성로 입구에 위치, 포교최적
- 4층 약 30평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800만원

010-2446-2626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이대입구(대흥동)
- 지하철 2호선 5번출구
  60M위치 교통편 최적지
- 4층건물중 3층 약 2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입주 즉시 법회가능함
- 보증금, 시설비 포함
  3000만원(월세 50만원)

02)719-770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 2동 2동 중
  황토방 1개, 산신각,
  실내 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011-816-9104
011-815-9104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북부 마을끝집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차고, 창고, 법당 뒤 대나무,
- 옆 계곡, 깨끗한 우물
- 계절마다 꽃이 피고 산세수려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평수 대략 250평
- 문중땅. 건물 시설비 7900만원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 땅 250평 ● 건물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채, 요사채 1채
- 사찰 앞 큰 저수지
- 가액: 2억 5천만원

011-9765-530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재래시장부근)
- 4층건물에 3층과 4층
- 3층은 법당, 상담실
- 4층은 요사채
- 가액: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 즉시법회가능

051)638-1134

사찰선산터안내

- 위치 :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
  (약 80%사용가
- 특징 : 사찰 및 선산 등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이내)
- 가액 :2억 8천 5백만원

010-732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반산초등학교부근, 등산로길
- 3층건물에 2층
- 평수 : 30평
- 가액 : 2천만원, 월 20만원
  (가격 조정가능)시설비 약간

051)782-0110
010-3101-115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28,000평, 대지 4,000평
  건평 720평
- 대웅전, 산신각, 대문종각,
  요사채, 법당, 나한전, 식당 외
  일체 모든 시설 완벽
- 가액: 융자포함 20억

010-8281-8787

사 찰 (급)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 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급세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동
  (전철 3백미터 대로변)
- 평수 : 30평(4층의 3층)
- 가액: 보증금 4천만원에 월 75만원
  시설비 3백만원
- ※ 원목 불단 3조, 운각 3조,
  바닥 전기필름시설,
  즉시 법회 가능

02)762-0039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3억 7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 가능)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 부지 : 17,000평
- 법당 신축허가 필
-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 수려한 지역
- 법당(가건물), 요사, 화장실,
  전시시설, 유
- 가액: 4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918-033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위치 최상
- 건물 : 2층 중 2층
- 평수 : 47평
- 방2, 공양간 등 시설완벽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612-2575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 총평수 : 328평
- 임법당, 삼존불, 바깥에
  지장보살석불, 산신석불,
  산신각, 문수전, 창고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660-53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성남시 모란시장 뒤
  공설운동장 후문 입구
- 평수 : 40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 최신시설, 최신내부 장엄
  운동장 몇 십대 주차가능

011-857-3775
031)755-3775

지리산자락 고요한 암자

- 총 650평
- 대지 320평
- 건물 : 황토건물 4동
- 수행 정진 하실 분
- 가액: 1억 5천만원

055)882-031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 5천만원

011-452-837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 가액: 1억 7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전통사찰(급) 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27억 5천만원
  (금액조정불가)

010-6227-5965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 평수 대지 388여평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약사여래불 대세지보살, 칠성
- 소불 100불, 완벽한 법당으로써
  즉시 법회가능
- 사찰내 주차가능 IC에서 2분거리
- 사찰 앞 경관이 좋으며 산 경치가
  수려하며, 등산로를 끼고 있다
- 가액: 2억

010-9418-593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 법당, 요사채 각각 20평
- 슬라브기와, 텃밭 100평,
  총대지 235평, 황토방 5평
- 가액: 전세 5,000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세요
- 마을입구, 뒤는 대밭

010-5879-755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해시죽곡동 126번지
- 임법당: 20평, 대지 300평
- 요사채 별도 1동, 주차장, 화장실
  (현대식) 창고2, 법당 및 기타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 충

010-2570-9566

전원주택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매전면
- 토지: 1000평
- 건물 1층 40평, 2층 20평
- 조경과 잔디밭 너무 좋음
- 집앞에 강물이 흐르고 앞 뒤
  에는 소나무 숲이 있음
- 완벽한 집, 그림 같은 집
- 가액: 4억 5천만원

011-9071-771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율현마을 751번지
- 평수: 대지 250평, 법당(40평),
- 이층 산신각,요사채 20평
- 별장으로 사용 가능함
- 가액: 상담후 결정

055)277-3569
011-847-155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김천 중간
- 대지 : 532평
- 법당 20평, 식당 20평,
  요사채 20평
- 통나무집 1채, 총 7채
- 가액: 1억 6천만원
  (대출 5천만원 포함)

011-540-3313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공원 입구
- 대지: 108평, 건평 2층 104평
- 철골조
- 가액: 14억
- 동북권 개발 지역

010-3124-39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역앞 동성로
  (지하철 1분거리)
- 4층 약 30평(정원있음)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800만원
- 상담 포교 최적

010-2446-26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25평, 이층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 보살) 신중, 산신
- 가액: 전세 8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6488-82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시화 신도시 정왕동 E마트사거리
- 대형공원과 아파트 대규모
  단지로서 포교최고지역
- 4층건물중 4층, 전체 약 110평,
  옥상전체, 화장실및 복도 전체사용
- 법당: 삼존불, 약사여래불, 신중단,
  영단, 인등단(관음인등 108불)
  큰방 3개, 사무실 1개, 창고1개
- CCTV설치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 시설비 8천5백만원

010-4340-88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2번출구
- 4층 건물중 3층(50평)
- 삼존불 청동불, 최신 인테리어 시설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45만원(부가세별도)
- 시설비 6천만원

010-5851-498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개정동
- 평수: 135평(3층, 4층, 5층)
- 3층: 방5개, 화장실
- 4층: 방 3개, 공양간 및 화장실
- 5층: 대법당,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2599-6020

포교원 안내

- 위치 :대전시내 2층 60평
-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 지장보살신중,
  산신, 영가단 각단후불탱화
- 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시설완벽

010-6278-1488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역전 3분거리 도로 접
- 대지 400평 ● 건물 21평 포함
- 가액 : 평당 10만원
- 대지 470평 ● 가액 : 평당 5만원
- 복바위 앞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음

010-5048-9949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절충가능)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암 자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심야 기름 겸용, 삼성가 목조 5평
-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 : 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법당 50평,
- 심야전기, 신전자제품완비
- 방4개, 법당, 공양간, 욕실2개
- 법당내부신도실완비
- 몸만 들어 오면 즉시 법회 가능 ●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 스님 건강문제로 급 양도

010-6564-8088

대형포교원(전세 및 양도)

- 위치 : 부천신도시 고속터미널 부근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 220평. 14층 / 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 문양인테리어됨
- 법당앞에 2010년 지하철개통,
  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 임대 3억 5천(양도가능)
  시설비 절충가능

011-707-5552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정년퇴직 불자 가족
나무 꽃 잔디 가꾸며 남은 여생 지낼분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큰방2, 작은방 2,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주인직거래)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개 인 선 방 안 내

치악산 비로봉이 정면으로 보이는
전통적인 명당터, 산중은거 수행처

- 위치: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 평수: 총 979평(대지 149평)
  국유림이 이 땅을 둘러싸고 있음.
- 허름한 목조건물 2동(본채 55평, 별채 7평)
  건물 볼품없음.(심야보일러, 현대식보일러)
- 가액: 2억 5천만원
- 산중은거 수행처를 만나고 싶은 분 연락바람.

011-9058-2264

불교IT문화원과 함께하는 'IT와 불교'

'IT기술' 불교 방향 설정 · 위상 제고에 기여

#불교와 IT의 상관관계

불교와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의 상호관계성은 그다지 밀접하거나 친근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교가 가진 정신적, 종교적인 문화의 특성이 IT라는 디지털개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며, IT라는 문명의 산출물이 풍기는 기계적 정확성, 도시적, 비인간적인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성찰해보면 불교의 과학적인 사상과 합리적인 정신세계를 IT의 사회성과 프로토콜의 논리체계를 비교한다면 더없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뿐만 아니라 상호 유기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교나 IT가 가지는 특성중에 공(空)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IT에도 가상적인 공간속에서 많은 정보를 구현하고 있으나 실상 실체(자아)가 없다는 불교적인 철학사상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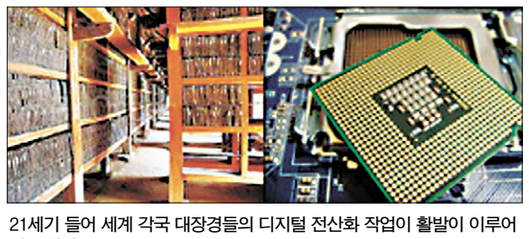
IT의 모든 근간은 자각이 없는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여러가지로 다양한 유기체의 기능을 구현합니다. 네트웍크, 상용 프로그램, 컴퓨터, 다양한 프로코콜 기술, 상용 TOOL, 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등은 감각도 없을뿐 아니라 자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집합체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역할(action)을 수행하므로써 유기체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인간은 5온(五溫)에 의지하지만 IT기술은 CPU, Network, OS, Program, Senser, 출력장치 등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오온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분석해보면 인간이 고귀한 인격체로서 존재하지만 결국 지수화풍으로 사라지듯이, IT역시 가상공간에서 마치 실지인양 정보를 제공하고 상거래를 하며 음악을 들려주는 등 운영되나 해체하면 사용할 수 없는 부품으로 전락합니다. 이런 관계를 연관해 판단한다면 억지 일지는 모르나 IT는 친인간적이며 불교적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정보(법문)를 암기하거나 구전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정보는 문자화는 물론 디지털화 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손을 내밀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아니라 다양하기까지 합니다. 전파속도는 더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아직도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옛날 처럼 쌀을 머리에 이고 4~5시간 산길을 걸어 법회에 참석해야 한다면 누가 불자로 남아 수행을 하겠습니까.

불교의 IT화는 불교의 포교와 수행은 물론 불사, 정책, 교육, 문화 등 어느 한 곳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이 시대가 던져준 친근하고도, 잘만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불교IT의 추진과 의식의 전환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 대장경들의 디지털 전산화 작업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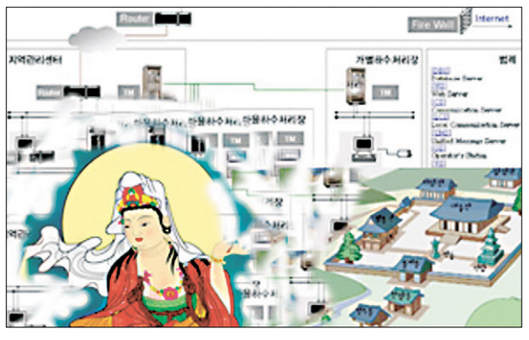
디지털은 21세기 모든 사회분야에서 이미 화두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 흐름에 힘입어 세계 각국에서는 대장경의 디지털 전산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전산화 하면 우선 불전(대장경)의 전산화를 떠올리지만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장경의 전산화만으로 불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컴맹이라 외치면서 전원을 켤 수도 없음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전산화도 일부 불교 전문가의 전용물로 전락할 수 밖엔 없을 것입니다.

법당 부처님 앞에서 좌선을 해야만 여법하고 특정 큰스님에게 검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논리는 많은 불자와 수행자들의 기회를 잃게 합니다. 부처님 법은 사방 어느 곳에든 이미 오래전에 존재하므로 어떠한 형식으로든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하며 공간과 그 환경의 수준을 떠나, 다만 자유롭게 익히고 수행할 수 있는데 이로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버스 속에서 PDA로 법문을 읽고 염불을 따라하며 자신의 방에서 목탁을 치고 사이버공간에서 예불을 모시는 문화도 여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부처님의 공부방식으로 틀리지 않으며 시대적인 수행에 부응한다고 보여 집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시대처럼 탁발을 한다거나 맨발로 수행을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불교계의 행정소임을 맞은 스님들의 의식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화두라고 외친 불교IT 추진은 21세기에 큰 성과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IT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으나, 이미 농경사회-산업사회-정보화사회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불교의 행정부터 포교와 수행까지 구세대의 방식에 의존해 있다면 대중을 이끌어야할 조직으로서는 여러가지 불편함과 문제점이 자연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IT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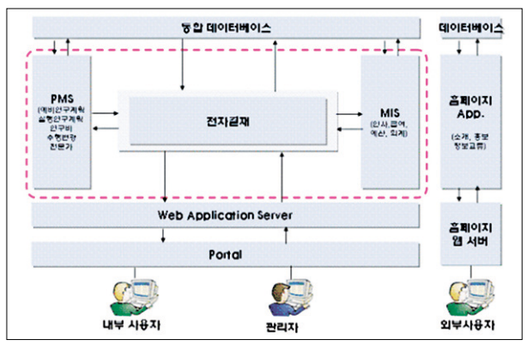


부처님 법은 사방 어느 곳에든 존재하므로 어떠한 형식으로든 자유롭게 익히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IT를 인간의 오온과 행동에 비교하면 빨리 이해할 수 있는것은 그 메카니즘이 인간에게 친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불교의 모든 면에 적용된다고 보겠습니다.

△포교 : 사찰, 단체, 모임등의 홈페이지구축 △블러그, 사이버 수행공간 활성화 △인터넷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수행 : 경전 법문 등 자료의 공유화 △행정관리 :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정확성, 효율성 구현 △문화재유지관리 : 산재해 있는 불교문화재 등록,관리를 통한 세밀한 관리 △경전연구 : DB를 통한 경전의 재검증 및 체계화, 대중화 △문화재산방재관리 : 전통불교문화재의 방재를 통한 안전한 관리 △교육관리 : 불교계의 교육체계의 개혁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현 △인력관리 : 승단, 불자, 조직, 단체의 DB를 통한 다양한 실리추구.

각각의 부분적 발전으로는 제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위에 기술한 부분들이 인프라로 구축되어 유기적인 역할을 할 때 극대화된 힘을 발휘합니다.일부 계층에서는 아직도 불교의 수행특성을 내세워 전통적인 방법만을 답습하고 그것을 통한 여법성을 강조합니다. 불교의 공부가 그러하듯 IT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별 도움이 안됩니다. 실행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산화를 통해 상품의 질적 향상과 높은 보안시스템을 갖출수 있다.

'IT나눔' 으로 새롭게 여는 세상

불교IT가 발전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필요성을 늘 감안해야 합니다. 스님, 불자, 일반인 등 불교관련 사용자의 컴퓨터 보유 및 사용능력을 감안해야 하며, 컴퓨터 교육을 통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줘야합니다.

따라서 불교IT문화원 같은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불교계엔 많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보급해주고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정보 이용법을 알려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IT나눔'은 단순히 PC배급과 교육에만 국한 되지 않고 대상자의 복지문제와 교육문제까지 신경을 써주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복지 기법입니다.

기존의 생명나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는 있지만 배고픈 60년대에는 밥이 그리웠으나 현시대 컴맹에게는 IT나눔이 배고픔 만큼 절실합니다. IT시대에 IT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자, 스님, 불우이웃에게 IT 하드웨어나 사용업을 제공할 뿐 아니라 불교에 접근시키고 인터넷 서비스제공 및 인터넷교육 무료지원 등 IT사회에서 동떨어져 있는 이웃에게 IT나눔은 새로운 개념의 복지사업이며 시대에 맞춰 실천하는 보현행원입니다. 주변의 호응과 동참을 기대해 봅니다.

#불교계에 전산화 노력과 문제점

한마디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력, 장기계획, 재정확보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승려 전산교육은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종무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승려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미래불교를 위하여 고무적입니다.

전자불전, 고려대장경 전산화가 진행됐지만 그것이 대중화되고 End User(최종사용자)의 필요성과 부합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의 노력은 자료의 데이타 베이스화 차원과 데이타의 신뢰를 위한 연구 그리고 대중성 등을 모두 아우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팔리불전, 산스크리트불전, 티벳트불전, 한문불전 등이 전산화되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입력 작업 자체가 연구활동 촉진등 귀중한 가치있지만 효용성 및 대중화를 위한 노력도 배가 되어야하며 지속적인 보완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확립되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며 언어의 장벽, 기초학습의 필요, 원전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볼 때 국가차원의 지원과 교계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대중을 위한 불교콘텐츠 개발과 사찰전산화 지원정책 등 많은 숙제는 신심을 가지고 끝없이 노력하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불교계 전산화 상품의 질적 향상과 보안시스템

불교계는 일반기업과 같이 우수한 전산전문인력을 보유하거나 추진기획과 장기 플랜(plan)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불교계의 전산시장은 활성화 되지 않았다. 업체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의 상도의상 불교계를 이끌어주고 유도해야 하는 입장에 서있는 업계전산업체의 과감한 상품개발을 위한 투자와 보시행이 아쉽습니다. 좀더 유연성을 가진 프로그램개발과 가격 책정, 불교계의 현실을 감안한 표준화 앞서가는 상품제시 등이 요구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는 보안에는 더욱 신경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반기업에서는 당연시 하는 보안정책 등이 비용 등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불교 전산에는 수많은 신도의 인적 데이터뿐 아니라 중요정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커의 침입방지를 위한 방화벽 구축, 백업을 통한 안전성확보 등이 시급하지만 재정부족 및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 대책이 미비하며 빠른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IT와 불교미래



불교계의 IT활성화로 급진적인 전파의 효과를 제공,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줄수 있을것이다.

역사를 돌아볼 때 종교(불교)는 시대성, 사회성, 정치와의 연관관계 등이 발전에 많이 관여를 해온 것을 간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대 흐름과 정책 등에 함께 부응할 뿐 아니라 철저히 활용할 때 비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할 대처능력과 자격이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불교와 IT의 융합은 오월동주(吳越同舟)가 아니라 부처님 법을 전달하기 위한 적합한 방편으로서 이 시대가 제공하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이 불교의 미래가 어둡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불교도 바뀝니다. 불교의 발전이 누구 한 개인의 힘으로 진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고 신세대를 아우르며 급진적인 전파의 효과를 제공하므로써 그동안 하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주리라 봅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편이 감히 불교의 IT화라고 주장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변화와 개혁은 다른 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개혁되고 변화해야 합니다. IT기술은 이 시대에 불교의 방향 설정과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삼장법사의 어려운 구도 행로에 사용하던 손오공의 요술봉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대중이 기도의 원력을 한데 모아 새로운 장을 여는데 힘을 합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교IT문화원 www.itbuddha.co.kr (02)739-9777
일담 스님(불교IT문화원 부원장)

불자정보
760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아담한 사찰
● 법당 30평(단청)
● 요사채3, 방 3
● 산신각, 독성, 용왕단
● 가액: 4억
● 주차장 확보
영주불사
010-9798-1091

사찰안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 대지 80평,
● 건물: 방4, 주방2, 거실1, 욕실1
● 법당 15평
● 가액: 1억 8천만원 (융자 5천만원 가능함)
● 사정상 급 양도, 주인직접
011-792-8969

사찰안내
● 위치 : 논산시 연산면
● 법당 18평
● 요사채 2동
● 가액: 1억 3천만원
016-742-212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연산2동
● 평수 약 25평
● 방 2, 공양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몽땅 5,500만원
010-4007-0057

암자안내
● 위치: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 요사채 1, 작은법당 1
● 가액: 6,000만원
011-723-6640

포교원안내
● 위치: 송파구 전철역에서 3~4분거리
● 4층중 2층, 실평수 약 50평
● 시설 : 방3, 부엌1, 화장실
● 아미타석자반동불, 지장보살2자반 동불, 관세음보살2자반, 후불산신탱화와 합 60평
● 모든시설완비, 집기일체多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스님 사정상 급히 양도
010-5336-887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 면적 65평
● 방 4개, 다용도실, 최고시설
● 삼존불 냉난방 완벽시설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최저가 인도
018-622-98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법당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 3552-3351

사찰 대출 안내
사찰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죽도2동 새마을금고입니다. 사찰은 주로 공시 시가가 낮고 일반인의 눈으로 단청의 가치를 판단하기 힘들기에 사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마을금고는 오랜 경험과 사찰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지역사회개발과 회원복지에 목적을 두는 비영리 금융기관이라 부처님의 중생 구제에 가장 일맥상통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양도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높은 이자로 사채나 대출을 쓰시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의논해 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 약 60만원 ◀
출장비, 소개수수료, 대출꺽기가 일체 없습니다.
· 대출지역 : 전국
· 대출형식 : 담보대출
· 대출금액 : 5천만 ~ 5억
· 대출금리 : 연7.2%~8.2%
· 대출기간 : 5년(연장가능)
■ 담당직통
· 상무 : 이강욱 010-9842-4200
· 과장 : 김상민 016-9314-2522
죽도 2동 새마을금고 본점전경
죽도2동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⑮ 군현자명도

보우 스님 원융회통 이상좌 그림에 담겨

고려시대 왕실을 중심으로 융성했던 불교문화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건국 초기 정도전은 <불씨잡변(佛氏雜辨)>에서 억불론을 주장해 주자학적 입장에서 불교배척을 체계화했다. 태종 이방원(재위 1400~1418)이 정권을 잡으면서 억불정책은 대대적으로 추진되는데 서울 외곽 70여개의 사찰을 제외한 전국 사찰의 재산과 노비를 몰수했으니 자연히 선가(禪家)의 다풍(茶風)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중종(재위 1506~1544)은 승려의 출가를 규정한<경국대전>의 도승조(度僧條)마저 삭제해 사실상의 폐불이 정책적으로 추진됐고 승려에게는 환속이 강요됐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활동한 허응보우(虛應普雨, ?~1565) 스님은 유교와 불교의 갈등을 뛰어넘는 불이사상을 설파함으로써 조선불교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한 인물이다. 그는 선교양종과 승과를 복구하고, 도승제(度僧制)의 부활에 기여하는 등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사림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스님의 다시(茶詩)에는 이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보우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절에 찾아와 불교를 배격하고 스님을 욕보이려한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무척 마음 아파했는데, 보우 스님은 오히려 이 시를 지어 읊음으로써 그들을 달랬다.



전 이상좌, '군현자명도', 견본수묵, 28.2x24.2cm, 간송미술관 소장.

임금 위해 불교 배척함은 참으로 선비의 일이며(爲君排釋眞儒事)
부처 받들고 공자를 공경함은 선가의 유풍이라(戴佛尊儒是釋風).
하물며 주인으로 저 손님을 공경한다면(況以主能恭彼客)
어떤 손이 우리를 함부로 하리(有何賓謾毁吾躬).
단조와 법회를 하는 무리들은(願諸丹竈修齋輩)
부지런히 차를 다려 부처님 궁전 빛내기를 바랄 뿐이라네(勤辦茶湯耀梵宮). –역: 박동춘

불교를 배척하는 것이 세태를 따르는 선비의 일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을 받들고 공자님마저 포용하는 것이 불가의 전통이라 한 것이다. 그 넓은 마음씀씀이가 차의 향만큼이나 은은하고 멀리 전해지는 듯하다. 이렇듯 시련 속에서도 불교를 아끼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원융회통 사상은 더욱 깊어지고 차의 정신은 그 격조가 오히려 높아졌다.

간송미술관에는 스님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화가 이상좌의 차 그림이 한 점 전해진다. 그의 그림으로 전칭되는 '군현자명도(群賢煮茗圖)'에는 여섯 명의 현인(賢人)들이 모여 차회를 여는 장면이 담겨져 있다. 간결하게 배경이 생략된 파격적인 구도는 화면 중앙에 다관을 배치하고 인물들의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참신함을 배가시켰다. 화로 가까이에 둘러앉은 세 명의 인물은 각각 한손에 찻잔을 들고 있거나, 한쪽 팔로 땅을 짚는 등, 짐짓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말없이 다탕만을 바라보는 표정 속에 내심 차를 기다리는 설렘이 느껴진다. 그들의 주변으로 다시 세 명의 인물들이 마찬가지로 이 광경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먹색으로 표현한 간략한 필선의 옷자락에는 속진을 끊고 은일하는 고매한 현인의 풍골이 드러나 있다. 마치 한 편의 선화(禪畵)를 보는 듯, 숙련되고 화려한 기법대신 고고한 정신세계를 드러낸 그림을 통해 우리는 세간의 유행과는 상관없이 진정으로 차를 아끼고 이해했던 현인들의 모습과 이상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유교와 불교가 서로 상반된 체계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정신적 지향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바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담박(淡泊)'과 '소쇄(瀟灑)' '쇄락(洒落)'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불교의 '적정(寂靜)' 상태와 상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성이 고차원적으로 고양된 그 공통적인 공간 속에 언제나 맑고 투명한 차향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⑫ 통도사 금강계단



들어갈 수 없는 길을 조용히 걸어 부처님 곁에 가 섰다. 추위에 떨었을 부도의 이끼는 새벽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서있고, 건너 보이는 법당의 기와는 행자의 발걸음처럼 사뿐히 놓여있었다. 이름 모를 산새 소리가 천년 묵은 침묵을 깨고 날아가는 아침. 해쓱해진 부도를 바라보며 통도사 금강계단을 걸었다.

계단의 장엄 위로 가을 햇살이 다가와 앉았다. 그저 돌덩이인 부도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인데 허물 수 없었던 마음들이 무너지고, 그저 한 순간의 끝에 서있었을 뿐인데 지나간 시절들은 끝없이 다가왔다. 먼 길 온 스님이 계단 앞에서 합장을 한다. 계단을 나서니 들리지 않던 여울물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왔다.

詩가 있는 도량

■ 적막–陳田寺址에서

뜨거운 물 한 바가지에 차가운 물 한 바가지
매정하게 부으면 맹근한 마음이 되듯이

때 묻은 세월을 우걱우걱 버무려
군데군데 검버섯으로 피어난 주춧돌

속절없이 허물어진 하늘 한 자락
돌탑 하나 동그마니 꽂아 놓고

마음 모아 소원 빌며 탑돌이 하는
천 년의 저 바람소리 보이는가

왁자지껄 골짜기에 넘치던 물소리 발소리
흐벅지던 그 시절 저 범종소리 보이는가.

–김완성, <현대시학> 11월호

옛 판화의 세계

종밀 스님이 소를 짓다 종밀조소(宗密造疏)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종밀 스님이 원각의 뜻을 깨닫고 깊이 진리의 취지에 도달해 마침내 <원각경>의 소초를 저술한 후 종남산을 중심으로 법을 펼치는 장면이다. 석종밀(釋宗密: 780~841) 스님은 유교 · 도교를 불교의 입장에서 정의해 삼교일치설(三敎一致說)을 전개했다. <원각경(圓覺經)>을 세상에 반포(頒布)한 공적이 크며, 중국 화엄종의 5조로 속성은 하(何)씨며, 시호(諡號)는 정혜(定慧)이다. 항상 산시(陝西) 악현(鄂縣)의 규봉 초당사(草堂寺)에 머물렀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규봉 대사(圭峯大師)'라고 불렀다. <원각경> 주석서를 저술한 외에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를 지어 교선(敎禪) 일치설을 주장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님은 선행을 지키지 않고 널리 경론을 강의하면서 이름난 고을에 노닐고 큰 도읍지에서 이름을 일으켜 세우기를 힘쓰고 있으니 이것은 많이 법문을 들은 사람들의 할일이 아닙니까? 어찌 명성의 이익을 잊은 사람이 할 일이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다. '허허! 논의하는 사람들이 어찌 대도의 취지를 알겠는가? 무릇 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만법을 총괄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누어져서 계 · 정 · 혜가 되고 그것이 전개되면서 육바라밀이 되고 그것이 흩어지면서 만 가지 행이 되는 것이니 이 모두가 일찍이 한마음이 아닌 일이 없었고 한마음이 일찍이 만행과 어긋난 일이 없었다. 선이라 하는 것은 육바라밀의 하나일 따름이다. 이것이 어찌 모든 법을 총괄할 수 있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고 교에 매달려 포교하는 것은 명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하자, 질타하는 사람에게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냐면서, '한마음이라는 것은 만법이 생겨난 것이지만 만법에 예속되지 않는다. 이를 얻는 사람은 만법에 자유자재할 것이고 이를 본 사람은 교에 걸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중생을 제도함에 급급하고 중생들을 개유하는데 급급해 귀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초청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찾아가고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를 찾아가고 분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종밀 스님의 선교일치사상을 통해 명분이나 이념에 치우쳐서 근본을 잊어버리고 있는 현 세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겠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종밀조소(宗密造疏)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훼이셜타올
각 6,000원 ➔ 5,400원 (10%DC)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 삼베샤워타올
각 15,000원 ➔ 13,500원 (10%DC)
· 품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연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행 스님

통에서 벗어나야 그 통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지금 바다의 물이 저렇게 물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전력도 되고 가스도 되고 구름도 되고 또 복사체질도 돼서 통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모든 생명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 더불어 숨을 쉬고 살 수 있게끔 그 나무들이 저장을 해서 우리들한테 공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공기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에너지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컵 하나도 지수화풍이 아니었더라면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산돼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가 지수화풍의 그 근원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근본 자체도 없이, 대(對)도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죠.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도 그 진리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선배로서 우리들을 가르치신 거죠. 가르치셨는데, 그때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내내 끝없이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불가사의한 법을 말로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이 아주 극심하게 와요. 그러니까 '주인공! 당신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 이러면 관세음보살이 여기 찰나에 드셔서 법설을 하시고선 찰나에 떠난다 이 소립니다. 또 내가 아파서 참 고통스러울 때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약사가 한 찰나에 들어서 진짜 법설을 하시고선 찰나에 떠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일체 부처님이든 일체 보살이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집안의 기둥이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 때로는 나가서 쓰레질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심부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부처님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집 남편이라고 해서 그대로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심부름꾼입니다! 아래로도 심부름꾼 위로도 심부름꾼, 전부 심부름꾼이에요. 위로는 묵은 빚을 갚기 위해서 심부름해야 하고 아래로는 햇빛을 주기 위해서 심부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북하면 똥 친 막대기라고 했을까요. "불(佛)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똥 친 막대기야."라고 대답을 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열반 아닌 열반, 보리수 아닌 보리수를 이 몸, 나한테서 모든 것을 감지하고 찾고 발견하고 지혜를 넓히고 그러는 겁니다. 저런 하등 생명들은 청각으로나 시각으로나 그러한 걸로만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림 · 최주현

인간은 지각도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공부는 재료가 당당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이통, 천안통,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 이러한 다섯 가지의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야 도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만이 자기를, 자기 통을 굴릴 수 있으니까요.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통을 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 누진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누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누진이라고 합니까? 대뇌의 잠재의식 쪽, 현재 의식 쪽이 계합이 되는 그런 마당에서 누진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도 대뇌에 잠재의식 쪽, 현재의식 쪽이 이렇게 반반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합이 된, 그런 정신 하에 누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오신통에서 벗어난 것을 누진통이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가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망원경으로 이 세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천문학이나 천체물리학이나 과학이나 공학이나 지리학이나 의학 같은 모든 분야가 종합된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게, 항상 그렇게 가고 있고 항상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임을 맡아 가지고도 그 소임만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임을, 자기가 맡지 않았어도 해야 하고 맡았어도 해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또 애들도 그렇죠. 다 그런 겁니다. 연쇄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모든 것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나를 형성시킨 것도 내 주인공이요, 바로 지금 이끌고 가는 것도 내 주인공이요, 잘못되는 거 잘되는 거, 이런 마음이 나오게 하는 것도 거기요.' 하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고 운전을 잘 하시면서 놓고 가신다면 내 마음부터 편안해요. 왜? 벌써 이 공장장들이 지배인, 또는 사장과 한마음으로 이끌어 주니까 편안할 수밖에요. 몸을 오대양 육대주라고 해도 되고 혹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도 별성이 지금 수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내 몸을 벗어나서 내 몸 하나 다스린다면 모든 걸 다 다스리게끔 지혜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 오늘부터라도 놓고 가신다면 우환이나 가환, 병고 액난이 그대로 녹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는 봄을 맞이하여 아주 잔뜩 얼어붙은 얼음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마음과도 같죠. 오늘은 여기 포항에 계신 여러분에게 잠으로 기초적인 문제, 요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기로 합시다.

원효 대사가 의상 조사하고 길을 가시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딱 세 가지 요건만 얘기하죠. 예전에는 길을 가다 보면 산에 산제 지내고 그러는 데도 있고 또 상여 놓는 원두막도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있죠? 예전에는 괴질이라고 했고 지금은 장티푸스라고 하든가 장질부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앓는 사람을 산 채로 실어다가 원두막에 그냥 주욱 갖다가 놓는 겁니다. 그래 오래 되니까 거기서 썩어서 그냥 해골이 디굴디굴 구르죠. 그런데 의상 조사와 원효 대사는 밤은 깊고 그냥 굵은 비는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거기 원두막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너무나 배는 고프고 속은 탈고 해서, 무심코 손을 뻗으니까 턱 뭐가 잡히거든요. 거기서 자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아이구, 누가 물을 떠다 놨구나.' 하고서 물을 탁 마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왜 물 썩은 데는 장구벌레가 많이 생기죠? 해골바가지 물 썩은 데에 장구벌레가 우글우글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마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첫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시원하게 먹고 잘 잤는데 깨서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구역질이 나거든요. 그러면 보고 생각을 한 거하고 생각을 안 하고 먹은 거하고 어느 것이 도리가 맞느냐는 얘깁니다. 봤으면 그게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26면으로 계속

당뇨. 비만 Diet

임 상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로 병력에
관계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특품 벽안함초소금

함초의 효능
함초는 갖가지
미네랄의 보고이다

■ 바다 속 천연미네랄의 보고 함초
함초 100g에는 칼슘 670mg, 요오드 70mg,
나트륨이 6.5%, 식물성 섬유질이 50% 들어있다.
미네랄이 우유보다 40배가 많고,
칼슘은 우유보다 7배가 많으며
철은 김이나 다시마 보다 21배가 많고
칼륨은 굴보다 3배가 많다.
이밖에도 바닷물속에 들어있는
90가지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다.



■ 벽안함초 소금은?
함초 함유량이 20% 들어 있으며
(시중 제품은 2~10%)
최상품의 소금(음력 5~6월 채취)과
혼합하여 쓴맛이 없고 단맛이 나며
많이 짜지 않습니다.
▣ 굵은소금 최상품,함초환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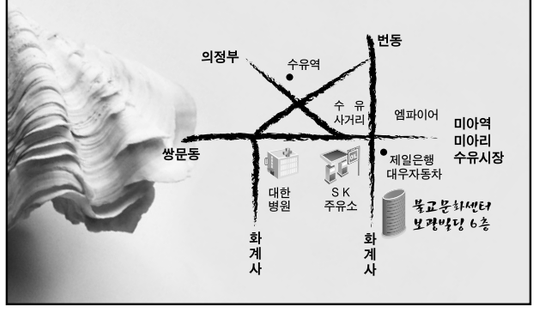
고객상담실
벽안상
(윤정이)
경남 합천군 야로면 매천리 666-2
전화 : 염전 061) 271-5919
공장 055) 931-5919
010-5456-5919

정토교학의 선지식 군맹당 서진스님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묘약(妙藥)

『관무량수경』공개강좌
수강생 모집

개강 :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 기 간 : 2009년 12월 2일(수요일)개강 후 6개월간
■ 시 간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수 강 료 : 10만원
■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 장 소 : 서원사 불교문화센터
■ 접수마감 : 2009년 11월 30일까지
■ 전 화 : 02)983-7484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수강료 계좌입금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종 정 무진본 정화당
총무원장 혜봉당 무공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근근히 이어오다 종파분열(宗派分裂)로 인해 불교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등지는 현재의 처함에 있어, 제종통합(諸宗通合)으로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를 이루고자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과,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스님, 법사, 포교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입종서류
◆ 본종 소정양식(입적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4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buddhanews.com

문이 많아 문 찾기 어렵고 문이 없어 문 찾기 어렵다

☞25면에서 계속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것도 관문이 될 수 있고 화두도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늑대 새끼가 죽었는데 원효 대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눕혀 놓고 염불을 해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염불을 한 마디 두 마디 할 때 벌써 백 년이 흐른다 이거예요. 그러니 천도는 언제 하느냐 이거죠. 지금 이 뜻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천도할 때도, 잘 차려서 염불을 해 달라고 그러면 벌써 몇 년이 흘러요. 과거가 됩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전부 과거지요. 우리가 목마를 때 직통 물을 마셔야 되는 건데 못 마시고는 그냥 염불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안 대사는 젖을 한 그릇 갖다 놓으면서 그 늑대 새끼한테 젖을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염불이니라. 이게 무명을 벗기고 직통 천도시키는 염불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늑대 새끼는 대안 대사가 된 겁니다.

만약에 늑대의 마음, 그 영혼을, 의식을 내 속에 수만 개를 넣는다 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을 만 개를 그려 놓으면 몇입니까? 둥그렇게 만 개를 그려 놓으면 몇입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모두 도인들이 돼서 대답들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나도 배울 겸 여러분도 배울 겸, 서로 도반 아닙니까? 대답을 해도 함이 없습니다. 귀신 방귀 뀐 거와 같죠. 어때요?

대중 속에서: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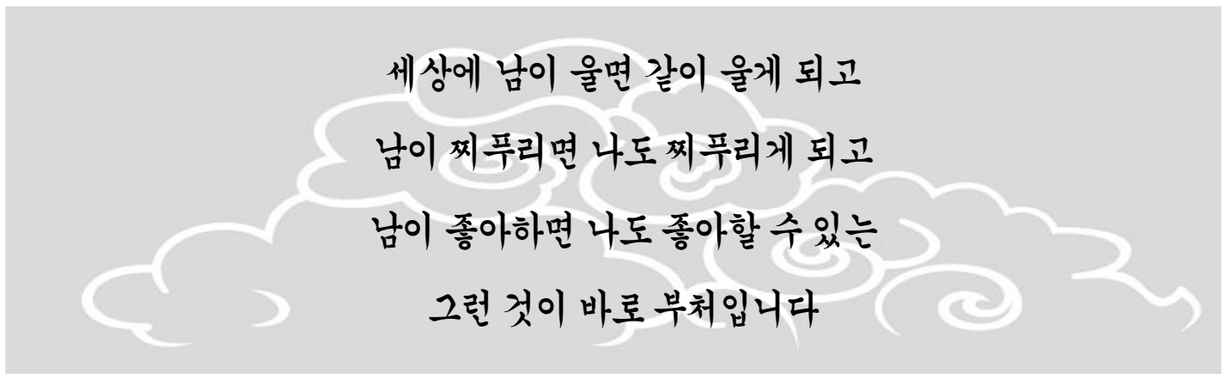
큰스님: 허허, 없죠? 없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십 마리의 소가 도살장에 가고 돼지가 도살장에 갈 때에 한생각을 한다면, 그 모습을, 무명을 다 벗기고 그 마음을 넣어 준다면 그냥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할 때에 하는 거 뭐죠? 마취. 마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을 빼기 때문에. 그러니 고통도 받지 않고 무명을 벗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보살행이 다 이겁니다.

여러분이라고 왜 할 수 없느냐는 얘깁니다. 머릴 깎아야만 공부합니까? 머릴 안 깎았든 깎았든 마음공부 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못났든 잘났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권세가 높든 낮든 차질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그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대통령이라도, 저 벌레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도도해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것이라면 누가 나를 구더기로 만들어 놓은들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각오했으니까요.

여기 이 지역에서 내내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타지에서 들어온 분도 있고 그런데, 포항제철이 저렇게 커지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는 일들도 많겠죠. 하지만 포항에 계신 여러분이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려면, 자유스럽게 사시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게끔 하시려면, 한마음 한뜻으로 이 포항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불씨를 심어서 선맥을 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다면 내 편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버러지, 귀신 어떤 거를 막론해 놓고 저런 풀잎 하나도 모두 여러분 편이 됩니다. 둘이 아닌 까닭이죠. 모든 것을 주고만 산다면, 나를, 아집을 버린다면, 욕심을 버린다면, 증오를 버린다면,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린다면 일체 계율을 지킬 수가 있고 시간도 똑바로 지킬 수가 있고 의리, 도의, 사랑, 자비까지도 전부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달마 대사께서 양 무제한테 "당신은 공덕이 없어." 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했어도 공덕이 없습니까?" 하고 묻자 "공덕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물질적으로 보시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유무가 한데 합쳐져서 계합이 돼 가지고 들어



야 손가락 하나를 들어도 우주 전체가 들린다 이 소립니다. 그게 공덕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을 놓고도 전체, 위로 공양을 하고 그 밥 한 그릇이 되남아서 (배를 두드리시며) 수십 중생들을 다 먹였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항상 자기가 있어서 자기가 먹는 걸로 하지 마세요. 위로는 공양을 올리고 아래로는 여러분 집 안의 중생들에게 공양을 먹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 안에 다 있죠? 예.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달라고 그러고 맛없는 건 안 먹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먹는다고 하기 이전에 위로는 공양을 올리고 아래로 공양을 먹이고 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나라 인군이 평복을 입고 순행을 도는데, 어느 담 모퉁이를 돌아가려니까 "에이구, 추워. 대대로 내려오면서 할아버지서부터 이게 무슨 꼴인가! 위로는 묵은 빚 갚으랴 아래로는 햇빛을 주랴, 이거 정말 추워서 못 견디겠구나." 하면서 손을 싹싹 비비면서 그런 넋두리를 하면서 풀무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왜 예전에는 대장장이가 풀무질했죠.

인군이 담 밑을 지나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도리를 영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신하를 시켜서 불러오게 했죠.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위로는 묵은 빚을 갚고 아래로는 햇빛을 주고, 이거 추워서 못 견디겠군.' 하면서 넋두리한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할아버지 적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대장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불씨도 별로 없는데다, 그 불씨가 꺼지면 불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로 할머니도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아래로는 자식들이 칠 남매나 되니 '위로는 묵은 빚을 갚으랴 아래로는 햇빛을 주랴.' 한 것이 그 뜻입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무르팍을 탁 치면서 "그 한마디에 전체 모두가 계합이 되는구나." 하면서 상놈의 문서를 다 지워 버리고 평민으로서, 대장장이를 면하고 농사를 짓게끔 토지도 주고 하인들을 내주었답니다.

그런 이치가 있듯이,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묵은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현실에서 갖는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실 겁니다. 공경도 "어머니 들어가세요.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이러는 게 공경이 아니라 어머니가 하고 싶어하시는 대로 따라 주는 것이 공경입니다. 또 우리 노인네들은 운동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돈을 드리면서 "어머니, 시장 구경도 좀 하시고 어머니 잡숫고 싶은 것도 좀 사 가지고 오세요." 하고 시장바구니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린다면 좋고요. 또 우리가 이런 공부 한다고 해서 "무당집에 가지 마세요. 그것은 귀신 노릇이요 그렇게 타의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묵살하지 말고 어머니 하시는 대로 그대로 두되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면서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도리를 아시게 하는 것도 주인공입니다.' 한다면 내 주인공의 그 자가발전소에서는 벌써 어머니라는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을 켜면 거기도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차차차차 마음이 바뀌어져서 며느리를 근중히 아시고 사랑하고, 또 며느리는 어머니를 근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며느리와 어머니, 부모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가정이 화목해지고 모든 일을 하는 데에도 잘 풀릴 것이고, 돈도 그런 화목한 집에 '아이, 이 집에 들어가면 나도 웃겠구나.' 이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돈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돈을 쫓아다녔지 돈이 좋아서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실 때 돈은 안 쫓아갑니다. 돈더러 물어보세요. "돈, 나 갈 때 너도 같이 가자." 이런다면 "당신이 좋아서 쫓아다녔지 내가 좋아서 쫓아다닌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고 안 갈 겁니다. 몸뚱이도 아마 안 쫓아갈 겁니다. 단지 쫓아갈 거는 여러분의 주인공과 자기의 의식 자체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에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해야 한다, 약을 먹어야 한다, 별짓 다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도 그렇고, 약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20년을 앓으면서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들였는데 이천 원을 가지고 나았답니다. 그거 무슨 소린 줄 아십니까? 무를 생즙 내고 술 한 숟가락 타서 몇 번 먹으니까 그게 낫더라 이겁니다. 그걸 가르쳐 줬더니요, 이천 원 가지고 나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동시에 나도 좋았죠.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남이 울면 같이 따라 울게 되고 남이 찌푸리면 나도 찌푸리게 되고 남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부처님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이라면 부처님답게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니, 그것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장도 자기한테 있고 관세음도 자기한테 있고 신중도 자기한테 있고, 의사도 자기한테 있고 용신도 자기한테 있고 지신도 자기한테 있고 모든 게 자기한테 있습니다.

물질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신도님더러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만 개를 수집해다 놔도 그것이 돌이 아닌 까닭에 탈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부처를 하나 때려부숴도 그렇고 저 신중당에 해 놓은 것도 없애려면, 그 의식을 다 빼고서 그 종이만 찢어 버려야지 의식을 그냥 놔두고 그것을 떼어 버리고 태워 버린다면 내 몸뚱이가 신장들한테 맞아 죽어요. 허허허…. 자기니까, 둘이 아니니까 신장을 자기한테 다 넣고 없애야죠.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하네요. 아까 원효 대사 얘기 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글쎄? 딴 데로 샜어요. 그래서 두번째, 그 젖을 놓고 먹이는데 그게 천도라니 그것은 무슨 연고인가? 염불을 해야 천도가 된다고 하는데 염불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늑대 새끼 젖먹이는 게 천도라고 하는데 그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도리냐? 천도시킬 수 있는 도리냐? 간단하게 말입니다. 또 그것도 화두가 될 수 있는, 관문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문이 많아서 문 찾기 어렵고 문이 없어서 문 찾기 어렵다는 것을요.

세번째, 원효 대사가 이렇게 무애가를 불렀죠. '도끼 없는 도끼에 자루 끼워 줄 사람이 없는가. 자루를 맞추어 줄 사람이 없는가. 기둥 없는 기둥을 깎아서 하늘을 받치리라.' 했거든요. '기둥 없는 기둥을 깎아서 하늘을 받치리라.' 이런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또 관문이 될 수 있고 화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모두가 관문 아닌 게 없고 문 아닌 게 없고 해탈 아닌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공해서 프로펠러처럼 돌아가니, 거기에는 틀도 없고 명경도 없고 먼지 앉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으니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누가 "당신은 죄업이 많아서 이렇소. 당신은 새달에 이사를 못 가오. 부적 사오." 이러더라도 그걸 덮어쓰지 말란 말입니다. 씌워 주지도 말 것이며 덮어쓰지도 말라 이거죠.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뉴욕에서 어떤 청년이 와서 날더러 "이 병을 낫게 해 주세요. 20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더란 말입니다. "병이 있걸랑 내놓으시오. 그럼 내가 병 고쳐 주리다." 하면서 병 붙을 자리가 어딨느냐고 악을 빽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꺄우뚱해요. 그 자리에서 다시 생각을 하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절을 아주 깍듯이 하고 가더군요. 그때서부터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한생각이! 우리가 지금 맥박 뛰듯이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거기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가난 붙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업보가 붙을 자리가 어디 있고요.

오늘 이것으로써 마칠까요?

※위 법문은 1989년 11월 1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다원

한방(韓方)치료
파킨스씨병, 치매, 우울증,
치질, 탈항, 고질성 위장병,
전립선염 비대,
해독, 통풍,
백내장, 메니에르 증후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혜당 한방병원
02)326-316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3-14
(서울 합정역 6번 출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091102-중-6224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불보살님의 가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대한불교조계종 청강사 혜광 합장
문의 055)932-5706
010-9506-5706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나눔 · 배려가 선진문화의 척도

얼마 전 모 대학 도서관에서 기증행사가 있었다. 퇴직한 교수께서 자신이 박봉을 쪼개 모은 귀중한 자료들을 기증하는 행사였다. 그분의 자녀 중에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도 있었지만 아낌없이 모두 후학을 위해 기증했다. 평소에 한 사람 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 대학이 박물관의 형태를 갖게 된 데는 이런 분들의 기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타인과 사회를 향한 배려에 대한 작은 감동이었다.

사회가 많이도 변하고, 우리들의 생활도 예전에 비해 퍽 풍족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웃돕기라는 말은 연말이나 들어봄직한 연례행사였다. 작금의 시대는 주위의 힘든 이웃을 넘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의 빈곤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떻든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즐기게 된 선진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질병과 끼니걱정을 하는 안타까운 차상위 계층이 많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환경에 놓여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조와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성공했다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삶이 아닌가. 대부분 어쩌다 좀 잘 살게 되면 이웃에 굶는 사람들이 있는지조차 무관심하다.

어쩌다 간혹 지나치게 되는 종로의 탑골공원 옆을 지나칠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 주변에는 아직도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들이 이외로 많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자식들이 있지만 돌보지 않아 방치된 현실이다. 이런 분들은 자식이 있기에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급격한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빈부격차의 심화로 실직자, 노숙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이웃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한편으로 좀 산다는 부류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허세를 떠는 사람들을 본다. 이들 중에는 과거 고생했던 사람들이 더 많다.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벌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우리는 이를 졸부라 한다. 이 단어 속에는 분명 고약한 뜻이 숨어있는데 무엇 때문일까. 가난했던 어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혹 지면은 대학에 전 재산을 기부하는 분들을 만난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분들 중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은 고사하고 경제적으로 그리 윤택하지 않은 할머니들이 많다. 삯바느질로 평생을 모은 돈이나, 미싱 하나가 전부인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본다.

예전에 동네의 한 집에 제사가 들면 여나믄 가구의 이웃들이 그 집 제삿날을 기억하고 밤이 되면 등을 켜 처마 밑에 매달아두었다. 석유가 귀하던 시절이라 여간해서는 등을 켜지 않는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석유등을 켜 처마 끝에 매달아 두었던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밥함지를 이고 길을 더듬어 제사 밥을 가져올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였다. 밥솥에 얹어 장떡을 하나 만들어도 담너머 이웃을 불러 한 조각씩 나눠먹던 순박한 인심, 따뜻한 정은 배고픈 시절에 그래도 사는 여유와 멋이 담긴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밥 한 끼, 참 귀하고도 고마웠던 한 끼 밥의 기억을 아직도 가슴속에 아련히 담고 있다. 누구나 하루 세끼 걱정은 면하고 사는 요즘, 이웃에 대한 작은 나눔과 배려는 분명 삶을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깊은 뜻도 언제나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평상심(平常心)이다. 흔들리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진 빚을 갚으라는 가르침이다. 어느 날 문득 부처의 생각이 우러나왔을 때 세속적인 갈등 없이 한 번쯤 실천해봄이 어떨까.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안거 기간은 수행의 기간

12월 1일 음력 10월 보름날을 기해 전국의 선원이 기축년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재가선방도 함께 결제를 했고 도심의 포교당에서도 정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수행으로 겨울나기를 발원했다. 매번 되풀이 되는 동안거와 하안거지만 닥쳐올수록 마음이 새롭다.

수행이란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마음의 번뇌를 조복시키고 절대평온의 자리를 찾아가는 수행에 어찌 쉼이 있고 중단이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안거제도는 집중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불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거기간 동안 모든 불자들이 정진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선방에 방부를 들인 납자들이나 재가선방에 들어간 재가자들, 도심사찰의 경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불자들에 국한되어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제 안거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가 됐다. 선방 등에서 집중수행을 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불자들도 안거기간은 수행의 기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집단 수행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안거기간만큼은 스스로 수행 시간을 정해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안거라는 좋은 전통이 과거의 형식 그대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보다 발전적으로 변하는 것이 좋다. 안거기간은 수행의 기간으로 정해서 불자라면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인식을 함께 하는 불자들이 실행에 옮기고 그것이 확산되면 언젠가는 새로운 수행풍토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야단법석의 가치, 불교의 미래

11월 21일부터 5일간 백양사에서 열린 제2차 야단법석이 막을 내렸다. 고우 스님을 비롯한 7명의 대덕들이 각자의 주제에 맞는 강론을 했고 그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지난 8월 실상사에서 불었던 한국불교의 정체성 찾기 열풍이 초겨울의 백양사에서 다시 한 번 불었다는 평이다.

'깨달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실천적 접근방법을 모색한 이번 백양사 야단법석은 '신종플루'와 계절적인 영향으로 사회적인 파장을 크게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불교계 내부에서는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는 두 번의 야단법석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우선 한국불교의 현주소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이는 회통불교 원융불교의 전통을 비판없이 답습해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현대화과정에서 스스로의 앞길을 정리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와 버린 탓이 크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 비판의 도마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또 그런 혼란상을 일소하고 시대에 맞는 옷을 입은 새로운 불교의 틀을 짜야한다는 원력을 대다수 불자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야단법석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따라서 야단법석과 같은 기획법회가 지속되어 제대로 된 한국불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야단법석이 새로운 불교운동의 길을 열어 주길 바란다.

현불만평 박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2월의 테마-유종의 미

아름다운 마무리란?

지난 11월 중순쯤의 어느 날이다. 저녁 늦게 신도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일 오전에 입관이 있으니 시다림을 부탁한다는 전화였다. 공교롭게도 곧이어 처음 절에 출가했을 때 공양주 보살님으로 계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연락도 받았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아침 일찍부터 시다림을 모시려고 서울 모 병원 장례식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돌아가신 분 영정에 향을 올리고 자리에 앉아 정성껏 2시간 정도 기도를 마친 후 잠시 쉬었다가 절에 돌아와 공양하고 매 주 가는 노인병원으로 가서 할머님들을 뵈었다.

우연하게 인연이 되어 찾아가게 된 병실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팔순이 다 넘으신 분들이 계신 곳이라 아프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었는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를 하고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생의 끝자락에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려니 마음이 여느 때보다 더 저리고 아팠다.

보통 병문안을 가면 어서 일어나셔서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시자는 희망에 찬 이야기를 나누고 온다. 하지만, 너무 연로하시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뵐 때면 그저 고통스럽지 않게 몸이라도 편안히 생을 마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30분 정도 병원에 있다가 다시 인천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시다림 기도를 했다. 6시쯤 시작한 기도가 9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공양주 보살님과 함께했던 옛 생각에 눈앞이 자꾸만 흐려져서 애를 먹었다. 몸과 마음이 많이 피로했다.

쉬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지만, 아직 갈 곳이 한 곳 더 남았다. 빵집에 가서 작은 케이크를 하나 사서 예전에 지내던 절로 향했다. 10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노스님은 아직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작은 케이크에 80개가 넘는 초를 켜고 노스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드렸다. 노환과 전립선암으로 생의 이편보다는 저편에 더 가까이 계시는 노스님을 뵙고 있으려니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왔다.

삶을 잘 살다가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잘 사는 것이야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쳐도 자신의 삶을 언제 정리해야 하는지를 알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도를 깨달아 생사에 자재하게 되면 자신이 언제 떠날지 알게 되겠지만, 절대다수는 그저 오늘은 아닐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그저 일상에 묻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부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시어 멋진 답을 제시하고 아름답게 그 끝을 마무리하셨다.

부처님 가르침 중 가장 맘에 든 구절 하나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전하라는 말이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좋은 가르침. 매 순간이 다 좋다면 굳이 끝이 아름다울 필요가 있을까? 부처님은 일체가 고라 하셨지만, 이 가르침을 다시 잘 곱씹어 보면 태어남도 좋고, 늙고 병들어 감도 좋다. 그리고 생을 마침도 좋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혜종 스님
남양주 봉영사 총무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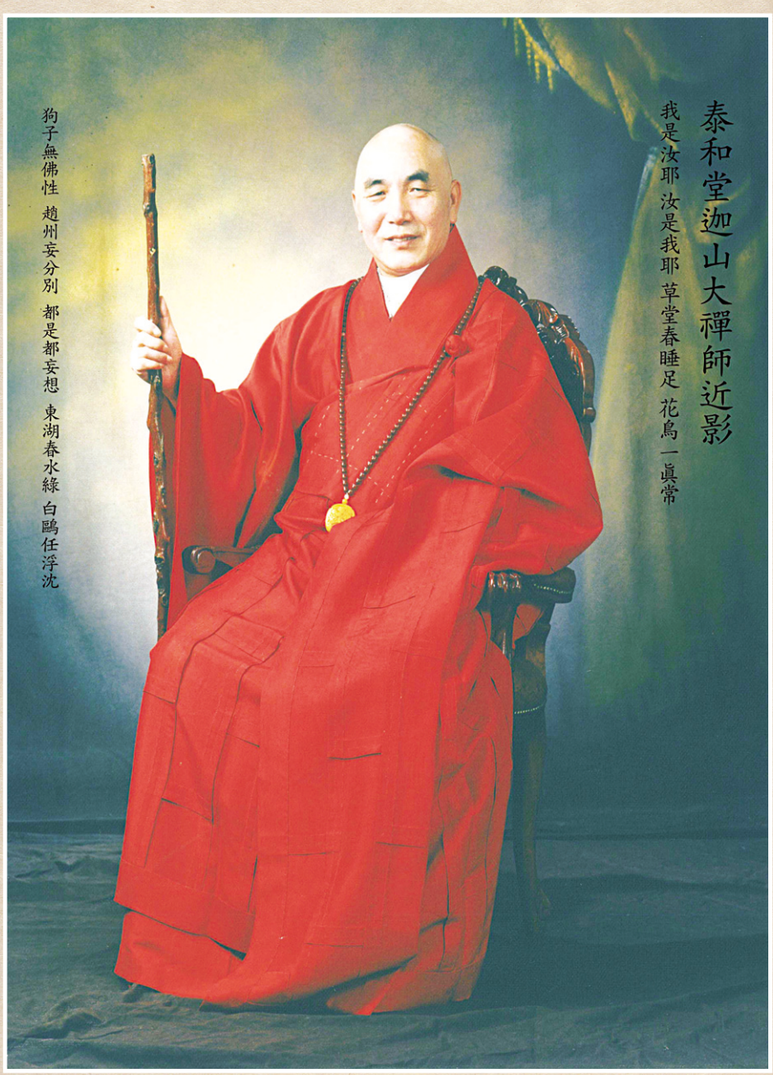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大覺敎團 大韓佛敎 傳統曹溪宗

泰和堂 釋迦山 大宗師 宗正猊下 推戴式

석가산 대종사 사바강탄 70년 고희지경법회



석가여래부촉법제 77세 조선불교중흥율제 8조 태화당 석가산 대종사

석가여래부촉법제 77세 조선불교중흥율제 8조
가야산해인사강맥 3세 금강산장안사강맥 4세

국토수호국민협의회상임 대표

조선불교 중흥율

제 1조 대은율사 제 2조 금담율사 제 3조 초의율사
제 4조 범해율사 제 5조 선곡율사 제 6조 용성율사
제 7조 봉암율사 제 8조 가산율사

● **추대일시:**
응화세존 3036년 서기 2009년 12월 9일
오후 1시

● **추대장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화랑관

♣ 세계불교평화상 및 공덕장 수여자는 30분 일찍 입석바람.
♣ 창종 7주년기념 승려 및 사암등록을 원하시는 분 환영합니다.
♣ 폐사찰이나 관리하기 힘든 사찰은 저희 종단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명예추대위원장 : **일파, 월우, 각성, 원당, 현블**
추 대 위 원 장 : **운암**
추 대 위 원 : **범아, 지공, 무안, 자인, 종묘, 혜명, 일봉, 보문, 서인, 법륜, 장원, 현덕, 진광, 우주, 인묵, 담연, 다윤, 무심**

집행위원장 : 묘각 집행부위원장 : 봉천
집 행 위 원 : 정진, 응관, 청인, 무량, 향운, 호암, 지도, 묘법, 정음

봉행위원장 : 능인 봉행부위원장 : 명석
봉 행 위 원 : 도안, 법공, 혜천, 청안, 혜문, 혜각, 도율, 수진, 혜공, 인황, 용산, 법운, 지심, 정광, 동법, 지우, 도천, 호산, 홍신, 성법, 혜천, 수공, 원담, 도문, 혜오, 진여, 길상, 법천, 지연, 월암, 덕원, 혜운, 청운, 능현, 철산, 지명, 혜명, 일원, 혜공, 권해, 청담, 범일, 지산, 청송, 규봉, 원일, 인우, 진각, 명광, 무진, 무아, 도원, 휴완, 보각, 무안, 명선, 무제, 현각, 현도, 증우, 정묵, 도성, 정산, 홍일, 연제, 해덕, 상호, 해인, 혜원, 도일, 혜오, 성월, 정인, 해천, 지우, 보타, 도법, 청로, 상열, 혜조, 도원, 보덕, 우초, 남명, 월봉, 진현, 범일, 서현, 청운, 보각, 용담, 혜송, 연와, 연화심, 금강심, 수덕화, 청정수, 목련화, 법연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추대봉행위원회 : 대구시 북구 읍내동 1122 대승사 ☎ 053)325-5288. 325-0400. 팩스 053)325-4848